

# 空軍

1982

AIR FORCE



### 全斗煥대통령 어록

2차세계대전을 비롯하여 韓國戰·中東戰 등 大小의 戰爭에서 空軍力의 優劣은 戰爭 勝敗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여 왔읍니다.

특히 首都 서울이 不過 數分內에 敵機가 來襲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領空을 守護하는 空軍力의 確保는 自主國防의 基礎的 要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우리 研究·技術陣의 不斷한 努力 끝에 新銳機 「制空號」를 飛翔시키게 된 것은 우리 防衛産業의 밝은 未來를 提示해 주는 더담돌인 同時에 自主國防을 達成코자 하는 國民的 意志의 結晶体라고 하겠읍니다.

-「制空號」출고 紀念式 致辭 중에서-

경

— 건군 제 34주년 —

축

# 국군의 날



이겨레 이나라

異河園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이제부터는 이겨레 이나라



# 空 軍

第182号

## 卷頭言

政訓監 姜容求 (2)

韓國經濟의 오늘과 내일 ..... 최 세 형 (4)

意識改革과 國家發展 ..... 金 玟 河 (9)

두 平和제전과 市民意識 ..... 馬 郁 (14)

意識改革運動과 우리의 生活자세 ..... 박 성 화 (20)

家庭教育의 重要性和 그 內實化 ..... 金 在 恩 (24)

反共教育의 개선 方案(Ⅱ) ..... (27)

제 3 세계와 종속이론 ..... 허 영 식 (32)

論 文: 韓國의 安保環境 ..... 徐 鎭 泰 (43)

폴란드의 現實(2) ..... (88)



포클랜드 戰爭의 양상과 敎訓 .....	崔 良 洙 ( 49 )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스텝모터 제어 .....	成 愼 模 ( 57 )
無人항공기의 戰術的 이용 .....	尹 龍 鉉 ( 65 )
航空機에 의한 장갑차량 攻擊 .....	양 광 석 ( 74 )

齒牙의 健康 ..... ( 健康醫學 ) ..... ( 100 )

敎養講座

..... ( 86 )

..... ( 87 )

보라매 日記 ..... ( 漫 画 ) ..... 鄭 雲 燮 ( 48 )

短 篇 소 나 기 ..... 金 裕 貞 ( 102 )

韓國人의 孝思想 ( 楡 谷 李 珪 撰 ) ..... ( 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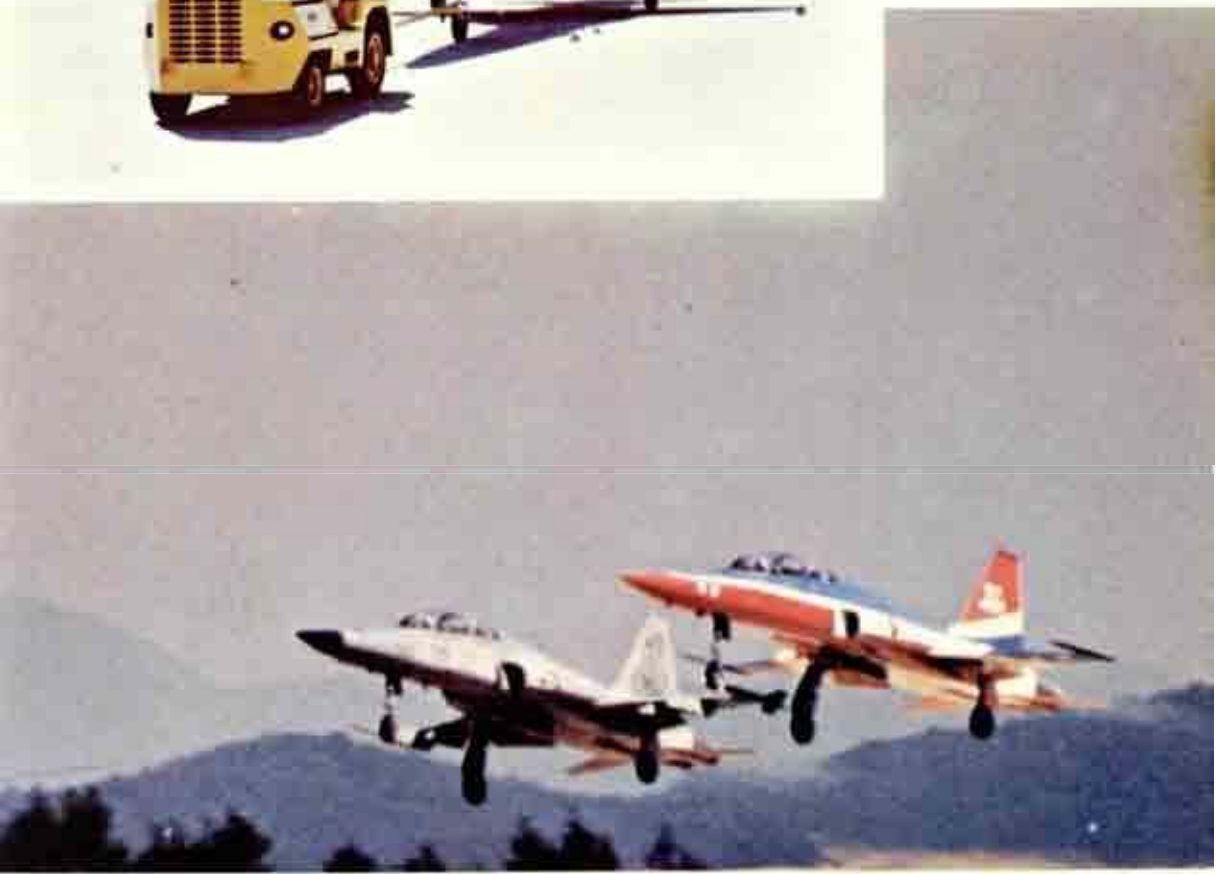


국산전투기(F-5F) 출고식  
1982.9.9



우리 손으로 만든 최신예 전투기 F5F (제공호)

일찍 시작되었던 우리 공군 최초의 제1 전투기 양산 사업은 1974년 10월 15일 100대째의 제공호 전투기인 10001호를 조립 완료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5일을 제공호 날기 날로 선포하였다.







제 4 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 개최 (10·9)

이날 모형항공기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10월 9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 4 회 모형항공기 대회에 참가하여 모형을 조립하고 비행시키며 항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형을 조립하고 비행시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형을 조립하고 비행시키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다.



◇ 삼군서관학교 체육대회 ◇





◇ 本部 精神教育場 開場式 거행 ◇

공공보안에서는 지난 9월 25일, 순직자·봉직자들을 위한 '정신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인식되어, 본부 '정신교육장'을 개장하였다. 총 4백56개의 좌석이 마련되어있고, 매일의 행사에 대한 순극의 공연까지 실시 할수있도록 되어 있어, 간략적인 시차와 교역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최후도장이 마련되어있다.



◇ 초정신교육회 실시 (9.25 본부 정신교육장) ◇

이날 정훈부장(민)이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空軍

제 182 호

— 1982년 제 4 호 —

參謀總長 統率方針

制空統一 이 룩 하 자

人 和 , 團 結

人 機 鍊 磨

見 敵 必 勝

空軍本部

# 空 中 警 戒 徹 底

政 訓 監 大 領 姜 容 求

太平洋戰爭에서 日本이 敗北한 것은 日本軍의 暗號를 美國이 解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秘話가 있다. 비단 敗因이 그뿐은 아니겠지만 日本軍의 作戰狀況은 暗號通信을 통해 손바닥보듯 친히 알고 있었으므로 제아무리 日本軍이 勇敢하다 해도 그 勝利는 변하다. 어쨌든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는 孫子兵法이 實證된 셈이다.

科學이 極度로 發達한 現代戰을 흔히들 「情報戰爭」이라고 비유하는 연유도 여기에 있는 모양이다.

스웨덴의 비밀군사기지 앞바다에 살며시 潛望鏡을 내밀었다가 자취를 감춘지 1개월째 五里霧中인 그 怪潛水艦이나 美國의 SR超音速 高空偵察機 등이 바로 이 情報戰爭의 妖術師들이다. 더구나 諜報靜止衛星까지 등장 假想敵國의 미사일 配置 移動까지도 친히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科學武器도 그 性能에는 限界가 있다. 그래서 敵對國 안에 은밀히 직접 사람을 파고 들게 하여 機密을 探知케 한다. 이것이 바로 間諜이다. 여기엔 敵對國의 秘密要員을 온갖 수단으로 포섭하기도 하고 평상시 첩보요원을 교묘히 僞裝 入國시켜 수십년씩 그곳 住民으로 행세하며 固定間諜으로 활용하는 등 奇想天外한 스파이劇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二大間諜의 突風 속에 휘말려 벌집 쭈신듯 하다.

크렘린의 對 이란工作을 다루어 오던 蘇비밀경찰인 KGB 高位요원의 英國亡命파

---

西方의 暗號解讀비밀을 15年間이나 누설해온 英國通信본부요원의 적발 등 그 大間諜事件으로 東西陣營은 啞然失色하고 있다.

前 테헤란 주재 蘇副領事 쿠지치킨의 轉向을 「10년만의 巨物 KGB 스파이」라고 西方측은 흥분하고 있지만 그 반면 英國정보통신본부의 소련어 번역관 프라임의 間諜행위는 서방 정보체제에 훨씬 더 큰 피해를 끼쳤다고 美國의 주요신문들은 연일 英國측에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한 사람의 背信행위가 祖國 뿐만 아니라 온통 友邦들까지 어려운 사상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데, 우리는 새삼 間諜의 두려움을 되새겨야 할 것 같다.

특히 북괴는 休戰以後 6만5천247건의 도발을 자행했을 뿐 아니라 地上, 海上, 水中으로 수많은 간첩을 남파시켰으나 우리에게 의하여 전부 사살 내지는 체포됐으며, 울들어서도 4월에 3개網의 間諜 18명을 체포했고, 9월에는 25년간이나 암약했던 固定間諜團 29名을 검거했다. 그런데 북괴는 그간의 대남공작이 성과가 없자 김정일을 주축으로 5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열의 침투방법을 바꾸어 공중으로 침투하기 위해 氣球, 글라이더 그리고 AN-2를 확보하고 있다.

영공방위의 성임을 수입받은 우리는 물설름없는 空中監視로 이들의 의도를 사전에 분쇄하고 만일의 경우 北傀間諜이 空中으로 浸透해온다면 한 명 남김없이 섬멸하도록 그 戰術을 開發하고 訓練해 놓아야 하겠다.

---

1. 머리말
2. 經濟開發計劃의 成果와 韓國經濟의 脆弱點
3. 經濟成長模型에 대한 反省
4. 經濟政策의 方向

# 韓國經濟의 오늘과 내일

崔世馨

〈韓國貿易協會 調查部長〉



## 1. 머리말

解放 이후 약 15年間 우리 經濟는 政治·社會의 不安과 生産施設의 破壞 등으로 인한 物量供給의 絶對不足으로 貧困의 惡循環이 반복되는 典型的인 後進經濟의 樣相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1962년부터 樹立 實施된 第1次 經濟開發計劃을 嚆矢로 세 차례의 經濟開發計劃을 成功的으로 遂行한 結果, 이제 우리 經濟는 1980年 後半에 先進經濟隊列進入을 目標로 하는 中進經濟國으로 成長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經濟開發過程에서 成長面에만 力點이 주어진 結果 20年間 平均 10%에 肉迫하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으나 物價의 安定과 國際收支의 改善面에서는 내세울만한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며 産業構造의 高度化나 企業의 財務構造의 健全化도 時急한 課題로 남아 있다. 더욱이 70年代에 들어서부터 臺頭되기 시작한 資源 內셔널리즘이 앞으로는 더욱 高潮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다가 80年代의 世界經濟는 戰後부터 第1次 石油波動期까지 近 30年間 前例없는 安定的 成長을 누리왔던 것과는 달리 成長은 鈍化하고 物價上昇은 높아지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現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成長의 原動力이 되어 왔던 輸出이 앞으로는 過去와 같은 높은 伸張勢를 維持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經濟의

成長展望을 어렵게 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의 成果를 먼저 살펴보고 이 過程에서惹起된 우리 經濟의 脆弱點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본 다음 第2의 跳躍을 위한 經濟政策의 方向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2. 經濟開發計劃의 成果와 韓國經濟의 脆弱點

8·15 解放 이후 60年代初까지 約 15年間 우리 經濟는 解放에 따른 騷擾, 6·25 動亂, 4·19 및 5·16 革命 등으로 政治·社會的인 混亂狀態가 持續되었고 經濟的인 側面에서도 日本資本의 撤收 및 南北分斷 등에 따른 經濟與件의 急變으로 供給能力이 극히 低下된 狀態에서 海外同胞의 歸還, 北韓으로부터의 越南人口增加 등에 따른 需要의 急增으로 需給不均衡이 深化됨으로써 食糧을 비롯한 一部 生必需品의 供給不足이 심각한 社會問題로 臺頭되었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物價暴騰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期間中 우리 經濟의 特徵을 한 마디로 表現하면 所得水準이 낮기 때문에 貯蓄이

낮고 貯蓄이 없기 때문에 投資를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生産性이 낮고 그 결과 所得水準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소위 貧困의 惡循環이 反復되는 狀態이었는데 이와 같은 惡循環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1962年부터 樹立實施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比較的 成功的으로 遂行함에 따라 우리 經濟는 20年間に 크게 變貌하였다. 먼저 國民所得面에서 보면 實施初年度인 1962年中 82「달러」에 不過했던 1人當國民所得이 81년에는 1,636「달러」가 되어 19배로 늘어났고 當時에 5千萬「달러」에 不過했던 輸出이 81년에는 200億「달러」의 高地를 넘어섰고 기간 中 420倍의 伸張을 보여 經濟成長을 主導하여 왔다. 產業構造面에서는 農林漁業의 비중이 43%에서 18%로 줄어든 반면 製造業部門의 획기적 伸張으로 非農林漁業部門의 비중은 57%에서 82%로 늘어났으며 이에 힘입어 비농림어업부문의 취업비중이 37%에서 66%로 증대되어 취업구조면에서도 큰 개선을 보였다.

<表 1>

過去 20年間の 經濟發展 成果

	62 年	81 年	倍 數
GNP(80年 不變)	127億弗	615億弗	4.8
1人當 GNP(經常)	87 〃	1,636 〃	18.8
商品 輸出( 〃 )	0.5 〃	209 〃	418.0
國內 貯蓄率	3.3%	20.0%	6.1
產業構造(附加價値 기준)			
농림어업	36.6%	18.0%	
비농림어업	63.4%	82.0%	
(제조업)	(14.3%)	(29.5%)	
就業構造			
농림어업	63.1%	34.2%	
비농림어업	36.9%	65.8%	

이와 같이 우리 經濟는 過去 20年間 놀라울 정도로의 成長을 持續하여 음으로써 產業構造가 高度化되고 雇傭이 擴大됨에 따라 所得水準이 兪지히 向上되어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와 같은 高度成長을 持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是 現 우리 經濟의 健康狀態와 앞으로의 世界經濟展望 卽 우리 經濟의 對內的 脆弱點과 對外的 制約 要因에 대한 克服能力이 關鍵이 될 것이다.

먼저 지난 20年 동안 經濟成長을 推進하여 온 過程에서 우리 經濟에 胚胎된 脆弱點은 무엇인가를 진단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는 安定기반을 公고하게 구축하지 못한 結果 物價安定에 失敗하였다는 點이다. 經濟開發計劃實施 이후 지금까지 20年間 物價上昇率을 보면 消費者物價의 경우 年平均 17%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解放 이후 16年間(1946~1961)의 年平均 約 80%에 비하면 兪지히 安定된 水準이기는 하지만 日本, 臺灣 그리고 OECD 諸國에 비하면 兪지히 높은 水準임을 알 수 있다(表 2 參照).

<表 2>

過去 20年間('62~81) 消費者物價 上昇率 比較  
(20年 單純平均上昇率)

韓國	臺灣	日本	OECD 諸國
17.2%	9.0%	7.0%	6.8%

物價는 모든 經濟政策의 總合的인 結果로서 나타나는 現象이라는 點을 고려할 때 物價上昇率이 높다는 것은 우리 經濟에 特殊한 事情이 없는 한 經濟政策의 어느 部分인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反證한다고 하겠다.

物價上昇의 根本的 原因은 超過需要와 費用

上昇의 두 가지로 大分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物價上昇 「패턴」은 70年代 이후 두번에 걸친 石油波動期를 除外하고는 대부분 超過需要形 「인플레이」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超過需要가 우리 經濟에 形成된 것은 지나친 成長爲主政策에 의하여 流動性供給이 過多하였다는 點과 經濟開發이 加工貿易形態를 취하게 됨에 따라 製造業部門에만 投資가 集中된 結果 農業을 위시한 1次產業部門이 相對적으로 萎縮됨으로써 食料品을 中心으로 한 生必需品의 供給不足現象이 점차 심화되었다는 두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인플레이는 資源의 配分을 歪曲시켜 그만큼 經濟의 能率을 低下시킴과 아울러 우리 經濟의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킨다는 點에서 볼 때 物價安定은 經濟成長에 있어서 가장 큰 課題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經濟의 두번째 脆弱點은 國際收支의 改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點이다. 經濟開發計劃 이후 우리나라의 經常收支推移를 보면 1965年과 1977年에 異例의으로 黑字를 記錄한 것을 除外하고는 계속 赤字를 나타냈으며 특히 石油波動期中에는 赤字幅이 더욱 擴大되어 왔다. 이와 같은 現象은 輸出이 꾸준히 增大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輸入이 輸出增大 또는 海外市場價格의 上昇에 比例하여 增大되어 왔기 때문이다. 좀 더 數衍하여 說明하면 우리나라의 資源與件으로 인하여 工產品 生産에 必要한 諸般 基礎燃原料의 輸入이 불가피한데다가 國內產業發達의 未洽으로 國內投資를 위한 機械類 등 資本財輸入의 比重이 크고 產業構造가 迂廻化되지 못함으로써 半製品과 部品마저 海外에 依存하고 있어 輸入代替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起因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經常收支赤字의 持續은 그만큼 對外債務을 增大시키게 되는데 이는 終局的으로 生



産된 所得으로서 그 元利金を 償還해야 하기 때문에 經濟成長의 效果를 그만큼 減少시킬 뿐만 아니라 國內産業構造高度化를 阻害하는 등의 副作用으로 인하여 持續的인 經濟의 發展을 가로막는 要因이 된다고 하겠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우리 經濟의 脆弱點은 企業의 體質이 虛弱하다는 點이다. 1981年中 우리 나라 企業의 財務構造를 보면 自己資本比率이 낮고 借入金依存도가 높기 때문에 金融費用負擔이 過重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1980년부터는 國內外 高金利현상에 따른

過度한 金融費用負擔增大로 인하여 企業의 收益性이 크게 低下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最近에 들어 海外市場에서 各國間의 競爭이 날로 熾烈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輸出增大를 통한 經濟發展을 持續하기 위하여는 우리 企業의 體質強化 즉 財務構造改善은 앞에서 지적한 物價安定과 國際收支改善에 못지 않는 重要한 課題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脆弱點 이외에도 技術水準의 低位, 産業部門間의 不均衡 및 生産性向上의 不振 등의 現象도 看過할 수 없는

<表 3>

韓國과 臺灣企業의 財務構造 比較

(單位: %)

	韓 國		臺 灣	
	'79	'80	'79	'80
自己資本比率	21.0	17.0	37.7	36.1
借入金依存度	48.4	49.3	34.3	38.3
金融費用負擔率	5.95	7.39	3.70	4.37
賣出額純利益率	1.53	△1.06	5.47	3.14

問題點이라고 하겠다.

### 3. 經濟成長模型에 대한 反省

經濟開發計劃을 着手하기 前後의 國內經濟與件은 ① 방대한 失業의 存在 ② 賦存資源의 貧困 ③ 資本 및 技術蓄積의 低位 등의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으며 海外經濟與件은 好景氣의 持續에 따른 國際貿易의 急速한 伸張과 原資材價格安定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經濟開發은 자연히 이와 같은 對內外與件으로 인하여 豊富한 勞動力을 利用하는 低度技術的 勞動集約産業 즉 섬유, 신발 등

輕工業分野에 特化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의 우위를 확보하고 世界景氣好況을 背景으로 이들 輕工業製品의 輸出을 增大시킴으로써 工業化를 推進하는 形態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資本蓄積이 不足했기 때문에 外資導入이 불가피했고 賦存資源이 貧弱했기 때문에 原資材를 輸入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結果 經濟發展이 進展됨에 따라 經濟의 海外依存도가 심화됨으로써 우리의 經濟開發 레턴은 對外指向的 加工貿易形態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有能한 企業이 養成되지 않은 狀態이었으므로 모든 開發을 政府가 遂行하지 않을 수 없었고 經濟規模가 單純하고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成功할 수 있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現在の 經濟與件은 어떠한가?

첫째 低賃金を 바탕으로 하는 國際競爭力의 우위는 우리 나라보다 賃金水準이 훨씬 낮은 後發開途國의 登場으로 消滅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둘째로는 最近의 世界經濟는 長期沈滯局面에 突入하고 있다는 展望이 나올 정도로 主要先進諸國의 經濟成長이 鈍化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國際貿易의 伸張도 시원치 못한 실정이다. 세계로는 70年代에 登場한 資源「내셔널리즘」이 점차 強化되고 있어서 國際原資材價格의 上昇率이 工業製品價格上昇率을 上廻하여 資源保有國의 交易條件은 有利해지는 반면 資源輸入國의 交易條件은 점차 不利해지고 있으며 셋째로는 世界經濟가 「블록」經濟化해가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 過去와 같은 市場多邊化에 의한 輸出擴大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 4. 經濟政策의 方向

國際貿易環境의 변화와 國內外賃金水準의 急變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 經濟의 成長을 主導해 왔던 加工貿易型 成長「엔진」은 無力化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輸出에서 經濟發展의 突破口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우리 經濟의 與件에서 볼 때 앞으로 持續的인 經濟發展은 이와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國內外經濟與件을 어떻게 克服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性能을 가진 成長「엔진」, 卽 어떠한 經濟發展戰略이 必要한가?

먼저 生産性向上이 가장 重要한 戰略이 될

것이다. 過去 初期의 成長은 방대하게 存在하는 失業者에게 雇傭機會를 提供함으로써 雇傭의 量的 擴大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이 제는 그와 같은 大規模의 失業이 存在하지도 않고 또 우리 經濟가 이미 低賃金の 「메리트」를 喪失하고 있는 이상 勞働者 1人當 生産量 增大 즉 雇傭의 質的 집화에 의하여 經濟成長을 追求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生産性向上은 단순히 勤勞者의 努力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技術水準의 向上과 이의 實現을 위한 合理化投資의 增大 그리고 品質向上 등 복합적인 要素의 結合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모든 經濟主體가 合心하여 努力해야만 向上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物價安定을 모든 經濟政策의 始發點이자 終局點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物價安定 즉 金利, 賃金, 換率, 地價 등 모든 價格變數의 安定없이 國際競爭力의 우위를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며 價格安定없이 本源的인 國際收支改善과 技術蓄積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過去 우리 經濟는 경쟁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物價上昇을 經驗하였고 경쟁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不利해져서 輸出이 不振하게 되면 換率을 불가피하게 引上함으로써 物價上昇과 換率引上의 惡循環에 빠져들게 되어 持續的 經濟成長을 위한 公認한 안정기반의 構築에 失敗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政府가 5次計劃에서 物價安定을 第1의 課題로 삼고 있고 또 最近에 들어 우리의 物價가 先進國水準에는 물론 日本, 臺灣, 西獨 등 世界的인 物價優等生國家에 버금할 정도로 安定되고 있음은 지극히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意識改革과 國家發展

金 玟 河

〈政博·仁川大學長〉

歷史는 人間進步의 歷史이며 人間變革의 過程이다. 진보와 발전의 思想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 參된 民族의 歷史性이 있을 수 없고, 變革이 없는 곳에 國家의 發展과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 1. 意識改革運動의 時代的 要請

周知하는 바와 같이 第5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全國 坊坊曲曲, 社會 各界各層에서 요란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社會淨化運動은 國政指標의 하나인 「正義社會具現」을 위한 國民意識改革運動이다.

다시 말하면 이 運動은 그간 우리 社會 各分野에서 만연되어 있는 不義, 不正, 腐敗, 不信, 無秩序 등 각종 非理와 弊習을 제거하고 서로가 서로를 信賴할 수 있고, 規範이 준수되고 秩序가 維持되며, 나아가서 創意性이 존중되어 發展하는 社會를 이룩하려는 汎國民의 精神革命運動이다.

그동안 우리 國民 모두는 온갖 試練과 겨늘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近代化努力에 渾身의 힘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驚이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自主國防의 固

진한 기틀을 마련하여 國民 各自가 民族의 矜持를 되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는 發展하는 새 韓國의 「이미지」를 世界에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韓國社會는 近代化와 產業化政策을 통한 급격한 社會變動과 政治的 특수상황에 의해서 社會의 모든 부분이 役割遂行에 있어 機能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傳統의인 것과 現代的인 것, 精神的인 것과 物質的인 것 사이에 調和로운 均衡을 이루지 못하고 價値觀의 혼돈과 규범질서의 混亂狀態에 빠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分斷과 戰爭이 가져 온 傷處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狀況下에서 급속히 추진된 物質爲主의 近代化로 인하여 傳統的 社會倫理가 붕괴되고 새로운 社會倫理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黃金萬能의 思潮가 판을 치며, 紀綱이 무너지고 不信이 팽배하여 無秩序하고 혼탁한 社會를 이루고 만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國家發展이 너무도 經濟 第1主義的인 發展現象에 支配되었고, 그에 따른 副作用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規範秩序를 확립하려는 努力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全國國民의 意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보편적인 價

價基準이 모호해지고, 社會全般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각종의 不條理, 不正腐敗 등의 社會惡에 대해서조차도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는 일마저 있었다.

그리하여 正直하게 行動하며 社會의 秩序를 지키고 착실히 노력한 사람은 正當한 待遇를 받지 못하고, 秩序를 무시하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높은 地位에 올랐거나 富를 축적한 사람은 能力있는 人間으로 인정받게 되는 倫理感覺이 마비된 社會風土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國家社會의인 狀況은 第5共和國의 出帆을 전후해서 우리 國民으로 하여금 지향하여야 할 진정한 目標設定에 대하여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이러한 時代的 國民的 要請에 부응해서 社會淨化運動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意識改革運動이다.

## 2. 社會淨化運動의 3大理念

한마디로 社會淨化運動은 오늘을 사는 우리 民族의 精神의 試練을 극복하고, 國家發展을 슬기롭게 達成하기 위한 民族의인 努力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正義社會의 具現」을 위한 새로운 規範體系는 우리 民族의 傳統的 價値體系에서 얻은 遺産과 일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現實이 필요로 하는 合理的이고 普遍的인 價値基準을 결함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적 요청에 부합하도록 定立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國民 모두가 오늘날 지니고 있는 意識構造 가운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버리고, 바람직한 것은 가꾸어 새로운 意識構造의 함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民族의 傳統과 時代的 要請을 조화시킬 수 있는 正直, 秩序, 創造를 새로운 規範體系의 核心概念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우선 社會淨化運動의 理念의 指標로 삼은 것이다. 즉 우리가 지향하는 社會는 正直이 바탕을 이루는 신뢰할 수 있는 社會이며, 그 社會生活은 秩序를 통해 조화를 이루고, 創造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보하는 國家社會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正直이란 價値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個人的으로는 양심에 입각한 行動이 要求되며, 社會는 個人的 양심적인 行動이 陽性化될 수 있도록 公正한 制度를 마련하여야 하며, 國家는 國家目標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合理的이고 合憲的인 正當性의 具現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社會의 價値觀의 위기를 克服하기 위하여 다음 段階로 要請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秩序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그것을 體質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秩序는 모든 存在의 基本法則이며 創造의 바탕이 되는 原理이다. 미세한 原子의 運動에서부터 宇宙의 生成消滅에 이르기까지 모든 自然現象에는 그 나름대로의 秩序가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人間社會에 있어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原理를 바탕으로 하여 秩序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 社會가 維持發展하기 위해서는 그 社會의 構成員들이 건전한 價値體系와 道德規範을 가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만일 社會의 構成員들인 個人이 精神的으로 타락하거나 올바른 行動規範을 갖지 못할 때 그 社會는 發展은 커녕 존속하기도 힘들게 된다.

따라서 個人으로서의 人間은 內面化된 體質的 存在意義를 건지하는 동시에 共同體生活을 위해 要求되는 일정한 秩序와 規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意味에서 社會秩序는 窮極的으로 個人의 生活安全과 價値實現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그 社會에 살고 있는 個個人들이 基本的으로 追求하는 核心的인 價値들, 예컨대 人權, 自由, 平等, 正義 및 幸福 등과 같은 價値들을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社會秩序는 사실상 意味를 상실하게 된다.

다음으로 創造란 이미 存在하고 있는 秩序의 基盤 위에서 出發하여 우리 民族의 時代史的 要求에 의해 自主的으로 성숙된 새로운 秩序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절극 創造는 正直을 바탕으로 한 신뢰하는 風土와 秩序를 존중하는 조화로운 社會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創造는 建設的인 批判이 장려되고 보다 좋은 狀態로 發展하려는 진취적인 態度와 참신한 발상력을 고무시킴으로써 個個人은 自身의 能力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되고 集團 또는 國家도 發展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正直과 秩序라는 두 理念의 實現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個人, 社會, 그리고 國家의 바람직한 發展의 礎를 굳건히 확립해 나가자는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創造의 理念과 만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 歷史創造를 위한 基本的인 要件 즉, 創造의 理念을 實現할 수 있는 推進力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個個人들의 創造의 知성과 進取的 氣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創造의 知성은 個人과 社會와 國家가 發展해 나아갈 方向을 제시하는 要素라고 한다면, 進取的 氣象은 일정한 目的을 향해서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實質的인 힘을 말한다. 그 힘은 目的 즉, 必要性에 대한 確信과 信念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現實判斷이 정확하고 方向設定이 分明하더라도 이를 끊임없이 追求하려는 의지가 결여된다면 目的하는 바의 創造的 課業은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 3. 意識改革을 통한 國家發展方向

社會淨化運動의 일환으로 展開되고 있는 意識改革運動의 目的은 한마디로 말해서 國家發展의 方向을 결정짓는 近代의 規範秩序의 確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政治的으로 民主主義를 土着化하기 위해서 民主市民의 倫理를 확립하고, 經濟的으로 國際經濟體制 속에서 競爭할 수 있는 合理的인 經濟倫理를 確立하며, 社會的으로 누구에게나 平等한 機會가 주어지고 公平하게 競爭하고 和合하여 발전할 수 있는 國家社會倫理를 生活化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國家社會倫理의 生活化를 위한 意識改革이나 精神革命運動은 結果的으로 行動의 變化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생활태도의 개선을 目標로 한다. 즉 精神面에서는 近代化된 社會의 國民으로서 지니고 있어야 할 基本資質을 갖추는 일이며, 일상생활면에서는 近代精神에 立脚한 人間行動規範을 지키는 일이다.

사실 오늘날 先進國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토록 國家發展을 누리게 된 것도 그들이 풍부한 自然資源을 가졌거나, 혹은 物質的 條件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들 社會의 構成員들이 올바른 價値觀과 건실한 生活態度를 가졌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社會가 變化하거나 國家가 發展하는데 있어서는 精神的 要素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것은 곧 國家社會의 構成員들이 健全한 思考方式과 生活態度를 견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社會規範과 秩序를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여 道德的 基盤이나 精神的 倫理가 物質的 發達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意味에서 國民意識의 改革이나 精神再建運動이 正當性을 갖게 된다.

일찍이 斗峯大統領은 『우리 社會에 뿌리깊은 否定意識의 잔재를 과감히 추방하고 正直, 秩序, 創造의 새로운 價値觀을 國民意識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意識改革運動을 本格的으로 추진하여 이를 民族的 國民和合次元에서 기필코 達成해야 할 歷史的 大課業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하고, 『본격적인 意識改革은 民族的 宿命적 대과업이니만큼 國家의 發展과 民族的 繁榮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기어이 達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라』고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意識改革이 곧 國家發展, 民族繁榮에 직결된다는 國政指導者의 강력한 소신을 비력한 것이라고 보겠다.

무릇 歷史는 人間進歩의 歷史이며 人間變革의 過程이다. 진보와 발전의 思想이 결여되어 있는 곳에 참된 民族的 歷史성이 있을 수 없고, 變革이 없는 곳에 國家의 發展과 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歷史的 變革과 國家의 發展은 自然發生的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國民에게 새로운 價値觀과 生活觀을 심어주는 歷史的 계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 歷史的 계기는 人間個個人的 예저에도 얻을 수 있고, 社會組織의 變化에서 얻을 수 있으며, 또 外

部에서도 주어질 수 있는, 政治的 힘의 作用에 의하여 마련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社會組織 속에서 共通의 이해를 가지고 生活하는 個人間의 意志와 自覺이 共同體意識으로 모아질 때 가능하다.

意識改革運動이 우리 祖國과 民族의 繁榮을 위한 礎를 이룩하려는 全國民的 意志와 愛國思想에 기인한 國民精神의 발로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이 運動은 全國民의 正直, 秩序, 創造라고 하는 3大精神을 바탕으로 한 살기 좋은 地域社會와 國家建設을 하겠다는 國民的 意志와 강한 共同體意識을 바탕으로 한 國民精神의 발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意識改革을 통한 國家發展方向은 과연 어디에다 目標을 두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 마더로 말해서 意識改革을 통해 主體的 民族史觀을 확립하고 祖國近代化를 이룩함으로써 分斷된 祖國의 統一을 보다 앞당기는 일이다.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國民統合의 길은 6천만 民族的 最大幸福을 保障할 수 있는 民族主義的인 새로운 指導理念을 創造, 開發하는 일이다.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民族主義思想」이 國民들의 自發적이고 倫理的인 지지를 얻어 汎國民的 合意와 統合을 가져오는 길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방만했던 外來思想을 냉철하게 批判, 分析하여 참다운 6천만 民族的 最大幸福을 가져오는 우리의 民族主義 「이데올로기」를 普遍主義와 個別主義의 조화 속에 開發하여 統一哲學을 정착시켜야 할 歷史的 使命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民族史的 課業을 수행하는 행동 원리를 우리는 우리의 主體的 民族史觀의 確

立을 통해 定立된 民族主義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 民族의 단결력과 親和力을 그 속에서 찾아 否定的 抵抗의 舊習에서 탈피하여 肯定的 創造의 새 秩序를 主體的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지난날의 우리 民族史는 主體性에 입각한 民族統合力의 根本要素가 숨어 있었으며, 그것은 우리 民族의 지력으로 끈질기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主體的 民族史觀의 확립을 통한 民族主義의 진정한 民主價値와 國民統合 意志를 오늘에 具現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民族은 汎國民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意識改革運動을 통해 바람직한 國家發展方向을 設定하고, 특히 國家安保를 튼튼히 하기 위한 自主國防의 精神戰力을 굳게 다져나가면서, 民族史를 再創造해야 하는 막중한 과업을 슬기롭게 성취해 나가야 한다. 그 課業은 지금까지 우리 民族의 民族史의 座標를 再定立하여 傳統的 舊習과 分斷國家의 보수를 과감하게 克服하여 진정한 民主的 價値를 지향하는 民族主義의 國家觀을 確立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다.

### <고사·일화>

독일의 슈를갈트시를 방문한 어떤 전도사가 당시 독일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로서 활약하던 요한 브렌즈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의 교회로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교회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예배가 끝난 후 이 전도사는 브렌즈에게로 가서 저윽히 놀란 표정으로 어찌된 이유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브렌즈는 이 전도사를 데리고 어떤 샘가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나그네에게 물기를 이 샘물의 가장 큰 특색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참 동안 전도사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샘물은 계속해서 흘러 나오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시러 오는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언제든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설교자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두 平和祭典과 市民意識

— 韓國 國際化의 새 轉機로 삼자 —



馬 郁

<日刊「諳國」編輯室長>

두 平和祭典을 앞두고 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위락시설, 都市整備 등 빈틈없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나, 그보다도 먼저 平和祭典의 主人으로서의 올바른 意識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 두 平和祭典 誘致의 意義

86년의 제10회 亞細亞 게임과 88년 세계 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했다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和解를 위한 키를 우리가 잡았다는 自負心과 矜持는 내일의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巨步이며 自信이라 아니할 수 없다.

86년의 亞細亞대회는 亞細亞의 영원한 전진을 다짐하는 亞細亞인의 제전이라는 그 자체로서의 명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제전인 88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로서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두 평화제전을 유치했다는 데서 보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남의 칭찬보다 민족을 받쳐 앉으면서 치르느냐 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할 때가 왔다.

앞으로 4년, 또 그로부터 2년,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금년 가을의 印度의 亞細亞 게임의 다음이요, 2년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23회 올림픽의 다음이 우리 차례라고 생각하면 그 준비작업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들로서는 일찌 생각지도 못했던 두 평화제전의 유치는 전두환대통령의 내일을 보는 英斷과 우리 민간외교의 끈기있고 성실한 활동 그리고 온 국민의 지지와 열망, 단합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가 그 두 제전을 꼭 서울에 유치하려 했던 것은 分斷國이며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 나라에 올림픽 정신을 재현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고 민족 雄飛의 결정적 계기로 삼으려 하는데 그 뜻이 있다.

우리가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시기적으로 보아 2천년대 이전에는 올림픽을 유치할 수 없다.

제23회 대회는 이미 1984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88년 개최지가 경쟁국이었던 일본 名古屋로 결정되었을 경우 다음 개최연도인 92년 대회를 서울에



유치한다는 것은 개최의 지역 안배원칙에 따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 대회인 96년 제26회 대회는 근대올림픽 부활 1백주년 기념으로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기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개최야말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천재일우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근래 와서 이 올림픽은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정치행사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72년 뮌헨 올림픽 때 아랍계릴라들이 이스라엘 선수단에 가한 정치적 테러,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남아공화국이 인종문제로 인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선수단의 철수,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한 자유진영의 불참 등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원래 올림픽의 기본정신은 인종, 국가, 종교, 정치를 초월한 전세계 인류의 단결과 친선을 통해 인류 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올림픽정신을 전세계에 전파한다는 올림픽 憲章의 목적에 따라 올림픽대회를 大體別로 순회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88서울올림픽의 유치는 그 의의가 매우 크고 또 그만큼 보람있는 제전이다.

### 國際的地位, 國力伸張 과시

두 말할 것도 없이 88올림픽의 서울 유치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튼튼하고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 놓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올들어 전주환대통령은 미국을 방문(2월)

했고 이어 아시안 5개국 순방(6월)을 통해 국제적 현안문제를 타개하고 이번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 방문길에 오른다.

이는 새 시대 자주외교의 기틀을 다진 우리의 외교역량을 80년대의 國際化하는데 큰轉機가 될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의 발돋움, 우리도 이제 세계 어느 민족에 비해 부끄럽지 않은 선진대열에 걸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를 갖게 됐다.

또 이는 슬한 해외교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한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안겨주었다.

북괴가 아시안게임의 유치를 포기한 것은 88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한 한국에 대하여 票對決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北僞는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의사가 없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유치 신청을 내자 뒤늦게 신청하여 유치를 방해하자는 속셈이었다.

사실상 북괴는 아시안 게임을 치를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시설은 대부분 낡아 각종 새로운 경기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통신시설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시아경기연맹(AGF) 조사단의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괴는 현재 衛星通信의 직접 回路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열 경우 각종 통신수단의 동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북괴가 아시안 게임을 포기한 또 하나의 이유는 폐쇄사회로서 정치적, 사회적 취약점을 외국의 참가선수단 또는 관광객에게 보여 줄 자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자신이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한국이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

것은 세계 올림픽 개최에 앞서 아시안 게임  
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 때문  
이다.

현재 우리 경기장 시설 진척은 70% 이상이  
고 아시안 게임을 치르면 2년 후 올림픽은 별  
다른 애로없이 대회가 운영될 것이다.

## 第2跳躍과 國民意識

이제는 더 이유없이 꿈쩍 못하고 두 평화제  
전을 치르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먼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88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했다는 것은 분단국으로 그리고 개발도상  
국으로 자량이 아닐 수 없다. 그 餘勢가 북괴  
로 하여금 스포츠외교에서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이다. 스포츠와 정치의 無關은 올림픽정신  
에 나타난 그테로이지만 미·중공간의 역사적  
약수가 「핑퐁외교」로부터 비롯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미 우리와 미수교국인 소련이나 중공이  
벌써부터 88서울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보도  
는 유치한지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총력전으로  
입한 국민외교의 개가로 북괴의 고립에 큰 몫  
을 했다. 우리 외교수원을 과시한 좋은 본보  
기라 하겠다.

올림픽의 서울 유치와 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간·적접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나라 외  
교(비동맹국)의 획기적 개선에 큰 건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수교국과 공  
산권과의 문화, 스포츠교류를 활발히 추진함  
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괴의 비  
방선전을 일기에 봉쇄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  
야 할 것이다.

올 9월의 바그다드 非同盟정상회담을 앞두

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난번 뉴델리회의에서의  
북괴제압에 이어 비동맹, 제3세계에서의 우리  
이미지를 높일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86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유치  
는 우리 민족의 긍지와 自負와 용기 그리고  
자신을 갖게 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국가  
들로부터 우리의 국제적 지위와 우리의 국력  
을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함께 5천년 民族史에  
서 일찍 그 유례가 없었던 세계적인 축제를  
우리 손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는 자신과 감격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적 영광과 기쁨을  
사회안정과 국가 발전의 정신적 支柱로 삼아  
세계 속의 한국으로 뻗어가는 제2도약의 轉機  
로 삼아야 하겠다.

그것은 올림픽이 그 나라의 발전을 촉진한  
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964년 동경올림픽  
을 개최하면서부터 패전국민으로서의 劣等意  
識을 떨끔히 씻고 민족적 자부심을 되찾아 국  
민 모두가 단합하여 올림픽을 무난히 치르었  
음은 물론 經濟大國으로의 도약을 성취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 조국은 비록 분단은 되어 있으나  
국민 모두가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총력  
을 기울여 대회 준비를 하나잔다면 반드시 성  
공될 것이 분명하다.

또 이는 우리 나라가 신진국으로 진입해 가  
는 국가 발전의 이정표요, 참된 도약의 기틀  
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 한국과 한국인을 세계에 소개하  
는 절호의 기회를 차근 차근히 충분한 준비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지난날에 이룩한 고도 경제성장의  
실적을 아시아경기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제  
2도약으로 삼아야 하겠다.

## 平和祭典과 市民意識

두 말할 것도 없이「86, 88平和祭典」은 우리 민족적 대행사다. 또 역사상 없었던 대키사다. 이러한 대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을 비롯한 숙박, 교통, 휴식, 여가선용 시설, 도시 정비 등 빈틈없는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손님에 맞이하는 주인의 자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가 주인으로서의 市民意識구조 개선이다.

손님을 대하는 예절, 경기를 볼 줄 아는 관람자세, 공중도덕을 지키는 정신자세가 어렵다. 오늘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는 출석기가 우선 몸에 배야 하고 車線을 지킬 줄 아는 운전이 생활화돼야 하겠다. 새치기나 권위와 特典으로 혜택을 보겠다는 정신자세를 고쳐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금년 초부터 단속하고 있는 침벨기, 담배꽂초, 휴지 버리기는 이제「단속」이란 차원을 넘어서「86아시안 게임」과「88올림픽」을 유치한 신진대열의 민주시민으로 그 정도는 이제 體質化돼야 하겠다.

文明利器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공중도덕을 지킬 줄 모르면 배워야 하고 또 수련되어야 한다.

주인이 질서를 지키고, 문화나 공공시설을 아껴 이용하고, 쓰레기나 휴지, 담배꽂초 등은 만드시 버릴 곳에만 버린다는 시민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제전에 찾아올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마음에 없으면 만물을 보아도 나타남이 없다고 했다(心不在면, 昇事不現이라.).

지난날은 제쳐 놓고라도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제부터 자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간다면 4년 뒤인 아시안 게임이나 6년 뒤 서울올림픽을 멋있게 치룰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직장이나 조직을 통하여 캠페인이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원래 책임의식이란 공익을 숭상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는 자세를 말한다. 또 질서의식이란 道德과 법규에 따라 올바르게 차례를 지키는 자세를 말한다.

세계 인류의 대제전을 끌어들이려고 주인이 주인 행세를 제대로 못해 남의 빈축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웃음거리의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 옛부터 東方의 예의바른 민족으로 불려워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主體를 잃은 放浪兒처럼 되어 반성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시장이나 백화점철의 불친절, 바가지 商魂, 횡단보도를 두고도 아무 메서나 건너가는 무질서의 작태는 개탄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 88올림픽을 유치했다고 해서 이제 1등국민의 隊伍에 끼었다고 생각지 말고 1등국민이 부러우면 1등국민답게 自負心을 갖고 스스로 행동에 옮길 때가 왔다.

그것은 그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고, 내가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멋있게 살면서 세계를 호흡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 半萬年歷史와 文化市民의식

우리는 흔히 5천년의 民族史를 자랑하면서 東方禮儀之國을 자처하고 있다.

그럼 과연 오늘을 살아 5천년의 빛나는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조상의 빛나

는 말을 제대로 계승하고 또 남이 일컬었듯이 예의바른 국민인가고 반문할 때 우리의 가슴은 철렁 내려 앉을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 입을 담은채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왜. 자신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의, 질서, 친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옛에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 옛을 살려 오늘을 알차게 살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욕구인 것이다.

이제와서 굳이 그것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은 개국 이래 최초로, 앞으로 있어도 2천년대를 훨씬 넘어야 다시 한 번 차례질까 말까하는 「인류의 제전」이 우리 앞에 다가 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친절이나 예의, 질서를 지키는데 돈이 들거나 물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맑은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지만 習慣化되지 않으면 사실 실제 行動化되지 않는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앞으로 4년 또는 6년을 修鍊기간으로 정하고 부단한 채찍질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해서 손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국민끼리 서로 주의를 주고 詰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에게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가혹한 벌을 주면서도 명랑하고 짜임새 있는 기리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살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교통, 통신수단이나 체육시설은 늦어도 85년 말까지는 완공되리라 한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의식구조 개혁은 시한이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친절과 예의를

습관화하고 실천만 하면 우리 국민이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알린다는 것은 그 어떤 투자보다 효과가 크다.

얼마 전 미국 진역을 순회한 「한국미술 5천년전」 미국 사람들이 갈채를 보았다고 한다.

단일 민족으로서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개국 2백년 밖에 안 되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전통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자랑 많은 우리가 이제 제집에 손님을 모셔 온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외교관이 된다는 의식 아래 이 역사적인 召命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의 4년을 내다보면서 각급 학교, 직장, 사회단체, 나아가 班常會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러한 습성을 길러야 하겠다.

문화민족임을 하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진정 5천년 전래의 조상의 즐거와 예지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손으로 과시할 때가 바로 지금부터인 것이다. 그것은 「86아시아 게임」이나 「88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假飾이 아니라 발전하는 세계의 潮流에 같이 휩쓸려 살아가기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 軍人精神과 市民意識

집단생활을 하게 마련인 인간이 각각 이기적이요, 自意的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회이고 集團이고 간에 질서를 잃고 파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파괴나 무질서를 막기 위한 장치가 어느 집단이나 사회이거나 간에 있게 마련이다. 군에는 軍人服務規律이 있고, 사회에는 社規가 있고, 사회단체에는 定款이 있어 그 나름대로 질서유지를 위한 장치가 있어 서로

통제하고 견제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집단의 제어규정만을 지키고 그를 벗어난 즉 사회인(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公衆道德이나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의 정화,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민주 시민으로서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 기초가 家庭이다. 병영에서 말하면 내무 생활이다.

철저한 가정교육, 다시 말해서 규칙적인 내무생활은 군의 모든 事故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내무생활의 불규칙은 軍紀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는 空軍에서는 일찍부터 完全無缺 운동을 전개하여 장병의 전서 생활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해서 86아시아 게임이나 88서울올림픽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를 군 내무생활화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터를 잡지 못한 우리 생활습성을 가정이나 사회교육을 통하여 훈련시켜 세계의 1등국민의 隊伍에 끼기 위한 시민의식을 갖자는 것이다.

모름지기 군에서 실시하는 精神教育 그 자체가 戰力增強에 큰 역할을 하면서 한 편으로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 군의 역할은 중차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군에서는 물론 제대나 예편되는 그날부터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의 내일을 걸머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확고한 민주 시민의식은 군의 정신교육에서 닦아지고 질러져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글으므로 86아시아 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盛事를 위해 우리는 이제 그 누구를 탓하거나 비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위치를 돌아다 보고 실천하는 마음 자세를 갖자.

그것이 오늘의 나를 민주 시민화하고 내일의 조국을 세계에 빛내주는 우리 세대의 至高의 召命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자.



# 意識改革運動과 우리의 生活姿勢



박 성 화

성실한 생활태도는 충성스러운 군인, 건전하고 진실한 시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세 번 잘 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잘 태어나야 하고,

둘째는 결혼을 잘 해야 하고,

세째는 잘 죽어야 한다고 한다.

필승공군의 일원으로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우리들 보라매는 오늘도 썩씩하고 젊음이 넘쳐 흐르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 태어났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겠다. 한편 「전쟁하기 전에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간다면 두 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려면 세 번 기도하라」는 격언이 있다.

결혼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더욱 중요시하여 삶의 동반자로서 이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생은 본래부터 죽음이 약속되어 있다. 이는 생명의 섭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생명이 언제 끝나더라도 삶을 멋있게

고도 후회없이 살았으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보람 있고 의롭게 사는 것만큼이나 참되고 의연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삶을 사는 듯 싶게 산 사람만이 뜻깊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볼 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보람있고 후회없는 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생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성실해야겠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성실해야 한다. 흔히 현대를 가리켜 불신시대라고 한다. 모두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은 적은 것과 같이 오늘날 인구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풍토에서는 믿음이 통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성실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군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상관에게서는 신임을, 동료들에게서는 인정을, 그리고 부하에게서는 존경을 받는 믿음직한 군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생활화 될 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들어간 적장에는 항상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근무하는 업무는 참상 발전한다는 신념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공자의 수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친생님, 국가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공자는 첫째는 足食(배가 불리야 하고), 둘째는 足兵(병사가 있어 나라를 지켜야 하고), 셋째는 民信(백성이 서로 믿어야 한다)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세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빼려면 어떤 것을 뺄 것인가를 묻자, 공자는 足兵을 들고, 또 한 가지를 빼면 足食이라고 말하고, 無信不立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 성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개개인이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군이나 국가 전체도 아직도 남아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령껏 적당히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많다. 물론 잘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바르고 참되게 산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톨스토이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농부가 어느 귀족으로부터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땅은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농부는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했다. 한 발자욱이라도 더

멀리 돌아야 한다고 생각한 농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멀리까지 달렸다.

해가 지려는 직전에 약속대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너무 지쳐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 농부를 땅에 묻어주며 귀족은 「이 사람이 다섯자 땅만 가지면 되는 것인데 공연히 고생을 하다가 죽었구만, 그 다섯자 땅은 누구나 다 가지게 되어 있는데」라고 말했다.

인간은 흔히 자기 자신의 욕제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욕제를 위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모두가 공허한 일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값있게 쓸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참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을 참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실하다는 것은 충성과 통한다. 그러므로 성실한 생활태도는 충성스러운 군인, 진전하고 진실한 시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다.

둘째, 숭신수필하여 봉사하는 군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의 삶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만을 위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참 삶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 밖에 모르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야말로 가장 지탄받을 일이다.

봉사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이다. 봉사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은 행복하다. 희생은 자기의 수고가 뒤 따르지 않으면 이득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희생없이 어느 집단이나 잘 될 수 없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생활태도 3가지를 곤충과 비유하고 있다. 즉 거미같은 사람, 개미같은 사람, 벌같은 사람이 그것이다. 우리 모두는 벌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이익을 주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일정한 봉급을 받기 위한 고용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헌하겠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 순간 적당히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은 언젠가는 잘못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우리는 정의롭게 군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나만 사식하고, 나만 편안한 곳에 군두하고, 나만 사역을 면하고, 나만 외출·휴가를 나가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때는 내주반 생활도 금이가고 말 것이다. 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봉사하고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기독교)의 유산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 그것은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다. 나도 나의 자랑스러운 딸과 아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되어도 좋으니 성실하고 정직하며 남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늘 바라고 기도한다. 이는 그 어떤 유산보다도 내가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이다.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자칫 매일매일의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루하루는 새로운 날이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나고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군 생활에서도 주어질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할 때 보람찬 군 생활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우리가 군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모두 떠나야 하므로 군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뿐이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비행장 활주로에서 또는 높고 깊은 산 골짜기에서도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성장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주어질 때마다 무슨무슨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성실하지 못한 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는 용기있는 보라매가 되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용기있는 젊은이로서, 공군의 일원으로서 조국과 군을 위하여 힘찬 봉사의 발걸음을 옮기자.

세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예일 대학을 갓 졸업한 21세의 한 청년은 워싱턴 군대의 첩보장교가 되어 영국군 후방을 뚫고 들어가 맹활약을 하다가 마침내 영국군에 붙잡히고 말았다. 협박과 공갈, 최유는 물론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독립군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다고 한다. 드디어 총살령을 선고받고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말이 지금도 그의 동상 이름 밑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



「나는 다만 내 조국을 위해 버릴 목숨이 오직 하나 뿐임을 유감으로 여길 따름이다」—21세 젊은 애국자—

죽음 앞에 초연함도 범사가 아닐진대 조국을 위해서 버릴 목숨이 하나 밖에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이 젊은이의 충정이 넘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조국이 있어 내가 있었다는, 조국이 나를 키워주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주었다는 감사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여 조국이며, 나는 네가 있어서 오늘의 영광된 죽음을 가져올 수 있었구나, 이 목숨이 하나만 더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나를 있게 해준 너를 위하여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건만 이 목숨이 다만 하나 뿐임이 원통하구나 하고 외쳤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순위고 있음이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내가 있어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조국이 있으며, 삶이 있음도 당연하지만 내 이웃이 있고 사회와 조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우리보다 비천하고 말 못하며 살아 있는 생명이 무릇 그 얼마인가를!

감사하는 마음없이 사는 사람은 인생의 사는 맛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다는 (不足之足 常不足 足而不足 餘有) 옛 성현의 말씀은 잘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도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척하며 참고 일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일의 생활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고생하는

가운데 많은 성장을 했다고 느끼면서 나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가게 된 것을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우리는 참삼 언제 어느 곳에 전속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군생활을 해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신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부여받았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생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하다. 성경에는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즉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생명,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온 세계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한 사람도 자기와 똑 같을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이나 인격도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것이다. 이러한 귀한 생명을 가진 개개의 인격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 갈 것인가 하는 물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은 것이다. 성경에는 내 목숨이 무엇이노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말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귀한 생명을 가치있고 보람있게 살다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우리는 젊음을 받쳐 조국 하늘을 지키는 자랑스런 보라매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나 자기 삶의 작품을 남기고 떠난다. 어떤 사람은 천한작품,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남긴다. 우리는 공군에 복무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군에서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늘 후회없는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家庭教育의 重要性和 內實化



金 在 恩

<文博·梨花女大教授>

家庭이란 생활의 거점이며 가정에서의  
教育은 人間的인 바탕을 만드는 가장 중  
요한 基本教育이라 할 수 있다.

## 1. 생활의 거점으로서의 가정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이  
뿌리를 박고 살려면 터전이 있어야 한다. 터  
전 즉 생활거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사  
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거  
점이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사상  
의 위치나 사회에 대한 입장, 생활의 자세, 정  
신적 태도, 그리고 물질 생활을 지탱하게 해  
주는 의지할 곳 즉 베이스캠프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터전은 현대일수록 살아가는데 있어  
서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발판이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이다. 생활의  
거점을 잃은 사람들은 마치 고층건물을 짓는  
공사장의 발판을 잃은 인부처럼 딛고 서서 일  
할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 되어서 사실상 아무  
것도 성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란 바로 생활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발판과 같은 것이다.

고도성장의 결과 우리들의 물질 생활이 함  
상된 것은 사실이나 정신생활은 도리어 빈약  
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  
면, 범죄의 증가, 특히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든가, 이혼하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으로 끝나는 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다거나 정신신경증병 환자나 정신장애자들  
이 늘고 있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개인병리적  
현상이나 사회병리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병리현상들이 꼭 가정문제에서 비롯  
되는 것은 아니로되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  
정서적 갈등, 생활상의 부조리와 부조화, 가  
치관의 상실, 가정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  
는 바이다. 사회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란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임에도 어찌서 서로 다른 문제들을 안겨  
주게 되느냐 하면, 바로 가정의 개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가정의 개성,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집단성격,  
인간관계, 분위기, 가풍 등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낳게 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터전인 점에는 가정교육도 또한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 2.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정이란 한 생명이 탄생에서 삶을 마무리 할 때까지 의지해야 하는 곳이며, 일시적으로 가정을 떠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의 전생을 담고 사는 정신의 고향인 곳이다. 태어난 아기는 가정 속에서 선제적, 정서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생리적 습관을 배워간다. 또 아기들은 「곤지 곤지」를 비롯한 감각훈련과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익히며, 그 대인관계 속에서 성격의 기본형을 갖추면서 자라나게 된다.

생리적 균형학습은 곧 그 사람의 체질과 생리적 습관을 만들어 주며, 일생 동안의 건강과 성격형성의 기초를 닦아주게 된다. 이러한 생리적 습관의 학습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네는 이 생리적 습관훈련에 대해서 꼭 소홀히 하고 있다. 식사습관, 배설습관, 청결의 습관, 책의 습관 등은 아주 중요한 기본습관들이며, 이 습관 기르기에 무관심한 편이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대인관계 양식은 일생 동안의 대인관계 양식의 기초가 된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서 애정을 받고 자라느냐, 지나치게 많은 보르를 받고 자라느냐, 전혀 애정을 못받고 자라느냐, 엄격하게 자라느냐, 느슨하게 자라느냐, 방인상태에서 자라느냐, 사랑을 거부당하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인된 후의 대인관계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일찍이 사랑을 거부당하고 자라게 되

면 그는 남을 사랑할 능력을 못 갖게 되고, 빛나가고, 반항하고, 드디어 조국도 배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심품과 가치관이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은 궁극적으로 성실성, 책임감, 정직성, 상호 존경, 연대의식, 공공정신, 질서와 같은 도덕적 품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 적절한 설역할, 지도성, 친절성, 사교성, 신중성, 활동성과 같은 기질적 특성 그리고 인생의 의미, 직업의 의미, 사회나 국가에 대한 봉사와 충성, 애국심, 희생정신, 봉사와 같은 가치관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걸러진다기보다는 가정에서 가장 깊고 넓게 걸러지는 것이므로, 가정교육은 결국 인간적인 바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또는 가정교육부재를 걱정할 때 가장 '섬려하고 우려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품성과 가치의 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가정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건강과 체질, 기본습관, 성격, 가치의식 등만 걸러주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감지하며 창조하는 심리적 경험을 주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한다. 예컨대, 부모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고 그 아름다움을 글이나 그림이나 몸짓으로 표현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매우 섬세한 예술적 감각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흔히 평가하기 쉬우나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우리는 흔히 지능은 유전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는 아버지나 어머니쪽의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지능의 일부는 분

명히 유전된다. 그러나 지능의 상당부분은 개발되어지는 것이다. 교육이나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잠재해 있던 능력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지능의 개발도 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지능이 개발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지능조차도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3. 알찬 가정교육을 위한 지표

이렇듯 중요한 가정교육인데도 오늘날 가정은 점점 무력해져서 그 교육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지능교육까지도 가정 밖의 전문교육기관이다. 단체나 외부인에게 맡김으로써 가정이 할 일은 단순히 집합적 기능 밖에 못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여성의 취업의 증가로 보호자요 양육자요 가정교육담당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로 변해 가고 있고, 가족원들 상호간의 관계도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어서 가정교육이 실 땅이 점점 잃어져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길은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가정경제 생활이 향상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가도 늘어서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문화생활이 향상되고 민도도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가정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부모교육을 확대해서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제인식시키고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자신감도 넣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글에서는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부모 자신들이 뚜렷한 삶의 목표와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의 모든 교육기술 따위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삶의 자세를 가지려면 부모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꾸준히 목표를 탐색하는 노력이 앞서야 될 것이다. 이런 자각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그 자신감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가 있다.

둘째로는 자녀들에게 꼭 지키거나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되풀이 되풀이해서 제시해야 하고 또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치에는 양보할 수 없는 무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지도기술이나 방법도 배워야 한다. 현재 30, 40대의 부모들은 자녀지도의 기술이나 방법에 대해서 속수무책일만큼 무지하거나 터득하고 있다는 방법조차도 매우 비효과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니까 효과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다.

넷째로 가정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형식화되면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교육문제에 관여해야 하며, 아버지들의 회피적 태도는 가정교육을 크게 흔들리게 할 우려가 많다고 하겠다.

×

×

×

# 反共教育의 改善方案 (II)

다음 글은 共產圈問題研究所가 主催한 共產圈情勢 學術發表會(82. 3. 31.)에서 明知大 尹元求教授가 發表한 「反共教育의 改善方案」에 관한 論文을 整理한 것이다.

## 6. 새로운 方法의 實例

### 가. 프롤레타리아獨裁論의 主張

蘇聯의 「經濟學教科書」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獨裁에 관한 學說은 마르크스主義 가운데 있어서의 主要한 部分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레닌은 이것을 한층 強調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속에 마르크스學說의 本質이 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프롤레타리아革命과 指導者 타우츠키)

「階級鬭爭의 是認을 프롤레타리아의 獨裁의 是認에 擴張하는 者만이 마르크스 主義者이다」(같은 冊)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問題는 프롤레타리아의 全 階級鬭爭의 가장 重要한 問題라고 말해도 誇張이 아니다」(같은 冊)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獨裁란 무엇인가. 일찍이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革命 後의 모든 國家는 獨裁를, 더구나 精力的인 獨裁를 必要로 한다」(新라인 新聞)고 하였으며, 또 레닌은 말하기를 「어떤 革命的 階級이 勝利하기 위해

시도 그 階級의 獨裁가 必要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革命的 歷史에서 무엇 하나 理解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領域에서 무엇 하나 理解하려고 心치 않는 자이다」(獨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라고 主張하여 그 必要性을 대단히 強調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의 主張에 따르면 獨裁란 ① 어떤 法律에 의해서도 絶對로 拘束되지 않고 ② 직접 暴力에 立脚하는 ③ 無制限의 權力이라고 되어 있다.

「獨裁의 科學的인 概念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制限되지 않는, 어떠한 法律에 의해서도 絶對로 拘束되지 않는, 直接 暴力에 立脚하는 權力 以外의 다른 것이 아니다. 獨裁의 概念은 이것 以外의 것을 뜻하지 않는다」(레닌: 獨裁問題의 歷史에 부쳐서)

「獨裁란…… 힘에 立脚하고 法律에 立脚하지 않는 無制限의 權力이다」(위와 같은)

「無制限의 法律에 의하지 않는, 가장 直接的인 의미에서의 힘에 立脚하는 權力 이것이 곧 獨裁이다」(위와 같은)

이것이 바로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獨裁이다. 그런데 共產主義者들은 이와 같은 獨裁를

가리켜서 이번에는

「참된 民主主義」 또는 「最高形態의 民主主義」라고 불려 讚美하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勤勞者의 切實한 利益을 나타내며, 그들의 民主主義的 諸權利를 現實的으로 보장하고, 大衆이 이들 權利를 行使하기 위한 物質的 可能性을 더욱 더 擴大시키인다.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條件下에서 勤勞者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나라의 主人公으로 된다」(經濟學教科書)

「資本主義에서의 民主主義는 資本主義的 民主主義이며, 多類의 被擄取者들을 抑壓하기 위한 少類 擄取者들의 民主主義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獨裁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는 프롤레타리아的 民主主義이며, 少類 擄取者들 등 抑壓하기 위한 多類 被擄取者들의 民主主義이다」(北韓 共產黨 幹部 教材, 政治經濟學)

「소비에트權力은 階級이 存在한다는 條件 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國家組織 가운데서 가장 大衆的이며 가장 民主主義的인 國家組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擄取者에 대한 鬭爭에서 勞動者와…… 農民이 提携하고 協力하는 무대이며, 그 活動에 있어서 이 提携와 이 協力에 立脚하며, 그 때문에 人口의 少類者에 대한 多類者의 獨裁를 表現하기 때문이다」(스탈린 : 레닌主義 基礎에 대하여)

이리하여 共產主義 獨裁政權을 가리켜서 레닌은 마침내 「가장 民主主義的인 부르조아 共和國보다도 100萬倍나 民主主義이다」(부르조아 民主主義와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라고 極言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조아民主主義는 少數者가 權力을 잡고 多數者를 支配하는데 반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多數者가 權力을 잡고

少數者를 支配하기 때문에 「참된」 또는 「最高形態」의 民主主義라는 主張이다.

#### 나. 프롤레타리아獨裁論에 대한 「以共制共」的 批判

그러면 이른바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저들의 主張과 같이 과연 「多數者」의 權力, 「多數者」의 獨裁인가.

우리는 이 問題를 農民이 그 獨裁下에서 과연 獨裁權力의 主體勢力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밝힘으로써 풀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하는 까닭은 發展이 뒤떨어진 社會일수록 勞動者에 비하여 農民이 多數를 차지하고 있어서 多數者 獨裁論을 主張한 레닌 당시의 러시아에서 人口의 75%라는 絶對多數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農民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은 말끝마다 勞動者와 農民을 짝지워 부름으로써 마치 이 두 階級이 差別없이 對等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共產黨史」에 보면 「프롤레타리아」는 그 自身の 지지를 보아 가장 先進的이며, 또 唯一하고 徹底한 革命的 階級이어서 그 때문에 革命에 있어서의 指導的 役割을 해야 할 使命을 가지고 있다.…… 徹底한 鬭士는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함으로써 農民을 勞動者에 대하여 根本的으로 差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은 農民을 가리켜서 「充分히 튼튼하지 못한 同盟軍…… 信賴할 수 없는 同盟軍」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 北韓의 「政治經濟學」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農民을 領導하기 위하여 勞動階級은 農民

의 二重의 性格을 區別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農民의 二重의 性格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는 勤勞者로서의 側面이며, 다른 하나는 私的 所有者로서의 側面이다. 農民의 勤勞者로서의 側面은 農民들을 勞動階級의 편에 따라 오도록 하며, 小所有者로서의 側面은 資本家階級의 편에 서게 한다. 따라서 「農民은 勞動階級과 資本家階級 사이에서 不斷히 動搖한다」 그리하여 레닌은 農民의 이 二重의 性格 사이에 「境界線을 긋지 않으면 안 된다. 그 境界線을 긋는 일 가운데에 社會主義의 全 核心이 있다」(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의 時期에 있어서의 經濟와 政治)고까지 말함으로써 農民에 대한 더 없이 徹底한 不信을 露骨의 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二重性格者여 서 믿을 수가 없다는 이 農民의 問題를 저들은 왜 그렇게 重要視하는가.

여기에 대하여 「政治經濟學」은 「人口 比例로 보아 農民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실자에 있어서 解放 직후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勤勞者가 약 10%인데 대하여 農民은 75%라는 絶對의 多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農民은 革命性도 약하고 二重性格者여 서 믿을 수는 없으나,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重要視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共產主義者들이 이 農民과 同盟을 맺는 目的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위하여 利用하기 위해서」(레닌主義의 基礎에 대하여)라고 말함으로써 그 속셈을 實吐하고 있는 바, 저들이 農民을 利用하는 方法——이것이 바로 土地分配인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國定教科書인 「經濟學教科

書」에 보면,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는 社會主義에의 移行의 길로 나아갈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客觀的인 必然」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共產黨이 政權을 掌握하게 되면 일단 土地를 分配해 주는 策 있었다가 「後日에 가서 農民經營의 社會主義的 社會가 이루어진다」(같은 冊). 즉 일단 分配해 주었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 되겠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土地의 公有를 「客觀的 必然」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 저들이 바로 그 土地의 分配를 約束한다는 것은 明白한 矛盾일 뿐만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이것이 矛盾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 認定하고 있다. 예컨대, 스탈린은 農民들에게 일단 土地를 分配해 주었다가 「後日에 가서 社會化하는 것」을 가리켜서 「明白한 矛盾」이라고 시인하는 한편 이것을 가리켜서 「辨證法的 問題 提起」란 말로 얼 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共產黨이 農民을 利用하는 方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이 疑心의 餘地 없이 밝혀진다. 즉, 農民에 대한 共產黨의 根本政策은 참으로 徹底히 計劃된 속임수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農民이 共產獨裁 權力의 主體 勢力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必要도 없는 일인 바, 이 사실을 直接的으로 그리고 源泉의 으로 밝혀 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스탈린의 「權力獨占論」이다. 그는 主張하기를 「政治的 支配權을 掌握한 계급은 그 支配權을 單獨으로 掌握할 것을 意識하고 이것을 잡은 것이며, 이 사실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概念 속에 包含되어 있다」(레닌主義의 諸問題에 부쳐서)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諸政黨 또는 다른 階級과 權力을 나누지 않고 또 나눌 수 없다」고 (權力獨占論) 스탈린은 斷乎하게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共產主義에 있어서 農民은 革命過程의 一時的 利用物일 뿐 權力으로부터는 처음부터 完全히 除外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人口의 絶對多數를 이루는 農民이 처음부터 除外된 權力이 「多數者」의 獨裁일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저들의 主張대로 勞動者階級이 한 사람 빠짐없이 權力에 參與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少數者」의 獨裁(1917年 當時의 러시아의 경우로는 10%의 獨裁이다. 그러나 勞動者階級이 빠짐없이 權力에 參與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히 별개의 問題이다)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은 다들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多數者」의 權力이란 뜻에서 보더라도 이른바 프롤레타리아獨裁는 절대로 「民主主義」일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共產主義者들의 理論, 主張이란 것은 이처럼 徹底한, 그리고 惡毒한 속임수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거짓과 속임수를恣行하는 근거가 저들의 價値觀과 思考方式—— 즉 「어떠한 行爲도—— 예컨대 殺人이나 兩親의 密告라도 共產主義의 目的에 도움이 되면 正當化된다」(共產主義者의 信條 第10項)는 저들 特有의 思考方式 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獨裁論에 대한 批判을 우리는 우리의 말이 아닌 저들 자신의 말로써 하였다. 이것이 바로 筆者가 말하는 「以共制共」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方法을 使用할 경우 어떤 共產主義者도 2~3時間 以內에 完全緘口하게 만들 수 있고, 既成世代와 反共教育에 대하여 아무리 不信하는 어떤 學生도 약 20時間 정도의 講義로써 完全히 善導할 수 있

으며 이 사실은 이미 試驗이 벌써 끝나 있는 것이다.

## 7. 第1의 當面 對策

「以共制共」의 이 새로운 方法은 이미 職業革命家들을 直接 상대로 한 實驗에서 劃期的인 成功을 거둠으로써 그 無比의 威力이 證明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 方法을 具體的으로 실시하여 充分한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의 理論의 二重構造 以外에도 또 많은 問題들—— 예컨대, ① 用語混亂戰術 ② 共產主義者의 價値觀과 思考方式 ③ 社會主義의 物質的 存在條件論과 現實共產主義社會의 本質 ④ 社會主義의 5義 ⑤ 蘇聯帝國主義의 成立 根據 및 行態 ⑥ 憲法에 대한 黨의 優位性 ⑦ 勞農同盟論과 權力 獨占論 ⑧ 共產主義 理論의 政治 道具로서의 本質(即 非科學的 本質) ⑨ 階級鬭爭의 道具로서의 共產主義 統計의 本質 ⑩ 勞動價値說의 反辨證法的 倒立 等等—— 이제까지의 研究와 批判에서는 充分히 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많은 問題들에 대하여서도 또 알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共產主義의 理論을 體系의 으로 代置할 수 있는 「더 나은 代案」까지를 提示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大學教育에서 이 方法을 導入, 實施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려면 여기에는 절대로 省略될 수도 없고 省略되어서도 안 될 하나의 必須的 準備過程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바, 그것은 다음 아닌 講義要員의 養成, 確保이다.

參考로 筆者가 이제까지에 실시해 온 專門家 養成課程(明知大學 및 在鄉軍人會 主管)의



要員候補人選基準	社會科學 專攻者로서, 可能하면 哲學에 素養있는 經濟學 專攻者 또는 政治學 專攻者로 한다.
要員 總數	約 500名 推算, 各 大學別 所要人員을 嚴選 差出한다.
每期 人員	100名 單位로 實施한다.
教育 期間	1週 5日, 6週(30日間) 實施한다.
日當 教育時間	6時間으로 하고 그中 每日 4時間은「共產主義研究」(尹元求著)에 대하여 研究한다(約 120時間 所要), 2時間은 共產主義에 관한 歷史, 運動, 政策, 現實, 秘話, 映畫, 見學 등 各論을 實施한다.
實施 方法	全員 合宿으로 實施한다.

經驗을 토대로 하여 大學의 反共教育을 擔當할 要員의 養成 計劃을 例示하면 표와 같다.

이 計劃의 實施에 所要되는 時間은 約 34週(每期 사이에 1週 休息), 費用은 5億을 결코 超過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方案은 5.17 直後에 이미 大統領을 비롯한 數百 關係者들에게 建議된 바 있으며, 만일 이 建議를 제빨리 着手, 實施했다면, 우리 나라의 學園問題를 根本적으로 解決할 수 있는 効果의인 準備가 1980年을 넘기지 않고 벌써 끝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晚時之嘆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곧 이 計劃을 着手할 수만 있다면, 1983年度 新學期부터 全國 大學에서 일체히 自信있고 効果의인 反共教育을 실시할 수 있는 萬般의 準備를 今年 안으로 完了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教授要員이 確保됨에 따라서 大學이 反共教育을 「國民倫理」로부터 分離 獨立시키고(예컨대, 明知大學 및 同 大學院에서는 現代思想批判이란 講座名을 使用하고 있음) 專攻課程(高校 以下の 反共教師가 될 學生)에 대해서는 4年間 約 400時間을 실시하고 一般 學生에 대해서는 적어도 週當 4時間으로 1學

期 또는 週當 2時間으로 2學期 동안 실시하며, 專攻課程 履修者가 輩出됨에 따라서 이들을 高校 以下 反共教師로 任用하여 現任者와 交替한다.

## 8. 豫想 效果

위와 같은 大學 反共教育의 改善이 成功의으로 實施되었을 경우, 期許할 수 있는 效果중 重要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各級 學校의 反共教育을 體系的으로 그리고 翻期的으로 整備 強化할 수 있다.

(2) 특히 우리 社會에서 第3의 社會勢力인 大學生을 勝共民主統一의 主力部隊로 만들 수 있다(1981年 8月의 白翎島 研修 以後, 이 可能性이 明確히 나타나고 있다).

(3) 政府의 既成世代에 대한 大學生들의 敵對關係 不信風潮를 대부분 解消함으로써 學園 騷擾의 素地를 크게 除去할 수 있다.

(4) 共產主義의 특히 理論에 대한 從來의 敗北主義를 一掃하고, 全國民의 思想的 勝共力量과 信念을 飛躍의으로 強化할 수 있다.

(5) 政治的, 思想的 측면에서 強力한 對北 攻勢를 展開할 수 있다.

(6) 平和的 統一(南北韓 自由總選舉)에서 勝利할 수 있는 精神戰力을 確保할 수 있다.

# 제3세계와 종속이론

역  
영  
식

## — 目 次 —

- I. 제3 세계
  - 1. 제3 세계의 출현
  - 2. 제3 세계의 개념
  - 3. 제3 세계의 이데올로기
  - 4. 저발전에 대한 두 가지 인식
- II. 종속이론
  - 1. 종속이론의 성립배경
  - 2. 종속이론의 주장
  - 3. 종속이론의 비판
  - 4.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
  - 5. 종속이론과 우리의 현실

## I. 제3세계

### 1. 제3 세계의 출현

제3세계라고 불리우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 제2차 세계대전의 폐막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전후 이제까지의 식민주의가 붕괴되면서 유럽의 팽창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에 오늘날 제3세계라 불리우고 있는 국가들이 독립하여 국제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들 국가들은 전국초기의 갖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점차 국제정치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국제사회에 이들 국가가 주장하고 나선 것은 우선 그들에게 불공평한 이제까지의 국제경제질서의 조정이었다.

이같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주장하는 일련의 국가들은 1955년 반등에서 자신들의 확연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수 많은 비동맹국가들은 두 강대국 진영과는 다르게 하나의 새로운 진로를 추구하는 그들의 입장을 천명했다. 그들이 천명한 새 잔로는 미·소의 비동맹 이상의 어떤 것이었다. 즉 그들은 각각 결합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의 모델과는 다른 「개발의 제3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미국식 모델보다는 사회주의 색채가 더 진하고, 소련식 모델보다는 민주주의 색채가 더 진한, 이를테면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적 방식이라 할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도 서방식 모델의 사회민주주의라기보다, 반등에 모인 제국이 제민족의 문화전통에 기초하는, 이른바 민족적 사회민주주의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

## 2. 제3세계의 개념

전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세계사에 등단하여, 민족적 사회주의라 이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제3세계이지만, 오늘날 제3세계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일정하지 않다. 다양하기도 하지만, 모호하기까지 하다.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3세계의 개념은 경제적 수준에 의한 제3세계의 구분이다. 즉 제3세계의 근본적인 특성을 산업화의 결여로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제1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산업화된 사회주의국가를 제2세계, 그리고 이 양 세계에 속하지 않는 국가를 제3세계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구별의 척도로 삼는 산업화의 정도가 모호하다. 어디까지가 산업화된 국가이고, 어디까지가 산업화되지 못한 국가인지 구별하기가 분명하지 않다. 또 실속 그같은 구분이 가능하다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즉 아직까지 산업화되지 못한 국가 중에는 산업화된 국가보다 자원이 풍부해 훨씬 높은 산업화의 가능성을 갖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정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다.

경제적 수준에 의한 제3세계의 규정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제3세계의 개념 중의 하나는 동맹관계에 의한 제3세계의 구분이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군을 제1세계,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군을 제2세계, 그리고 양대 블록에서 벗어난 국가군,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을 제3세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분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실제에 있어서, 비동맹회의에 가담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소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맹관계에 의해서 제3세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적이라 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제3세계론은 중공 특유의 제3세계론이다. 중공은 미국과 소련을 제1세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발전도상국을 제3세계, 그리고 양자 사이의 선진국을 제2세계라 구분한다. 그러나 이같은 구분은 오직 중공의 대소전략과 제3세계의 침투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논의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제3세계의 '개념'에는 각각 나름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세계라는 단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우선 제3세계의 "3"이란 수자가 주는 위양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변증법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3이란 수자에서 정반대의 합 즉 대립의 지양을 연상할 것이고, 프랑스 혁명사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3부회의 제3신분을 연상할 것이다. 그때 제3신분은 과거에는 망각되고, 착취당하고, 멸시받아온 계층이었지만 혁명을 맞아 시대를 뛰어넘어 낡은 계급이었다.

이같은 위양스와 함께 제3세계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면, 제3세계를 정치·사회·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갈 세 주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소한 제3세계를 어떤 일정 영역 즉 산업화라든지 동맹관계라든지 하는 특성만을 강조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 3.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

미국식 자본주의나 소련식 공산주의와는 다른 제3의 개발방식을 추구한 이후 4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100여개의 관계국이 공동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개발모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제3세계에 속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방세계의 국가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제3세계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단 일체라는 말은 아니다. 제3세계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지닌 것처럼,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다양하다. 제3세계는 명백히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적인 국가와 명백히 반마르크스주의(자본주의)적인 국가들을 포함하는가 하면, 종교적 전통에 따른 통치를 공인하는 국가와 극히 비종교적인 국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라 불리울만한 것이 있다.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는 반제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세 이념으로 특징지어진다. 제3세계 국가는 지리적으로는 변방 국가들이었고, 역사적으로는 식민지국가들이었다. 이런 관계로 그들은 냉전이라는 차갑고 치열한 전쟁에서 어느 한쪽편을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서대결의 고비가 지난 후,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의 위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어도 좋은 저당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제3세계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국가건설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제국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적 정열을 정책 또는 국민통합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 제3세계가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가건설에 매진함에 따라, 개인보다는 민족공동체에 가치 중점이 놓이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제3세계 국가들은 상징이든 실체이든 간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되었다.

이같은 맥락에서 형성된 제3세계의 이데올로기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명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로,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장이 국민대중에게 고루 분배되어 그들이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빈곤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 때, 그같은 것을 발전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첫번째 명제는 제3세계의 새로운 시각의 대표적 경우이다. 이같은 발전에 대한 견해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3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동의 받고 있다. 비록 등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질식시킬 우려가 있지만, 등등의 입장에 기초한 이같은 발전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찬동할 만 하다.

둘째로, 제3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빈곤의 원인은 제3세계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역사적으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자행한 약탈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서방의 선진국들에 유리한 불공평한 국제경제제도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이 두번째 명제는 제3세계의 다분히 자기기만적인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은 「재산이란 도둑질을 뜻한다」는 프로드혼

(Proudhon)의 말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이 이데올로기는 경제관계를 하나의 제로섬 게임(Zero-sum-game)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소득은 필연코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재산이란 도둑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면한 노동 및 창의의 결과이다. 식민정책과 제국주의가 제3세계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날 남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식민지가 아니었던 국가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 이는 식민정책의 관계가 일방적 착취의 관계만은 아니었다는 반증이 된다. 또 오늘날의 국제경제체도가 선진국에 유리하게 착취적으로 짜여있다는 것 역시 일면적인 고찰이다. 한국이나 대만 및 동남아국가 연합의 일부국가들은 착취적이라는 서방경제체제에 참가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다. 제3세계의 가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세째로, 서방세계가 지난날의 착취행위에 대하여 제3세계에 보상하고, 불공평한 국제경제체제를 개혁한다면, 이는 제3세계를 발전시켜 안정된 세계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나라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 세번째 명제는 앞의 두번째 명제로부터 도출된 귀결인데, 여기에는 두번째 명제와 마찬가지로 자기 기만적 요소가 있지만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서방세계의 빚이란 제로섬 게임의 가정 아래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같은 빚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익지가 되고 만다. 또 실혹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같은 채무를

변제할 채무자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며, 또 언제부터의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도 모호하다. 헝가리가 정키스칸이 자행한 약탈행위에 대한 보상을 몽고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같은 주장을 펴는 이유이다. 결국 이같은 논리는 발전이라는 것이 귀중품 덩어리와 같은 것이어서, 제3세계는 서방세계로부터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3세계의 기본노선 즉 자주성 및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원칙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이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가 이를 소리 높여 주장하는 까닭은 결국에 있어서 내부에 있는 빈곤의 원인을 바깥세계에 돌려버림으로써 위정자들이 자신의 무능 내지 부패를 은폐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제3세계의 경제적 풍요는 정치적 투쟁에 따르는 불로소득식 발전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지속적 경제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발전에서 얻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제3세계의 경제적 발전은 결국에 있어서 서방의 산업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도 이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가 빈곤 속에 허덕이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는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기 이익이 된다. 이 점은 서방이 도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차원에서 제3세계를 도와야 하는 이유가 된다.

네째로,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들도, 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듯이, 동일한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네번째 명제는 첫번째 명제와 마찬가지로

로 제3세계의 새로운 시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살펴볼 때, 이같은 긍정적인 명제가 오용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은 민권 및 정치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어느 특정권리를 다른 권리에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3세계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강조한 나머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민권과 정치적 권리가 유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선 어느 권리가 앞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권리 모두가 나란히 존중되어야 한다. 소련의 역사에서 이같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명백히 드러났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구실로 내세우는 것이 오늘날 제3세계가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다.

#### 4. 저발전에 대한 두 가지 인식

제3세계의 저발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서구적 발전이론을 반영하는 전통학파의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서유럽의 발전이론에 대해 대안적 관점에서 제시된 종속이론의 견해이다.

전통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제3세계의 저발전은 제3세계가 처하고 있는 선진국가는 다른 역사적 측면에 기인한다. 전통이론의 학자들은 이같이 제3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이 되는 역사적 측면으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발전국들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해결해 왔지만, 오늘날의 저발전국에서는 이러한 위기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

으로 나타난다.

둘째, 제1세계의 빠른 발전은 느린 인구성장률과 그같은 성장률을 압도하는 노동인구 수용능력의 팽창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제3세계는 대개 그 반대의 형편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인구압력과 실업의 문제는 이주에 의해 해소되었으나, 저발전국의 경우 잉여인구가 이미 인구과밀화된 도시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셋째, 제1세계는 부러워하거나 경쟁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3세계는 그 반대로 전시효과가 충족가능성을 앞지르는 기대의 상승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활속정책과 끝없는 불만이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네째로, 제1세계는 발전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외국제품과 경쟁할 필요도 없었고 수출주종품을 1차상품에서 2차상품으로 바꾸는 데도 방해받지 않았다. 그러나 제3세계는 이같은 이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제경제체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국내경제의 중요한 부분조차 지배 당하고 있으며, 1차 상품인 수출품들의 가격 또한 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가격의 변동도 자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

다섯째, 제1세계들은 발전의 시작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였는데 제3세계는 발전국가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학자들은 제3세계의 발전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발전국과 협조 또는 발전국의 호의에 의해서만 제3세계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전통학과의 견해에 대해서 라틴아메리카의 학자들은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즉 그들은 제3세계의 저발전은 제3세계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 본래적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상태이며, 이는 자본주의적 국제경제체제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같은 그들의 주장을 종속이론에 담아 전개했다.

## II. 종속이론

### 1. 종속이론의 성립배경

종속이론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발전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 반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왜 남미에서는 발전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반기를 들게 되었는가.

당시 남미를 에워싼 정치,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전후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고 민족자본가 계층이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수입 대체적 공업화정책이 추진되었다는 사실, 둘째로 그같은 추진과정에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고, 산업화가 일차적으로 외국자본가에 의해 수행되는 등 사회 경제적 모순이 누적되어 공업화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 셋째로 이 과정에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군국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는 사실, 넷째로 쿠바혁명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이 재차 고양되었다는 사실, 다섯째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차원에서 발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등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남미의 학자들은 제3세계의 저발전의 이유를 종속에서 찾았다. 남미제국의 경제가 서방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즉 남미의 경제가 서방의 발전과 확산에 의해 제약받아서 스스로의 발전에 장애를 받기 때문에, 후진상황에 머무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하여 종속이론이 제3세계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서 성립하게 되었다.

### 2. 종속이론의 주장

이와 같은 성립배경을 지닌 종속이론은 그러나 하나의 일치되고 절론지어진 이론은 아니다. 종속이론이라 불리우는 이론들은 그들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만큼이나 차이점을 지닌 그같은 이론들이다. 그러나 그같이 다양한 이론이 개진됨에도 불구하고, 종속이론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그것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수의 고도공업국가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적 중심을 형성하고, 전세계를 통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유리한 무역을 한다. 그러나 많은 저발전국들은 그 반대로 약조건 아래 있으며 국제적인 정치, 경제체제의 주변(Periphery)에 존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본, 기술, 고급인력들이 부족하고 1차상품의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가들은 계속 빈곤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중심국가들은 더욱 부유해진다.

둘째로, 발전된 사회와 저발전된 사회와의 관계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에 있다. 경제발전이란 몇 가지 자본주의적 단계를 거쳐 달성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저발전국가들은 발전

국가들이 오래 전에 거둔 자본주의적 역사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저발전과 발전은 역사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즉 상호작용하며 상호조건화하는 동시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발전된 사회와 저발전된 사회는 동시에 함께 있어야만 하며, 그같은 경우 주변국들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된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중심국가들의 발전과 팽창을 위한 무역구조에 주변국가는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메카니즘을 통하여 발전국가는 저발전 국가로부터 제화를 착취한다.

세째로, 종속의 문제는 전적으로 대외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종속은 국제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내적인 정책결정기구, 사회구조, 이데올로기적인 신념과 문화적 요소에까지 연장되고 있다.

네째로, 원조와 다국적기업은 중심국의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강화시켜 준다. 원조는 제3세계 정부들로 하여금 중심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따르도록 애속화시키고 조작하는데 이용되며, 다국적기업은 투자보다 더 많은 과실송금을 중심국가로 가져감으로써 주변국가의 자본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제까지와 같은 것들이 다양한 종속이론가들의 의견 중 공통된 것들이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종속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종래의 이론들이 「상호의존」 「공동협력」 「비교우위」 등을 국제경제질서의 원리로 본다면, 종속이론은 「상호의존」을 「종속」으로, 「공동협력」을 「불평등」과 「착취」로, 「비교우위」를 「불평등 교환」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국

제경제질서의 원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 3. 종속이론의 비판

이같이 설명될 수 있는 종속이론에 대해서는 종속이론 바깥에서 뿐만 아니라, 종속이론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같은 비판의 입장은 종속이론이 전통적인 발전경제학과 정치학에 새로운 관정을 제시함으로써 공헌한 것은 인정하지만, 비논리적인 측면 또한 크다는 것이다.

첫째로, 종속이론의 오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편향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작업했다는 점이다. 즉 종속이론가들은 현존하는 모든 지배-종속 관계의 사례, 예컨대 유고슬라비아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공산국가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저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간의 관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종속이론은 종속이 단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서만 빚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낳는다. 이같은 오해 위에 기초된 탈종속, 탈저발전의 정책 즉 사회주의적 정책은 오직 또 하나 종속, 또 다른 저 발전을 낳을 뿐이다.

이같은 실례의 예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수행한 바 있는 중공과 쿠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중공은 이미 자급경제체제(Autarchy)의 체제성을 지양하고 의자도입 등 문호개방을 통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력갱생 등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이상주의에 불과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저발전의 예이다.

쿠바도 초기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라는 열광적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 경제적 빈곤화를 초래 수 많은 탈출자를 내게 했고, 미국과



의 관계는 단절시켰지만, 대신 소련에 의존하는 새로운 종속관계를 심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종속의 예이다.

둘째로, 종속이론의 또 하나의 오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종속을 이분법적인 변수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가를 종속—비종속, 중심—주변으로만 구분하고, 종속—주변국가와 비종속—중심국가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밀착할수록 중심국가는 발전하고, 주변국가는 저발전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이분화이고 흑백논리라 아니 할 수 없다.

종속이론가들의 종속—비종속, 발전—저발전의 구분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류를 범하고 있다. 만일 하나의 피라밋의 정상에 가장 발전된 국가가 있고 피라밋의 바닥에 가장 저발전된 국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양극 사이에는 무수한 정도의 발전국가와 저발전국가들이 놓여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임의적인 선을 긋거나 종속과 비종속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가들의 종속 비종속, 발전 저발전의 구분은 모호하다.

또 종속이론가들에 의해서 비종속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캐나다나 벨기에가 종속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훨씬 더 종속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발전국, 저발전국을 막론하고 종속성이 존재하는 것이지, 유독 저발전국에만 종속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주의적 무역체제에서 벗어남으로써가 아니라 들어옴으로써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한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한국, 그리스, 푸에르토리코 등이 그같은 나

라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째로, 종속이론가들은 다국적기업 등 민간 해외투자가 착취적이고 해롭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너무나 통제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채취산업에 대한 투자는 착취적인 성격이 있으며 경제성장을 왜곡시키기도 하나, 제조업, 용역사업, 기간산업에의 투자가 반드시 국내경제발전을 왜곡시키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이 이윤추구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조화와 협력의 요소도 있으며, 관계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래 모든 거래는 양쪽의 필요가 충족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다.

네째로, 종속이론가들은 중심—주변 관계로 인하여 국가간은 물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평등한 분배는 종속경제의 현실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성장의 초기단계를 상징하는 특징이다. 또 미국과 같은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도 소외되고 빈곤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는 제3세계가 중심—주변관계로 벗어나기 위해 채택하려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지배계층의 관료화에 따른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노켈클라투라(붉은 귀족 계급)와 노동자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사회보다 더 심하기조차 하다.

다섯째로, 종속이론가들은 국제관계의 힘 즉 선진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저발전국 자신의 영향력이나 책임은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고 책임을 외부에만 돌리려고 하고 있다. 종속이론가들이 즐겨 인용하고 있는 일본의 근대화는 국제경제 체제에 편입되어 착취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

이러기보다 일본 국내의 힘과 발전의지의 결과였다. 국제제국은 항상 유동적이어서 민족의 결의와 활동에 의해서 그 영향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고, 그 체제를 다른 체제로 대체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종속이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탈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정책대안으로는 결코 적당하지 못하고, 단지 기존 자본주의 체제의 파괴만을 바라는 맹목적 이상론이라 하겠다.

#### 4.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최근에 와서 종속이론을 마르크스주의와 결합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민(Amin), 케트라스(Petras), 프랑크(Frank), 존슨(Johnson), 코크래프트(Cockcraft) 등은 종속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점에 불만을 가지고,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으로 종속이론을 선회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듯 종속이론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을 결부시키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맥락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로 종속이론은 분명히 계급분석의 틀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계급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둘째로 종속이론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레닌의 제국주의이론과도 결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 사이에는 본질적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첫째로 계급개념의 차이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이 모두 계급을 다루고는 있지만, 마르크스이론의 핵심은 계급이라기보다는 생산양식, 재화와 생산관계,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국가와 통치계급 등에 있는 까닭에 계급개념은 단지 정치적 전략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반면에 종속이론의 중심개념은 계급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볼 때 종속이론의 계급개념과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개념은 그 본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제국주의라는 개념의 차이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자유주의자 홉슨(J. A. Hobson)이 「제국주의론」을 쓴 이후로 제국주의론은 지배국가와 종속국가간의 불평등을 가정하고 있으며, 레닌의 제국주의론도 종속을 고려에 넣고 있다. 이리하여 종속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이론적 지주를 레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레닌에 있어서 제국주의란 단순히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를 말한다. 그렇지만 현대적 자본주의의 형태는 레닌의 자본주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다. 이로 볼 때 종속이론가들의 제국주의라는 말과 레닌의 제국주의라는 말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개념의 차이이다. 마르크스, 레닌은 궁극적으로 후진국의 노동자, 농민이 각성하여 중산층과 연합으로 제국주의 체제에 저항할 것을 전망했으나, 종속이론에서는 저발전국가가 계속 경제적 문화적으로 빈곤하고 낙후된 국가이며, 또 정치적으로도 종속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볼 때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은 상반되는 것임이 드러난다.

이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종속이론가들 특히 아민은 마르크스이론과 종속이

	자본주의적 관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투쟁관	중속을 극복하면 민족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유도될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계를 극복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와 사회주의적 발전으로 갈 것이다.
계급관	(1) 민족적 발전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될 것이다. (2) 민족 부르조아, 파두세, 부르조아, 중간부문을 강조(민족 부르조아를 기본적인 계급으로 간주)	(1) 점점 갈등상태로 될 것이다. (2) 봉건 계급, 부르조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강조(프롤레타리아를 기본적 계급으로 간주)
자본주의적 발전	중속적 자본주의를 고전적 자본주의와 구별하는 유형에 입각.	생산방식, 생산의 사회적 계급, 계급투쟁에 근거하는 법칙에 입각.
국가관	국가는 중속성을 제거하는 투쟁에 있어서 민족에 기여.	국가는 자본주의적 발전과 민족적 중속성을 유지 보존하는데 있어서 지배계급에 기여.
세계주의관	지배국가가 중속국가를 압탈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어 정치·군사적 팽창과 연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모순된 발전임을 반영하는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와 연관.

론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초기중속이론의 문제의식을 퇴색시키는 동시에, 비판의 소지를 마련하게 하는 불씨를 만들고 있다. 다음에 보이는 중속에 대한 자본주의적 관점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비교는 중속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 중속이론의 애초의 출발점을 얼마만큼 왜곡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5. 중속이론과 우리의 현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중속이론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정에서 배태된 대내적 불평등과 내외의존의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아온 것처럼 중속이론은 그 자체로서도 많은 논리적 문제점을

지닌 학설일 뿐만 아니라, 그 학설의 실험역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구나 중속이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는 것은 남미에 중속이론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중속이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남미의 역사적 전통이나 자연적 여건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서구와의 경제관계에서 1차상품을 수출하고 2차상품을 수입하는 불평등 교환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진국이 우리와 접촉을 가진 것은 경제적 이유에서라기보다 지정학적 이유에서이며, 일제통치기간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경제적 착취를 당한 실증적인 사례가 없다. 그러므로 남미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형성된 중속이론을 우리에게 적

용하는 때에는 우리가 있다.

물째로, 주변국가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통합됨으로써, 또는 발전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발전과 중속이 심화된다는 중속이론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최근 20년 동안 GNP는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여왔고, 우리의 수출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8년부터 1978년 사이에 0.21%에서 1.07%로 성장하였다. 또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수출규모가 평균 18.7%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우리 나라는 39.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중속이론가들의 주장이나 예언과는 반대로, 우리 나라가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절대적 성장은 물론, 상대적 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속이론의 주장은 우리 경제체제와는 모순되는 성격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로, 현재의 우리 나라 상황이 그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중속이론의 범주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와의 관련성이 큰부분의 이론들을 이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분단상황이라는 결정적인 독립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다해도, 마르크스주의적 생산양식론이나 계급타임을 침체화하여 폭력혁명을 부채질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급진적인 중속이론가들의 최근의 논리는 논리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비효과적이며, 비인간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속이론의 일부 등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쪽으로 신뢰하고 있는 좌경 중속이론에 특히 비판적 수용태도를 견지함은 물론, 주변-중속관계, 착취, 불평 등에 대한 이론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글은 美空軍大學院 戰略政策과정을 優等으로 修了함과 동시에 어번大學校 碩士과정을 우수한 成績으로 卒業하여 美國 政治學會 會員資格을 取得한 바 있는 筆者가 海外留學을 준비하는 장병들을 위해 提供한 당시 어번大學 政治學 碩士과정의 卒業論文을 空本 정훈감실에서 번역한 것이다.

## 韓國의 安保環境(IV)

### — 4強을 中心으로 —

徐 鎮 泰

#### 第 5 章 韓半島의 安保 環境

##### 2. 軍事環境

##### (1) 北韓의 軍事態勢

北傀는 1960年代初에 채택한 4大軍事路線(戰士幹部化, 軍現代化, 全人民武裝化, 全國土要塞化)에 따라 軍備擴張과 現代化 努力을 集中하고 있다. 北傀 陸軍은 約 70萬으로 25個 師團에 約 2,000臺의 戰車를 保有하고 있다. 北傀 空軍은 約 120臺의 MIG-21機를 包含하여 대부분이 MIG-15, 17 및 MIG-19機로 構成된 約 600臺의 戰鬥機를 保有하고 있다. 北傀 海軍은 誘導彈發射哨戒艇, 魚雷艇, 上陸艇 및 潛水艇 등을 갖추고 있다. 北傀 陸軍의 主軸은 2個 機甲師團 및 5個 獨立機甲旅團으로 이들이 攻擊의 主力이다. 北傀는 게릴라戰을 重視하여 特殊部隊를 訓練시키고 있다. 北傀는 또한 勞農赤衛隊 등의 強力한 豫備戰力

을 確保해 놓고 有事時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正規軍에 轉입할 수 있도록 高度의 戰鬥態勢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다.

다음에 北傀軍은 主로 蘇聯製 武器로 充當했다. 그러나 産業技術의 發達로 自體 武器生産能力이 強化돼 왔다. 北傀軍은 現在 自體生産 武器와 主로 蘇·中共製 武器로 裝備돼 있는데 점차 自體生産武器의 質과 量을 높이고 있다. 現在 北傀는 DMZ 근처에 強力한 砲支援을 받는 約 14個 師團을 配置시키고 있는데 이 중 일부 砲와 地對地 미사일들은 韓國의 首都 서울을 射程圈內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韓國의 軍事態勢

한국군 戰力の 핵은 主로 步兵師團으로 構成된 陸軍이다. 北傀와는 달리 한국에는 戰車師團이 없다. 軍事裝備과 병참지원면에서 한국은 國內 武器生産과 支援體制를 꾸준히 改善하고 있다. 美國의 支援 속에 한국은 軍事力

增強計劃을 추진 중에 있다. 特히 國內 武器開發에 있어 한국은 1970년대 말에 미사일과 로켓의 시험발사에 成功했고 이터한 성공은 海外, 特히 日本으로부터 상당한 關心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군 대부분은 休戰線에서 수십마일 내에 配置돼 있다. 首都 서울이 休戰線 最南端으로부터 불과 40 km (25마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어시설이 首都防衛體制를 강화하기 위해 構築돼 있다.

서울 방어의 最大 難點은 首都가 地理的으로 休戰線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問題는 韓國의 全領土 방어가 아니라 北傀軍이 서울에 도달하기 前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어 능력이다. 일시적인 서울의 함락일지라도 그것이 한국의 指導層에게 주는 政治的 心理的 衝擊이 크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政府는 자신을 잃게 되고 內戰協商의 경우 자체 立場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北傀로 하여금 迅速한 終戰을 위한 外交的 利益을 주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北傀는 現位置에서의 休戰을 주장함으로써 政治的, 外交的 이익을 얻으려고 努力할 것이다.

### (3) 南·北韓 軍事力 比較

北傀는 主로 戰車 및 戰鬪機와 같은 機甲 및 空軍力이 優勢하다. 北傀는 正規師團 以外에 各々 戰鬪에 임할 수 있도록 準備된 勞農赤衛隊를 갖고 있다. 한국이 高性能 航空機를 가진데 비해 北傀는 戰鬪機數에 있어 압도적인 量的 優勢를 갖고 있다. 北傀는 強力한 게릴라戰 遂行能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릴라戰에 對處하기 위해 한국은 상당수의 正規軍을 投入해야 할 것이다.

兵站支援面에서 한국은 美國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本土와 日本 및 오키나와를 포함한 太平洋 駐 美軍으로부터 各々적인 支援을 받을 수 없다. 反面에 北傀는 蘇聯 및 中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軍事施設의 生存力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이 갖는 地理的 不利點은 首都 서울의 位置로서 北傀 SSM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 드는 반면에 赤都 平壤은 休戰線으로부터의 어떠한 直射火器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 第 6 章 四強의 勢力關係 속의 韓國의 立場

### 1. 韓國의 自立과 相互依存의 矛盾

第2次世界大戰의 終結은 植民主義의 終結을 나타냈다. 西邦 海外帝國의 붕괴는 많은 新生 國들을 相互依存體制로 들어가게 했고 植民地 解放은 지개발국들을 하나의 새로운 國際政治 勢力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問題, 그리고 새로운 政治가 당대의 國際環境의 일부분으로 나타났다.

韓國의 歷史는 自立·民族主義와 相互依存·國際主義의 矛盾된 歷史의 實例다. 歷史를 통해 한국은 中國, 러시아 및 日本 帝國主義의 야망에 시달렸다. 이들 3國은 한국인의 思想, 궁지, 愛國心을 짓밟으려고 애쓰면서 한국인의 民族主義에 統制를 가했다. 歷史上 한국은 국경을 침범하는 어떤 國家의 干渉에서도 벗어나 하나의 民族社會로 出現하려는 努力을 결코 그치지 않았다.

第2次世界大戰의 終結로 自主獨立과 民族主義에 대한 한국인의 熱望은 實現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했다.

蘇聯과 美國에 의한 南北間의 인위적인 분단은 한국인의 오랜 민족적 열망인 自主의이고 統一된 國家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좌절시켰다. 國土分斷에도 불구하고 南北韓 國民들은 統一을 열렬히 갈구했다. 그러나 蘇聯의 선동과 뒤이은 韓國動亂은 分斷을 심화시키고 統一의 企圖를 좌절시켰다. 어떻게 일개 強大國이 分斷國을 하나의 同盟體制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인은 언제나 한국인이자 蘇聯이나 美國인이 될 수 없다. 韓國은 政府間의 계승을 통해 계속 한반도의 統一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이 힘을 합쳐 타협하고 強大國의 영향력을 풀리칠 수 있을 때까지 勝算은 반 뿐이다. 南北韓 政府가 國際體制에 인정받기 위해 다투기 때문에 安保要求와 한반도를 둘러싼 強大國들의 國際的인 利益은 南北韓 政府의 對外政策形成에 있어서 아직은 중대한 관심사다.

한국에 대한 美國의 軍事支援 및 駐屯은 한국인의 自由行動을 규제하는 또 하나의 실례다. 現狀維持, 南北統一對話, 戰爭과 平和에 대한 문제는 韓國과 마찬가지로 美國의 重要政策問題다. 國際政治에 있어 포괄적인 理論은 없다. 各國은 自國의 最大 利益 속에 行動한다. 한국은 國家建設을 위해 강력하게 團合된 힘이 필요하다. 政治的, 經濟的 自立을 發展시키는 것이 國家建設을 가져올 것이다. 비록 한국은 美國의 「安保담요」가 必要하지만 最近의 國際政治 발전양상은 外勢로부터의 절대적인 安保保證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立證했다. 各國이 最小限의 生存能力을 갖도록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世界의 現實이다.

韓國이 自立을 求하는데 있어 矛盾은 最小限의 自立을 달성하자면 외국 자원과 技術支

援에 상당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는 技術과 世界의 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요구는 國家들을 나누는 地理的,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인 거리감을 축소시켰고 國家間의 必要性, 利益, 아이디어, 生産, 조직 및 政策이 겹치는 點을 크게 확대시켰다. 이러한 중복상태는 한국경제에서 100% 석유수입의 必要性에 의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비록 韓國이 수입石油에 의존하는데 있어 혼자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例는 自立과 相互依存의 矛盾을 強化시킨다.

대부분의 韓國 重工業은 美國, 日本, 프랑스, 西獨, 네덜란드와 같은 先進産業國의 다국적 會社와의 合作投資속에 길러지고 成長한다. 現代造船所는 世界 造船産業에 있어 1978년 9위로 랭크됐다. 韓國의 造船能力은 1991년까지는 日本의 造船能力을 앞지르도록 계획되어 있다. 美國, 프랑스와의 共同投資아래 한국은 현재 하나의 核發電所를 稼動시키고 있다. 第6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끝나는 1991년까지 韓國 發電力의 45% 이상이 10個의 추가 核發電所에 의해 充當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자민국으로부터의 핵연료 획득은 核武器 확산과 연계될 가능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또 다른 어려움은 다국적 기업의 子會社로 그들을 해외 企業을 통치하기 위하여 韓國政府의 能力을 弱화시키면서 韓國 經濟發展에 參與하는 많은 外國投資家들의 統制인 것이다.

어떻게하면 相互依存과 國際主義 勢力을 물리치고 독립된 民族主義 勢力이 成功的이고 效果的으로 나타나게 할 것인가는 우리 時代의 主要 爭點이며 矛盾이다. 오늘의 世界에서 政治와 外交는 밀접히 연관되어지고, 國家 利益의 개념도 점차 유효하게 使用하기가 어렵

게 되고 있다. 戰略的인 路線, 資源, 그리고 때로는 理想的인 確信때문에 불가피하게 外勢支援에 의존하는 國家는 완전한 의미의 民族主義와 自立을 행사할 수 없다.

國力이 더 이상 과거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주권의 절대주의 時代는 지나갔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世界政治에 있어 自立과 相互依存 및 民族主義와 國際主義의 이율배반은 세계의 다극화 세력에 의해 強調되는 하나의 挑戰으로 남을 것이다.

## 2. 重要課題와 將來展望

韓半島의 狀況은 한국인의 염원인 國家安保, 經濟부흥, 政治發展을 전보다 더 촉구하고 있고 이들 과제들은 同時에 힘차게 추구되어야 한다.

### (1) 國家安保

우리의 最優先策은 韓半島에서 戰爭을 防止하고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는 것이다. 平和의 갈구는 時空을 초월한 세계적인 요구다. 悲劇的인 同族相殘의 戰爭을 經驗한 韓國民에게 平和는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다. 우리 한국인은 北傀로부터의 끊임없는 武力挑發의 위협아래 살고 있다. 지난 10年 동안도 北傀는 앞서 말한대로 好戰的으로 軍備를 增強하고 땅굴을 파고, 게릴라와 간첩을 南으로 내려 보냈다. 北傀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밀폐돼 있고, 劃一化돼 있으며 理想的으로 好戰的인 共產集團으로 남아 있다.

韓半島 平和維持를 위해 北傀의 武力侵攻을 防止할 적절한 軍事力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한국은 美國의 相互防衛條約을 통한 防衛努力속에 도움받아 왔다. 우리는 우

리와 함께 北傀侵攻을 阻止하려고 共同努力을 펴고 있는 美國 政府와 國民에 깊이 감사한다. 특히 우리는 韓半島로부터 美軍을 撤收하려는 前任 카터大統領의 努力에 종지부를 찍고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을 公式的으로 再闡明한 레이건大統領의 영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비록 軍事力이 重要하지만 영구적인 平和를 위해서는 軍事力만으로 不充分하다. 平和는 南北間의 신뢰와 理解氛圍造成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理由로 全斗煥大統領은 1981年 1월 12日 北傀 金日成이 서울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全大統領은 最近의 레이건大統領 訪問 때 이러한 초청의 뜻을 제천명했다. 全大統領은 중단된 南北對話를 두 조건 再開하여 平和統一의 길을 여는 歷史的轉期를 마련하고, 南北間의 신뢰감 회복과 悲劇的인 同族相殘의 戰爭再發을 防止하기 위한 新기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南北韓당국 最高責任者 相互訪問을 屢속히 제의했다. 統一의 길은 말로만의 제안이나 지켜지지 않는 書約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회복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歷史的인 平和案을 내놓으면서 우리 韓國民은 南北間의 問題解決의 길은 우리의 意見의 차이를 줄이려는 全國民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同族相殘의 戰爭을 막는 相互 신뢰를 증진하고 平和統一을 가져올 수 있는 對話再開에 目標을 두고 南北韓 최고당국자간의 역사적인 相互訪問에 따라서만 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最大盟邦인 美國이 우리의 統一努力을 분명히 支持할 것으로 믿고 희망한다. 그러나 韓國民이 國土分斷의 人爲性을 認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애초부터 韓半島 分斷을 멋대로 계획한 것은



韓國民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이였다. 「神은 스스로 돕는者を 돕는다」韓國民이 아니고서는 統一의 절박성에 대해 긴급하고 심각하게 關心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 統一을 위한 모든 努力을 끊임없이 韓國民은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 (2) 經濟復興

우리의 두번째 優先策은 經濟發展과 成長을 계속하는 것이다. 韓國民에게 經濟發展은 重要한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것이다. 사실 經濟發展은 戰爭防止와 國家保全을 위한 先行條件이다. 持續的인 經濟成長은 우리의 軍事力強化와 國民生計 確保에 必須的이다. 國家繁榮은 北傀로 하여금 武力정복의 기도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0年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과 發展을 이룩했다. 우리는 美國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진실적으로 이용해 가난에서 벗어났고 우리의 經濟는 世界 開發途上國中의 가장 성공적인 보기가 되었다. 우리는 美國의 經濟的 支援 덕택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후손들이 그들의 先祖가 국가건설 과정에서 입은 미국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앞으로 후손에게 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自然資源이 빈약하기 때문에 繁榮을 위해 우리는 주로 우리의 人的 資源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貿易擴大에 의존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진보보다 더 輸入을 自由化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貿易에 있어 수년간 輸入超過를 해왔다. 우리는 특히 美國과 같은 우리의 貿易相對國이 韓國과의 貿易이 相互利益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

하고 貿易에의 기여가 한국의 平和와 安定을 가져온다는 것을 계속 理解해 줄 것을 희망한다.

## (3) 政治發展

韓國民이 당면한 세번째 주요 과제는 政治的 社會的 安定을 달성하는 것이다. 어느 社會나 安定이 必要하다. 그러나 韓國은 지난해 동안의 우리의 불행한 經驗의 結果로 그 重要性을 특히 잘 알고 있다. 우리의 最近의 政治的 不安은 北傀에 의해 利用되었다. 더구나 社會的 不安은 심각한 經濟的 影響을 미친다. 지난해의 혼란한 狀況으로 우리 經濟는 그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收縮까지 되었다.

政治的 社會的 安定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公式은 없다. 國內 질서와 安定이 즉각적인 위협에 있을 때 行政權을 강화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安定은 대다수 國民이 政府를 믿고 政府의 決定에 따를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의 民主政治制度는 아직은 弱하고, 우리가 열정이나 정성이 不足해서가 아니고 아직은 정치적으로 세련되거나 성숙되지가 않아서 때때로 우리 國民이 의견 일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인이 民主主義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韓國民의 政治發展에 대해 樂觀的이다. 과거에 民主政治에 대한 우리의 추구는 가끔 矛盾된 길을 걸었다. 韓國民은 自由와 社會的 責任, 個人主義와 질서, 變化와 安定을 동시에 추구했다. 이것은 衝突과 緊張을 超來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최근의 政治的인 經驗을 통해 극단적인 行動은 대단히 파괴적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재만화(4)>



# 보라매 日記

정 운성



## 포클랜드 戰爭의 樣相과 敎訓

崔 良 洙 譯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간에 영토분쟁 대상 지역인 "Falkland 군도는, 1952년에 영국인에게 의해서 탈점된 이래 유럽 열강의 분쟁대상지역이 되어 왔으며, 1833년 영국이 점령, 현재 까지 통치하여 왔으나,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에서 독립시 동 영토를 이양받았으므로 자국의 영토임을 계속 주장해 오던 중 1982.4.2. 아르헨티나가 이 분쟁지역인 Falkland 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영국에서는 Falkland 점령 아르헨티나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철수하지 않으므로, 양국간에 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유사시 태평양—대서양간에 항로 장애가 용이한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풍부한 자원(세계 제 1위의 석유어장)과 해저 유전매장량(2,000억 배럴 추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전쟁은 종식되어 영국의 승리로 돌아갔으나,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복잡한 전후처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최신풍기가 동원되었던 한편의 해상미사일전은 세계각국의 군사전문가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전쟁이었다.

### 미사일전

Falkland섬에 대한 선전포고 없이 발발된, 영국—아르헨티나 전쟁에서, 구리파에서 개발한 공중발사 대함미사일을 전투에서 최초로 시험한 결과, 단 1발로서 함정을 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었으며, 전투가 일시적인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블란서에서 개발한 AM 39 Exocet 미사일과 영국에서 제작한 Sea Skua 미사일은 이번 전쟁에서 최초로 발사되어 각기 적국의 함정을 격침시켰다. 그 외에도 영국의 헬리콥터에서 발사한 SA-12 유선 유도 미사일은 해상에서 아르헨티나의 잠수함을 급습하여 무력하게 하였다.

이번 전쟁에서 과시한 Exocet 미사일의 성능은 매우 위력적이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Super Etendard 전투기에서 발사한 2발의 미사일 중 한발이 영국의 Sheffield 신형 구축함을 공격하여 화염에 싸이게 하였으며, 이 함정은 화염을 진압할 수 없게 되자 수시간 후에 포기하게 되었다.

Sea Skua 미사일은 초계기로 개조한 아르헨티나 해군의 에인션을 명중 격침시켰으며,

Sea Skua 미사일은 영국 구축함에서 발진한 영국해군의 Westland Lynx 헬리콥터에서 발사되었다.

그 외에도 Sea Skua 미사일은 다른 아르헨티나의 함정을 명중 피해를 주었으며, 이 함정은 Covette 함정인 것으로 추측된다. 아르헨티나의 우수한 미사일 능력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장악하고 있었던 Falkland 섬에 병력을 상륙시키려는 영국의 시도가 지연되었다. 영국의 미사일과 공군력은 Falkland 섬의 효과적인 봉쇄선을 장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설에는 6,000~10,000명의 아르헨티나 군대가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공군력은, Falkland 섬에서 아르헨티나 군대를 고립시켰으나, 공중우세를 장악할 만한 충분한 공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영국의 잠수함들은 Falkland 섬을 해상봉쇄하였으며, 잠수함 중 1척은 어뢰를 발사하여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순양함을 격침시켰다. Ascension 섬으로부터 이륙하여 작전하는 영국 공군의 Avro Vulcan 폭격기로 공중봉쇄를 감행하였으며, 이 폭격기들은 적어도 2회에 걸쳐 섬에서 가장 큰 비행장을 폭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Port Stanley 비행장의 4,000 ft 활주로를 확장하지는 않았으나, 4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본토기지에서부터 공중으로 아르헨티나군을 지원하는데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활주로는 견고한 압반 위에 가설되었으며, 그 위에 3~4인치 두께로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

또한 영국의 Invincible 항모와 Hermes 항모

에서 발진, 작전하는 Sea Harrier 전투기로 적어도 2회에 걸쳐 이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Sea Harrier기들은 아르헨티나의 헬리콥터들이 주기해 있었던 Falkland 섬이 다른 2개의 소규모 야전착륙 비행장을 공격하였다.

Falkland 섬 상공에서나 또는 인접지역에서 떨어졌던 공대공 전투에서, 아르헨티나 공군은 적어도 Mirage 3 전투기 2대와 Canberra 폭격기 1대를 상실하였다. 2대의 Mirage 중 1대는 Sea Harrier기에서 발사한 AIM-9 Sidewinder 미사일에 의하여 격추되었으며, 나머지 1대는 자국의 지상화력에 의하여 격추된 것으로 간주된다.

### 항공기 손실(82. 5. 10. 기준)

Canberra 전투기가 Sea Harrier 전투기에 의하여 격추되었으나, 미사일에 명중되었는지 또는 기총에 명중되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또 한 대의 Canberra 전투기가 피해를 받았으며, 한 대의 Sea Harrier기도 아르헨티나의 지상화력에 의하여 격추되었다.

악천 후 기상조건에서 전쟁지역에서 초계 중인 2대의 Sea Harrier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조종사들은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영국 국방성은 발표하였다.

Port Stanley 공항이 가동되지 않는한, Falkland 섬에 주둔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군대는 재보급이 중단되었다.

영국의 구축함을 명중시켰던 Exocet 미사일은 2단계 고체추진 로켓 모터를 사용하며 연소시간은 약 150초이다.

이번 전쟁에서 Super Etendard 발사 항공기

와 Exocet 미사일의 사용은 영국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르헨티나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아주 최근에 인도받았으며, 그 중 어느 것도 전쟁 발발전에 취역한 것으로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번 전쟁에서 영국이 사용하였던 Sea Skua 미사일은 1981년에 작전화되었으며, 2단계 고체추진 로켓트 모터를 사용하며, 또한 해상표면에서 낮게 비행하는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Lynx 헬리콥터에 장착이 가능하므로, 사정거리는 불과 5 N/M 이상이다. 유도체제는 반능동 레이다 체제를 사용한다.

Sheffield 영국 구축함은 공격 및 방어무기가 빈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구축함은 4.5인치 gun 1문과 Sea Dart 미사일 발사대 2개, 그리고 Lynx 헬리콥터 1대로 무장하고 있으며, 20 mm 대공포 2문을 무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해군도 이와 똑같은 형의 함정을 2척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수적으로 영국 공군보다는 우세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토 기지에서 발진하여 Falkland 섬 가까이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항속거리가 제한을 받아 작전능력이 감소되었다.

### 아르헨티나 함대

아르헨티나는 McDonnell Douglas A-4Q Skyhawk기 약 70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11~14대는 Mayo 항모상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Dassault-Breguet Mirage 3 전투기 약

45대와 Mirage를 이스라엘에서 개조 제작한 Nesher 항공기 약 45대를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공군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항공회사에서 제작한 IA 58 Pucara Turboprop 근접지원/대간첩용 항공기 약 50대 중 일부는 최근에 Falkland섬에 주기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일부는 영국의 공격으로 지상에서 파괴되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불란서에서 주문한 Super Etendard 전투기, 12대 중, 적어도 5대를 인도받았다. 또한 영국에서 제작한 Canberra 폭격기 약 10대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폭격기는 전쟁이 개시되었을 때 현대화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Lockheed 사에서 제작한 약간의 구형 Neptune 초계폭격기와, C-130수송기 10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적어도 2대는 공중급유기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무장하였다.

아르헨티나의 항모에는 적어도 Sikorsky Sea King 대잠용 헬리콥터 4대가 있었으며, 주문 중인 Westland Lynx 헬리콥터 10대 중 2대는 인도되었다.

이에 비하여 영국은 2대의 항모에 Sikorsky Sea King ASW 및 병력수송용 헬리콥터 약 45대를 포함하여 20대의 Sea Harrier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약간의 Harrier GR.3 대지공격기를 포함하여 20대의 Harrier기가 함정으로 수송 중에 있었다.

영국은 또한 많은 Vulcan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Nimrod MR.2 대잠폭격기와 Victor 급유기가 Ascension 섬에 주기하고 있었다. Ascension 섬에서 발진한 Vulcan폭격기의

공격은 Victor 급유기의 지원을 받았다.

### NATO 합정 손실평가

영국해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Sheffield 구축함이 Falkland섬 밖에서 Exocet AM 39 대함 미사일에 의하여 파괴됨으로써 NATO는 해군 전술을 재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각종 군사전술이, 최신기술 및 장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NATO는 합정의 파괴를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대함미사일에 대한 각종 방어전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가 시도될 것이다.

Exocet 미사일로 영국의 구축함이 손실됨으로써, 값비싼 합정전조계획을 취소하라는 주장자들을 옹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합정은 역시 계속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영국 구축함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1발의 Exocet 미사일로 명중되어 미사일의 고체연료추진체가 불이 붙었다고 한다. 합정은 순식간에 심한 연기로 뒤덮였으며, 뜨거운 열과 연료에 불이 붙자 큰 불로 변화되어 마침내 합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미사일로 무장한 항공기에 대한 방어는 공중우세와 장거리 레이더의 사용이라고 하며, 이번 전쟁에서는 이 분야에 여타 가지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 영국은 Falkland전쟁에서 조기경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사일 공격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미사일방어(Anti-missile defense) 체계가 자동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 Exocet미사일과 Super Etendard 전투기

불란서 해군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후에 아르헨티나로 수출하였던 불란서에서 제작한 Super Etendard/Exocet 미사일 무기체제로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구축함 Sheffield를 공격하였다.

아르헨티나는 Super Etendard 전투기의 유일한 수입 운영국가이며, Exocet 미사일 중, AM 39 공중발사형을 사용하는 6개 국가 중의 한 국가이다.

아르헨티나는 Super Etendard 전투기를 12대 구입하였으며, 약 5대는 Falkland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타는 계약상 인정되었을 뿐 불란서에서 인도받지 못하였다. 아르헨티나는 Super Etendard 전투기에 장착, 사용하기 위하여 불란서에서 AM 39 미사일 수발을 인도받았다.

AM 39 미사일의 발사거리는 50~70 km (31~43마일)이며, 발사항공기의 속도와 고도에 따라 다르다. 미사일의 중량은 655 kg (1,441 lb)이고, 길이는 4.69 m (15.4 ft)이다. 추진체는 고체추진 Booster와 Sustainer Engine을 사용하며, 유도방식은 최초에는 관성항법을 사용하고, 최종유도단계에서는 Active Homing 방식을 사용한다. 속도는 높은 아음속 영역이며, 탐공역학 조종장치에 의하여 조종된다.

AM 39 미사일/Super Etendard 전투기는 1978년에 작전화되었다. Super Etendard 전투기는 1960년대 이후 불란서 해군에서 보유했던 Etendard 4를 개조한 항공기로 함대공중

임호, 대지공격 및 사진정찰 임무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tendard 항공기는 Snecma Atar 8K50 엔진을 사용하며, 이 엔진은 기본 Etendard 항공기가 사용하는 Atar 8 엔진보다 추력이 약 10% 이상 우수하다.

또한 Etendard 전투기에는, 새로운 Leading-edge slat와 2중 Slotted flap이 장치되어 있어서 함모에 착륙시 항공기의 접근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Etendard 전투기는 30 mm 기총 2문을 장착하고 있으며, 외부용 Store Position이 5개 있다. 또한 이 전투기는 Multi-mode Radar를 장착하고 있으며, 관성항법체제도 장치하고 있어서, 무기부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외부항법 보조장치의 의존을 감도할 수 있다.

### 영국 새로운 미사일 능력 입증

영국 해군은 Falkland 전쟁에서 새로운 세대의 Sea Wolf 지대공미사일의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3대의 아르헨티나 A-4 Skyhawk 기가 2회의 교전에서 각각 격추되었으며, 그 중, 2대는 Falkland 밖에서 작전하고 있는 2척의 영국함모를 엄호하고 있는 순양함에서 발사한 Sea Wolf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고, 나머지 1대도 이 미사일에 명중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Falkland 근처에 있는 영국함정에서 발사한 Sea Dart 미사일에 의하여 아르헨티나의 Puma 헬리콥터가 명중되었으며 당시 헬기는 지상상공에 있었다고 한다.

영국은 Falkland 지역으로 계속 추가병력을

이동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가 항공기의 수적으로는 우세하였다. 상당수의 영국 Harrier 기들이 공중급유를 하며, 영국에서 Ascension 섬에 있는 영국기지로 Non-stop으로 비행하였으며, 이 항공기들은 Harrier GR.3 전투기와 Sea Harrier 해군 전투기들이었다.

Harrier GR.3 기는, 영국을 출발하기 전에 AIM-9 Sidewinder 미사일로 무장하도록 개조하였으며, Sea Harrier기는 공대공미사일로 무장을 하였다.

또한 영국은 많은 Nimrod MK.2 대잠전기와 C-130K Hercules 수송기를 중간공중 급유능력을 갖도록 개조하였다. 2대의 Nimrod 기는 Victor 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Falkland 근처의 전쟁지역을 초계비행하고 있었다.

영국 해군의 특수임무부대는 초기작전 중 3대의 항공기를 손실한 후, 2대의 함모에 Sea Harrier 전투기를 17대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3대의 항공기 중 1대는 아르헨티나의 지상화력에 의하여 격추되었고 나머지 2대는 악천후 기상조건으로 초계임무수행 중 공중에서 충돌하였음이 분명하다.

Ascension 섬에서 이륙한 Sea Harrier기 부대와 Avro Vulcan 폭격기 부대들은 아르헨티나 수비군에 대한 공중 재보급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Falkland에 있는 공군기지를 산발적으로 공격하였다.

영국의 Falkland 섬 착륙이 지연된 하나의 이유는, Falkland 지역으로 계속 지상군을 급파하였기 때문이었으며, 다른 3,000명의 병력이 Queen Elizabeth 2호로 영국에서 급파되

었다.

영국 해군은 해상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3척의 아르헨티나 잠수함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시도하였으며, 함정근처에서 대함전용 헬리콥터로 초계비행을 계속하였다. 1대의 Sea King 헬리콥터는 내시양에 불시 착륙하여 손실되었으나, 4명의 승무원은 다른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으며, 이 헬리콥터의 손실은 아르헨티나의 공중공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미국의 기상위성으로부터 기상에 관한 Data와 빙설의 위치 등을 확인함은 물론, 군 최고지휘자와 영국에 있는 정치관리들 및 Falkland 섬 밖의 영국 잠수함간에 신속한 통신연락을 할 수 있도록 위성망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영국관리들이 밝힌 바 있었다.

## 교 훈

Falkland 전쟁에서 배운 각종 모든 교훈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빠른 감은 없지 않으나 이번 전쟁은 1발의 AM 39 Exocet 미사일로 영국 구축함 Sheffield호가 격침되고, 영국의 Sea Wolf 지대공 미사일에 의하여 아르헨티나의 A-4 Skyhawk기가 격추되는 등 한편의 해상 미사일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 배운 교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 최신 무기동원

이번 Falkland 전쟁에서 양국의 인명과 함정, 항공기 및 기타 군사장비의 손실은 막대하였으며, 양국군의 전투양상은 미사일과 고도의 전자장비를 동원한 현대판 과학기술전쟁

이었다. 영국은 최선에 구축함 Sheffield호와 커번트리호를 비롯한 27척의 함정과 수직 이착륙 해리어전투기 약 20대 등을 잃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유일한 순양함 해네탈 벨그라노호를 비롯한 초계정, 소형보급선 등 8척의 함정과 미라지 3 전투기, Skyhawk 전투기, 푸리카 대지공격기, C-130 수송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아르헨티나 공군력의 약 3/5)를 파괴당하였다.

## 미사일의 위력 과시

영국 구축함 Sheffield호를 침몰시킨 프랑스제 AM 39 Exocet 미사일은, 이번 전쟁에서 최초로 실전에 사용되어 사상 처음으로 전함을 침몰시킨 기록을 세웠다. 미사일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현대전의 모습을 실증해 준 예였다.

한편 격침된 Sheffield 구축함은 영국이 37년만에 전투에서 잃은 첫 해군함정이 되었다. Sheffield 호가 파괴된 후 세계 각국은 현대전의 두려움을 실감하기 시작하였다.

침몰된 Sheffield호는 컴퓨터화한 무기장치의 중추신경적인 관계실에 Exocet 미사일을 맞았다. 또 하나의 예로서는 세계 제2차대전 중에는 순양함 한 척을 침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4발의 어뢰가 목표물에 명중되어야 했다. 그러나 영국잠수함 콩커러호가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벨그라노를 격침시킬 때는 단 2발의 컴퓨터화한 타이거리시어뢰로 충분했다. 타이거리시어뢰는 탄두에 600파운드의 고성능 폭약이 장치되어 있다.

따라서 대형함정도 1발의 정교한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고 최신 미사일전에 다소의 경험이 있는 국가는 정교한 적국



에 대하여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인공위성에 의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 소련은 Falkland 근해에서 활동 중인 영국 기동함대의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하여 남대서양 상공에 인공위성을 잇따라 발사, 미국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소련은 아르헨티나가 Falkland섬을 침공하기 2일전 코스모스 1,345와 1,346호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 지역 상공에 모두 14개의 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성들 가운데는 상대방의 레이더 방사 및 교신도청용 위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스모스 1,365호는 핵 동력레이더를 장비, 질은 구름층에 상관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전하고 있으며, 동 위성은 포클랜드해역의 군사정보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남대서양 상공에 레이더를 장비한 위성을 발사한 일이 없어 Falkland섬 근해상공에 구름이 낄 경우 정보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레이더를 이용한 해양정찰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련의 정찰위성이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사한 한 14개의 위성 중 불과 몇 개만이 남대서양 상공에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련의 정찰위성들은 제공능력이 대부분 2주일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은 단점 때문에 지난 73년의 중동

전 때 이 지역의 군사정보를 탐지하기 위하여 평균 1일 1개씩 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반면, 미국정보위성의 경우 제공능력이나 기능면에서는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의 위성은 수년동안 제공할 수 있으며, 기능도 다양하다.

미국은 최근 남대서양상공에 빅 버드와 KH 11 등, 2개의 사진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빅 버드의 경우, 최고 270 km, 최저 160 km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광범위한 지형 및 근접촬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새로 개발된 KH 11은 필름대신에 Digital 방식으로 영상을 수록 지상에 전송할 수 있다.

### 해상전 개념 수정

남대서양에서 일진일퇴를 벌였던 교도의 기술전은 미래의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었다. 이번 전쟁은 미사일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해전이었다.

현대 해전은 대형군함과 대형포를 주축으로 싸웠던 2차대전기의 양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현대 해전은 대부분 배속 소형전투함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 전투함은 소형이기는 하나 적제된 초음속 미사일로 해서, 그 화력은 종전의 대형전투함 이상으로 큰 위력을 갖고 있다.

군함에서 발사한 제트전투기들은 레이더와 열탐지미사일에 의해 장거리에서도 적을 발견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상대를 보지 않고 싸우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전자장치에 의한 역습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를 두기 때문에 대포로서는 상

대방을 공격할 수 없다. 미사일을 대량 이용한 전쟁은 73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제 4차 중동전에서 신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사일을 이용한 해상전은 없었다.

이번 Falkland 전쟁은 미사일을 이용한 해상전이 특색이라 하겠으며,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해상전의 개념에 중점과는 달리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략적 측면에서 배운 몇 가지 교훈으로서는,

첫째, Ascension섬에 기지시설이 없었더라면 영국은 그와 같은 장거리에서 Falkland 작전을 결코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며, 이 점은 미국의 신속전개군(Rapid Deployment Force)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미국은 페르시아만 일대에 보다 많은 안전기지시설을 확보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둘째, 영국의 Sea Harrier/소형항공모함 작전 개념이 NATO의 상황에서는 완전한 개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함정들은 지상기지 공중엄호(Landbased Air Cover)의 영역 내에서 또는 AEW기와 같이 이동전개(Task Group)의 일부로서 작전을 하거나, 재

규격을 갖춘 항공모함에서 장거리 요격기가 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형 항공모함이나, 그 호위함들은 지상기지 공중공격(Land-based Air Attack)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이다.

셋째, 해상함정(Surface Ship)에 대한 핵추진 공격잠수함의 우수한 저지력이었다. General Belgrono가 영국의 핵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격침됨으로써, 핵 공격 잠수함의 존재 가치가 입증되었으며, 소수의 영국 잠수함들은 전쟁기간 중에 아르헨티나의 해상함대(Surface Fleet)를 작전하지 못하도록 항구에 정박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영국도 특수임무부대 및 지원함대에 대한 아르헨티나 잠수함의 공격을 두려워한 것 같다. 따라서 영국 해군은 남태서양 일대에 함정 등을 위치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소련의 잠수함 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대이며, 이번 전쟁기간 중에 소련의 정보활동은 영국의 ASW 활동을 탐지하는데 주목적으로 한 것 같다. 물론 ASW는 영국의 Invincible급 항공모함의 주 임무였다.



#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스텝모터 제어

成 慎 模 譯

## 1. 서 론

제어시스템에서 Stepping 장치를 사용하려는 생각은 매우 오래 전부터이다. 1930년대 초에 영국 해군은 양방향 제어를 하는 스텝모터를 이용하여 축의 운동을 원격제어 하였다. 이후 제 2차세계대전 중에는 미국 해군에 의해 응용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제어시스템에서의 이용도가 높아졌다. 스텝모터는 본래 디스크리트(Discrete)한 운동을 하는 회전장치이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회로와 연결하여 최소의 주변장치로 제어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매우 경제적이어서 프린터 테이프드라이브(Tape Drive), 공작기계, 미사일 유도통제 등 이용도가 크다. 일반적으로 스텝모터는 일정한 펄스열에 의한 개루프제어(Open Loop Control)에 적용함으로써 간단히 위치, 속도 제어에 응용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하여 폐루프제어(Closed Loop Control)에 의한 제어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펄스발생장치, 시간지연기능 등을 자체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외부회로와 인터페이스(Interfacing)하여 스텝모터 제어가

가능하다.

## 2. 스텝모터 제어

### 가. 스텝모터 제어회로

스텝모터의 기본적 특징은 모터가 에너지 되었을 때 회전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도록 지속적인 회전운동을 위해서는 모터의 위상을 에너지 시키거나, 그 역으로 De-energy 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스텝모터의 제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크기는 일정한 펄스열에 의해서 구동하는 개루프제어(그림 2-1의 점선부분)와 궤환에 의한 폐루프제어가 있으며, 전형적인 스텝모터의 제어회로는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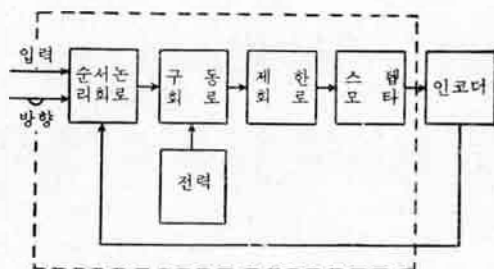


그림 2-1. 전형적인 스텝모터 제어회로

그림 2-1에서 순서논리 회로는 방향지시와 함께 입력펄스를 받아서 각각의 구동회로에 낮은 레벨(Low Level)의 입력펄스를 공급하는 곳이며, 구동회로부는 낮은 레벨의 디지털펄스 입력을 받아서 디스크리트한 각 운동을 얻기 위한 높은레벨의 전류를 형성하는부분이다.

나. 순서 논리 회로

순서논리회로는 외부로부터 한 개의 입력펄스를 받아서 구동시키려는 모터의 위상수와 같은 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환상계수기(Ring Counter)로 구성되며, 계수회로에서는 단지 한 계수만이 어느 순간에 신호를 내보낼 때, 구동회로를 동작시켜 모터를 회전시키는데 그림 2-2 A와 같이 모터의 한 위상에 순간적인 ON을 시키는 방법과 그림 2-2 B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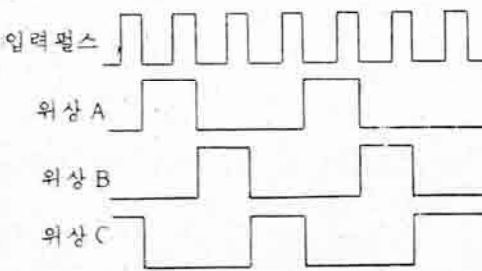


그림 2-2A. 한 위상 ON 신호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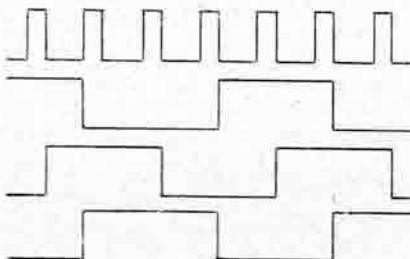


그림 2-2B. 두 위상 ON 신호파형

같이 모터의 두 위상에 순간적인 ON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모터의 방향지시를 위해서는 단 일방향과 양방향의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양방향 지시방법과 두 위상 ON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다. 구동회로

구동회로는 순서논리 회로로부터 발생되는 낮은 레벨의 신호를 받아 스텝모터 권선에 공급될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 구동회로는 보통 적절결합 전력트랜지스터가 사용되며 3상 3A 스텝모터의 전형적인 구동회로는 그림 2-3A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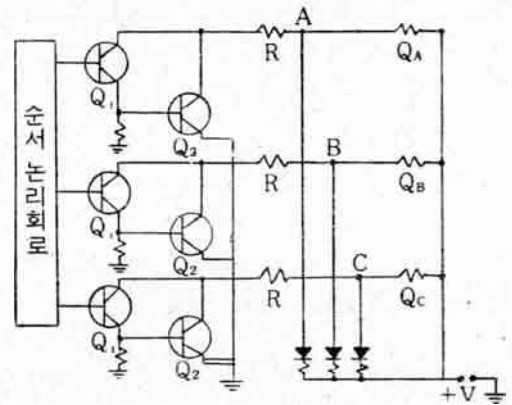


그림 2-3A. 전형적인 3상 스텝모터의 구동회로

그림 2-3A에서 입력신호가 1일 때  $\theta_1$ 의 Base에 전압이 인가되며, 동작이 걸린 위상에서의 미분방정식은

$$V = (R + R_m)i + L \frac{di}{dt} + i \frac{dL_m}{d\theta} \frac{d\theta}{dt} \dots\dots\dots (2-1)$$

이때  $R_m$ : 모터권선저항

$\theta$  : 모터변위

$L_m$  : 모터권선 인덕턴스

$i \frac{dL_m}{d\theta}$  : 역기전력

반약 역기전력을 무시하고 권선 인덕턴스가 모터 변위각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경우 식 (2-1)을 풀면

$$i(t) = \frac{V}{R+R_m} - \left[ \frac{V}{R+R_m} - I_0 \right] e^{-t/\tau} \dots\dots\dots (2-2)$$

$I_0$  : 모터위상이 ON 때 초기전류

$$\tau = \frac{L_m}{R+R_m}$$

스텝수가 여러 개인 멀티스택 (Multi Stack) 모터에서 한 위상의 인덕턴스는

$$L_m = L_1 + L_2 \cos n\theta \dots\dots\dots (2-3)$$

이며  $n$ 은 한 모터위상에 포함되어 있는 스텝수를 나타낸다. <2-3>식을 <2-1>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V = R + R_m - nL_2 \frac{d\theta}{dt} \sin n\theta i + [L_1 + L_2 \cos n\theta] \frac{di}{dt} \dots\dots (2-4)$$

이 되며 역기전력항에서의  $\frac{d\theta}{dt}$  와  $\sin$ 항이 양

수이기 때문에 충전전류 방정식에서의 역기전력의 영향은 초기전류 상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전류 형성시간이 늦어진다. 그림 2-3 B는 역기전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시간 변화에 대한 전류의 형성 상태를 나타내며, 역기전력이 있을 때 초기 시간상수의 증가를 알 수 있다.

모터권선이 Turn Off되면 그림 2-3 A에서  $Q_1, Q_2$ 는 Off되며 모터위상의 전류는 Fly 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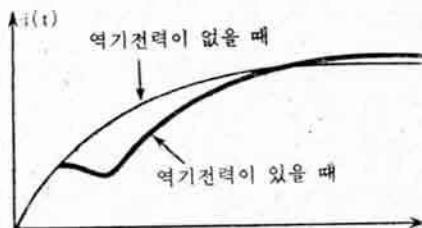


그림 2-3B. 스텝모터의 충전 전류 파형

Diode  $D_s$  와 방전저항  $R_s$  에 의해 소모된다. 방전시의 등가회로는 그림 2-3C와 같고 이때의 방전전류 미분방식은 다음과 같다.

$$[L_1 + L_2 \cos n\theta] \frac{di}{dt} + [R_m + R_s - nL_2 \frac{d\theta}{dt} \sin n\theta] i = 0 \dots\dots\dots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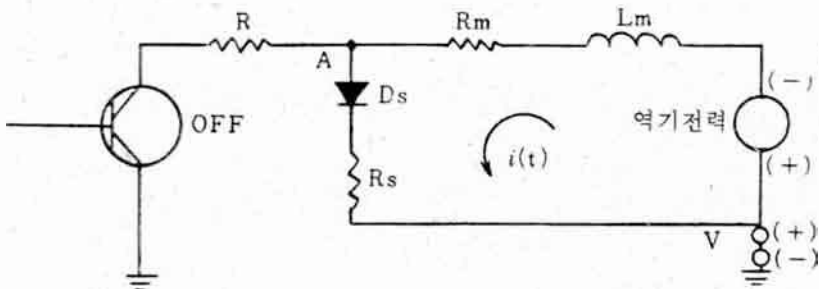


그림 2-3C. 모터위상의 방전 등가 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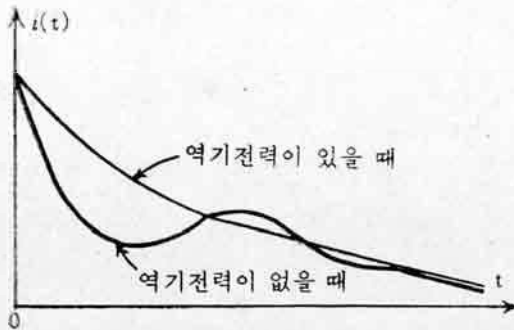


그림 2-3D. 스텝모터의 방전 파형

방전시에는 충전 때와는 역으로 그림 2-4 C와 같이 최로의 전류소멸은 보다 빨리 이루어진다. 즉 충전시에는 역기전력의 영향으로 초기 충전시간이 늦어지나 방전시에는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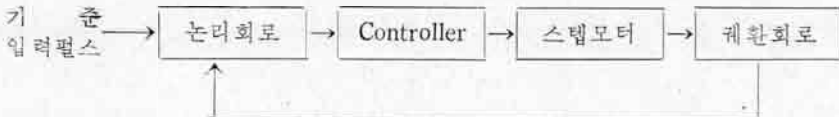


그림 2-4A. 스텝모터의 폐 루프제어 블럭도

(Magnetic Pick up Device)가 사용되며 위치 속도 제어를 위한 펄스를 만들어 주게 된다. 폐루프제어를 나타내는 블럭도는 그림 2-4 A와 같다.

(1) 스윗칭각

스텝모터 폐 루프제어에서의 광전기 감지장치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동작점이 된다. 인코더디스크(Encoder Disk)는 모터회전의 스텝수와 같은 슬롯(Slot)를 일정하게 지니고 있어야 하며 모터는 최초 입력펄스로부터 동작하고 이때 펄스의 스윗칭되는 위치에 따라 모터의 정상속도 뿐만 아니라, 가속 및 감속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4 B에 한 스텝당 각도가 7.5°이고 광전기 감지장치가 두 개인

초기 방전시간이 단축된다.

다. 스텝모터 페루프제어

스텝모터의 폐 루프제어에서는 모터의 최대 제한 속도를 위한 입력펄스를 얻기 어렵고 펄스의 분실 등 불안정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궤환을 사용하여 적당한 스윗칭 점을 결정해 줌으로써 해결 가능하며, 최초의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펄스로 모터를 동작시키고 그 다음 펄스들은 궤환 감지장치(Feed Back Sensor)로부터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 궤환 감지장치는 광전기장치(Photo Electric Device)나 자기 Pick up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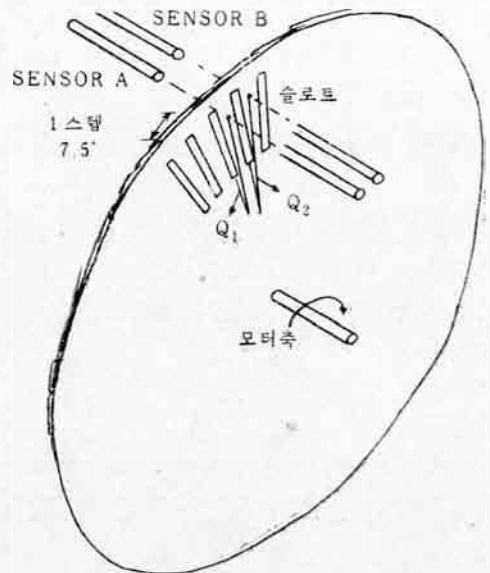


그림 2-4B. 스텝모터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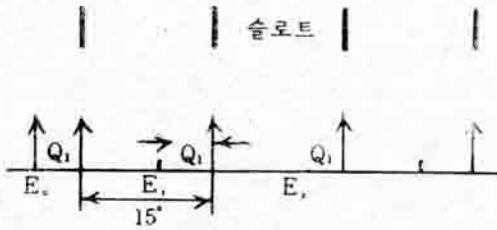


그림 2-4C. 두 개의 광전기 감지장치를 가진 인코더의 슬롯 모형도

스텝모터의 모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2-4 B에서  $Q_1$ 은 광전기 감지장치의 스윗칭각을 나타내며 이 경우  $0 \leq Q_1 \leq 7.5^\circ$ 이다. 그림 2-4 C에서 평행 또는 중립위치는  $E_0, E_1, E_2$ 이고 최초의 펄스가 모터의 평행위치가  $E_0$  때 가해지고, 감지장치가 평행 위치로부터  $Q_1^\circ$ 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서의 다음 펄스들은  $Q_1^\circ$ 만큼 떨어져 발생한다. 그림 2-4 D는 페루프 스텝모터의 스윗칭각에 대한 속도관계를 나타내며, 높은 속도에서의 스윗칭각에 대한 응답이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다.

(2) 시간지연 제환을 가진 스텝모터의 페루프제어

실제로 스윗칭각은 광전기 감지장치의 위치에 의해 정해지고 요구되는 위치에 쉽게 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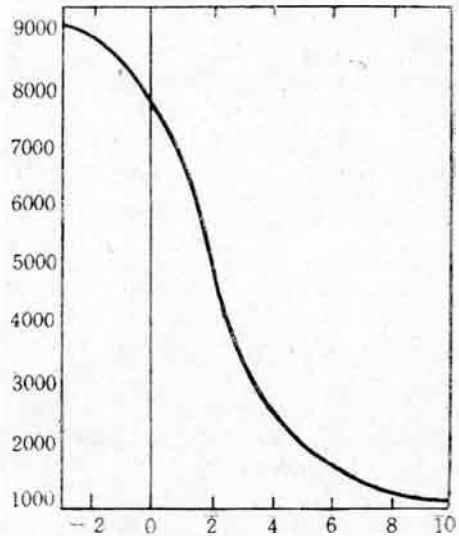


그림 2-4D. 스윗칭각에 대한 정상속도

하기 힘들며, 모터가 동작 중 일때는 특히 더하다. 그림 2-4E에서 시간지연 방법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고정된 시간지연을 기준 스윗칭 시간과 실제 모터위상이 스윗칭되는 시간 사이에 부과하였다.

그림 2-4E에서 실제 지연시간은 기준 시간 지연  $\alpha R$ 에 대한 추가적인 각의 지연을 포함한 값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스윗칭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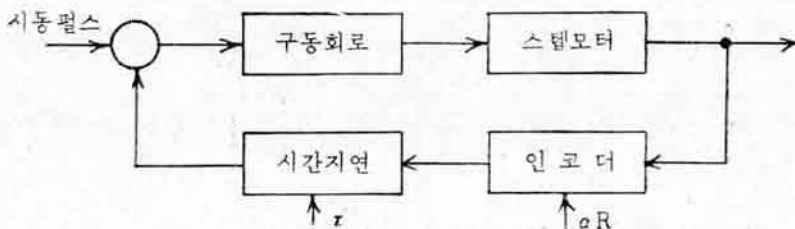


그림 2-4E. 시간지연을 가진 페루프 유통도

$$\alpha = \alpha R + \alpha' \dots \dots \dots (2-6)$$

위 식에서  $\alpha'$ 가 시간간격 T 동안의 모터에 의해서 이동된 각을 나타낸다면 모터의 속도가  $\omega$  때

$$\alpha' = \omega T \gamma \dots \dots \dots (2-7)$$

$\gamma$ : 모터의 한 스텝당 각

예를들면, 초당 1,000스텝을 회전하는 모터의 시간지연이 0.1 ms이고 한 스텝당 각이 7.5°인 스텝모터에서는 지연각은 0.75°를 나타낸다. 즉,

$$\alpha' = 1,000 \times 0.1 \times 10^{-3} \times 7.5 = 0.75$$

그러나 폐 루프제어에서의 시간지연의 사용은 스윙칭각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속도는  $\alpha' = 0$  때보다 적게 갖도록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스텝모터의 정상, 가속, 감속 폐 루프 제어

스텝모터의 정상속도를 위해서는 기준 스윙칭각에 대한 일정한 시간지연을 이용 펄스를 발생시키고, 가속, 감속 제어를 위해서는 시간지연을 적당히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가속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3. 멀티프로세싱

#### 가. 멀티프로세서

컴퓨터는 크게 대형, 미니 마이크로 컴퓨터로 분류하며, 이 분류방법은 컴퓨터의 구조 양식보다는 주로 크기나 가격에 의한 분류이다. 대형 혹은 미니 컴퓨터는 부피가 크고 고가의 장비인 반면에 마이크로 컴퓨터는 소형, 경제적이며 원리 및 구성면에서 대형, 미니

컴퓨터와 대등하여 최근에는 대형 제어 컴퓨터를 마이크로 컴퓨터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주작용을 하는 디지털 컴퓨터를 말하는데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적당히 상호 구성하여 주기억장치의 증가를 억제하고 작업을 효과적으로 분담 수행함으로써 단일 프로세서보다 작업효율,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시스템을 멀티프로세서라 한다.

#### 나. 병렬 프로세싱 (Parallel Processing)

마이크로세서에서는 실제적인 연산 메카니즘 (Mechanism)으로서의 병렬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많은 양의 프로세스를 각 프로세서에 분담 처리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처음의 응용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컴퓨터의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됨을 볼 수 있다. 병렬 프로세싱 방법은 Mike Flynn은 명령흐름 (Instruction Stream) 의 수에 따라 나누었으며 그림 3-1과 같다.

##### (1) MIMD 프로세싱

MIMD 프로세싱 (그림 3-1c, 3-1d)은 데이터 오퍼레이터 (Data Operator)들이 그들의 주기억 장치로써 공통 기억장치를 공유하고 있는 멀티프로세서 구조, 각각의 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자체 국부 기억장치를 갖고 분류되어 있는 멀티 컴퓨터, 혹은 각각의 데이터 오퍼레이터가 자체의 국부 기억장치를 갖고 있으면서 멀티프로세서의 공통 기억장치를 갖고 있는 종류를 포함하여 세가지 형태의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세번째 혼합된 유형의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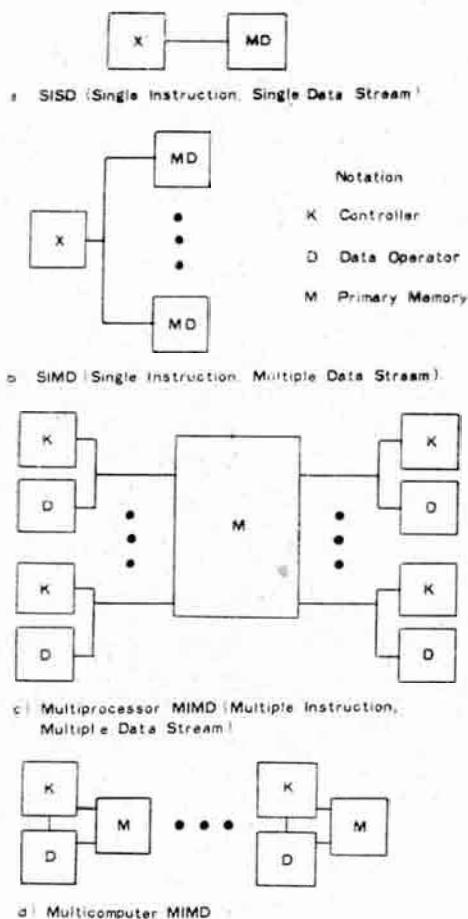


그림 3-1. 병렬프로세싱 구조양식

세서가 가장 효과적이다.

(2) 파이프라인 프로세싱 (Pipe Line Processing)

분산처리 방식의 특별한 방법이 파이프라인 프로세싱이다. 만약 프로세스 P가 P<sub>1</sub>와 P<sub>2</sub>로 나뉘어 있다면 두 프로세스가 한 개의 프로세서에 의해 수행될 경우 각각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t<sub>1</sub>+t<sub>2</sub>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만약에 두 개의 프로세서가 각각의 프로세

스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최초의 프로세스가 수행된 후 두번째 프로세스가 수행될 경우 첫번째 프로세서는 새로운 문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직렬 파이프라인이다. 이 방법은 한 개의 프로세서로 이용될 때의 시간 t<sub>1</sub>+t<sub>2</sub>보다 새로운 문제의 취급에 있어서 [max(t<sub>1</sub>, t<sub>2</sub>)]이 될 때 때문에 효율이 증대되거나 역시 소요되는 시간은 같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프로세스 P<sub>1</sub>, P<sub>2</sub>를 수행하는 MIMD 프로세서를 도입하면 새로운 문제의 취급은  $(\frac{t_1+t_2}{2})$ 로 단축할 수 있어 파이프라인 프로세서의 Max(t<sub>1</sub>, t<sub>2</sub>) 시간보다 유리하다.

4. 시스템 구성

마이크로프로세서 두 배를 사용하여 주프로세서에서는 기본 프로그램을 수행, 그 결과를 공통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부프로세서에서는 주프로세서의 수행상태를 공통 기억장치로부터 받아 감독할 수 있는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을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페루프제어를 위한 주변회로서 순서는리최로, 구동회로, 스텝모터, 캐환회로 등 설계 구성이 필요하며, 주프로세서의 제어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따라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결 론

윗글에서 소개한 내용은 스텝모터의 정상, 가속, 감속제어를 위한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실제의 경우, 하드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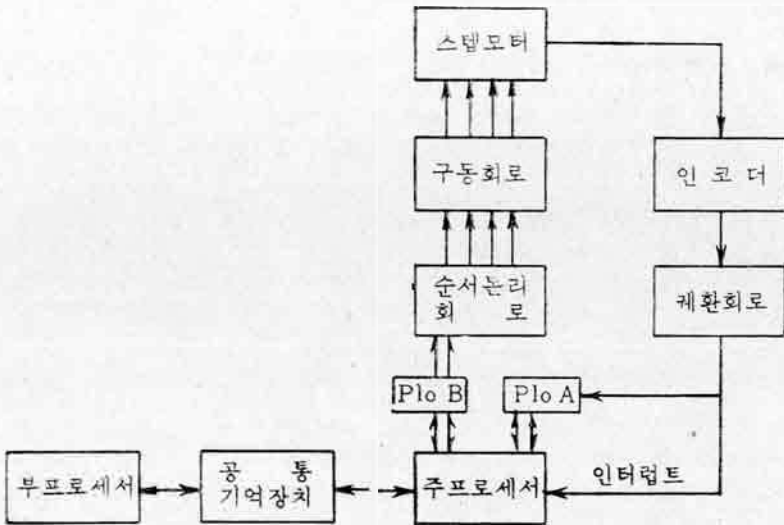


그림 4-1. 멀티프로세싱 시스템 구성도

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법에 따라 응용대상은 대단히 많다. 아울러 좀더 연구해야 할 과제는 기계적인 정교성이 뒷받

침되어야 하며, 특히 주변장치의 증가에 따른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의 간섭문제를 제거하여 효과적인 다중 제어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 無人航空機의 戰術的 利用

尹 龍 鉉 譯

## I. 머리말

82年은 戰爭의 해라 할 만큼 포클랜드를 둘러싸고 일전을 저윸던 英國·아르헨티나 戰爭을 위시해서 中東地域의 이스라엘과 아랍諸國들과의 戰爭, 그리고 이란·이라크 戰爭 등 이 地球上에 現在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戰爭들을 모두 集計해 보면, 약 40여 곳에서 戰爭이 일어나고 있다고 外信은 傳한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나라의 戰爭經驗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하겠다. 특히 現代戰이 武器體系양상이 변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새로운 戰術開發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에 이스라엘의 對시리아 航空作戰에서 시리아측에서 주장한 이스라엘의 航空機 19臺의 격추는 大部分 이스라엘의 무인항공기(RPV)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시리아의 SA-6(GAINFUL) 유도탄部隊가 이스라엘측이 Decoy용으로 침투시킨 無人航空機를 標的으로 하여 미사일을 다 소모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번이 無人航空機(RPV)를 戰術的으로 利用한 첫 試圖은 아니다. 과거 2次大戰時나 월남전, 4次 中東戰 등 無人航空機를 戰術的으로

로 잘 利用한 事例가 있으며 앞으로 보다 활발히 그 利用度가 높아 가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無人航空機의 發達過程과 軍事的 用途 및 戰術的 運用體系와 그 價値性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發達過程

無人航空機(RPV, Remotely Piloted Vehicle)는 遠隔操縱飛行體로서 電子裝備를 利用하여 飛行體를 飛行任務에 맞게 操縱하도록 製作된 것으로 그 性能과 開發目的에 따라 여러 가지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無人航空機(RPV)는 1914年 美國 Ohio州 Dayton市の 南練兵場에서 美陸軍과 民間技術者와의 協同으로 목적용 無人機實驗에 成功한 것이 世界最初라 할 수 있으며 당시 開發費로 約 5만달러가 投資되었으며 實驗結果 90 NM 거리에 있는 目標物을 無線指令유도하여 명중시켰던 成果를 거뒀다. 이즈음 美海軍에서도 Sperry社와 合作으로 Long Island에서 「飛行하는 폭탄」發射에 成功한 바 있다.

한편 1937년 日本에서는 水上機를 改造한 無人機實驗에 成功하여 공격武器로써 채택할 것을 건의했지만 軍 고위층들의 거부로 開發이

中斷되었다. 만약 이것이 계속 開發되었다면 「神風」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39년, 독일 공군에서는 Rechlin 飛行試驗場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정찰용 무인기를 실험에 成功하였고 2次大戰 때는 폭탄장치의 無人機를 無線操縱하였는가 하면, 美國에서는 B-17을 無人機로 改造하여 使用한 바 있고 60年代 들어서 월남전쟁 중 美國은 無人航空機를 本格的으로 研究開發 및 作戰化에 着手하게 된 動機는 敵對空火器의 大量配置와 強力한 레이더網으로 막대한 損失을 입게 되자 ECM 用 및 偵察用 RPV를 開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미국의 Teledyne社에서 제작한 Firebee는 월명 및 中共本土 偵察作戰에서 實績을 올리기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도 美空軍은 Northrop社와 Teledyne Ryan 2個 會社를 선정하여 各種 RPV開發 및 實用化에 努力하였다. 4次中東戰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공격기들의 침투로 개척을 위한 偵察, ECM 및 對地攻擊用 RPV를 活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最近에도 RPV를 利用한 갖가지 戰術을 펴고 있어 RPV의 戰術的 利用價値는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다.

### Ⅲ. 戰術的 價値

#### 가. 用途의 다양성

無人航空機의 軍事的 用途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들면,

- ① 偵察 (Reconnaissance)
- ② 武器運搬 (Weapon Delivery)

- ③ 武器誘導 (Weapon Guidance)
- ④ 電波妨害 (Jamming)
- ⑤ 通信情報 (Communications Intelligence)
- ⑥ 電子情報 (Electronic Intelligence)

이와 같은 用途를 任務別로 分離하면,

#### (1) 空對空 任務

1971년 美空軍에서는 Teledyne社의 Firebee 無人機 1대를 空對空 RPV로 改造하여 太平洋上空에서 F-4(Phantom)과 模似空中戰을 實施하여 實驗한 것은 RPV의 空中戰 可能性을 보여 주었다. 이때 Firebee RPV는 AWACS를 母機로 發進하였는데 무장은 AAM과 기관포 및 Laser砲를 장착하였었다. 이 RPV는 目標物로부터 10~2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체광학체계를 利用, 目標物을 포착한 후 요격할 수 있었다. 이 RPV가 갖는 利點으로서 지적될 수 있었던 것은 無人이기 때문에 경량이고 또한 12G 程度의 持久的 飛行能力이 可能하며 신뢰율이 有人機(F-4)보다 50%이상 유리할 뿐 아니라 速度面에서 더 기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현 단계에서는 야간침투나 惡天候時에 制限을 받게 되는 등 공중전을 遂行하기에 부족한 點들을 많이 안고 있어 開發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 (2) 空對地 任務

美國은 이미 2次大戰 당시 B-17을 改造한 무인폭격기를 원격조종한 經驗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월남전에서도 실용화한 예가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4次中東戰부터 RPV를 戰術機로서 有用하게 利用하고 있다. 空對地 任務를 遂行時의 戰術은 대략 다음과 같다.

TV 카메라와 Maverick, Shrike과 같은

ASM을 장착한 RPV를 C-130과 같은 母機에서 發進시켜 RPV에 탑재된 TV카메라가 보내주는 映像을 통하여 目標物을 Set한 후부터 Computer가 引受하여 指令誘導하여 目標가 지정거리 내에 들게 되면 自動的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地上發射臺에서 발사했을 경우 地上 Radar Station의 Computer가 計算하여 유도하게 되어 있다.

無人航空機는 回收用과 소모용이 있는데 회수용인 경우 낙하산으로 착륙시키거나 활주로에 귀환시키는 방법이 있고 소모용일 경우 가미가제식으로 적진의 요새에 자폭하는 方法이 있다. 대부분의 RPV는 行動半徑이 약 250마일을 커버할 수 있으며 武裝은 통상 2,500 lbs 정도다.

### (3) 偵察 및 電子戰 任務用

RPV는 여러 일부 중 電子戰 任務를 수행하는 무기체제로 가장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RPV는 소음이 적고 적은 IR(적외선)을 방사할 뿐 아니라 적은 Radar 반사파를 가지므로 적의 Radar Scope 상에 잘 잡히지 않는 利點을 利用, 갖가지 任務를 은밀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Decoy 任務를 수행할 때는 실제 RPV의 Radar Cross Section은 0.1m<sup>2</sup>밖에 안 되어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 되지만 주파수 증폭기를 사용하면 실제 戰鬪機의 크기만큼 레이더 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적을 기만하여 SAM이나 대공포의 발사를 유도하여 적의 대공포 화력을 소모시키기도 하고 적의 주파수를 탐지하여 대응 ECM이라 Anti-radiation 미사일(AGM-45, AGM-78) 등을 발사할 수

있으며 RPV 자체에 Miss Distance 指示器가 있어 지상 대공포의 격추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정찰임무시에는 적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장점을 이용 전장정찰이나 중요한 目標物을 주야간을 막론하고 적외선 촬영을 한다던가 실시간 영상정보제공이 가능한 TV카메라를 장착 운용 가능하다. 그리고 電子情報(ELINT) 任務, 通信情報(COMINT) 任務뿐 아니라 Chaff Dispensor나 Jammer로서 活用된다.

### 나. 無人機의 長點

무인항공기의 장점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經濟的 理由를 들 수 있다. 먼저 조종사의 人命損失面에서 볼 때 무인항공기(RPV)는 人命損失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유인기는 인명손실의 부담을 갖고 있다. 2次大戰時 항공기 손실은 미국의 항공기만 4만대를 기록했으며 조종사 및 승무원의 인명 피해는 비행기의 손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월남전시에만 해도 미국의 조종사의 희생은 약 8,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RPV가 갖는 중요한 이점을 비유대 효과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戰鬪機 價格 推移를 검토해 보면, 일차세계대전시 대당 평균 가격이 약 오천불에 불과했으나 이차대전시 대당 평균가격은 십만불 정도, 1955년 기준 F-84 가격이 80만불, 1965년도의 F-4(Phantom)이 삼백만불, 1974년도 F-14전투기의 가격은 약 천사백만불인데 비해 무인항공기의 平均 대당 가격은 30만불에 지나지 않는다.

RPV의 또 하나의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

은 生存性이 높고 有入機의 戰鬥效果를 增大시키는 점이다. 規格이 작고 레이더 反사파가 적고 Sonic Noise가 적으며 IR放射가 적으며 12G에서 지속비행이 가능한 同時에 加速性이 크고 機敏하다. 그리고 선회반경이 짧고 SAM 회피가 容易하다는 점과 유인기의 침투로를 열어 주어 유인기의 전투효과를 증대시켜 준다는 등의 장점들을 들 수 있다.

#### IV. 各國의 RPV開發 現況

##### 가. 美 國

美國의 體制空軍(AFSC)의 航法體制本部 산하의 Air force's Drone/RPV Systems Program Office에서 주관하고 開發에 참가한 補助機關은 MITRE, Aerospace Corp,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US Naval Weapons Center, 들로 다음과 같은 開發計劃들을 추진하였었다.

① Big Safari 計劃: Cuba 위기 후, 1962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Drone 및 RPV의 電子探知系統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개발계획

② Red Wagon 계획: 마찬가지로 60년대 初期의 계획으로 Teledyne Ryan社의 Firebee I에 戰術偵察機能을 갖도록 하는 계획

③ Comfy Bee 계획: 多目的 高高度偵察用 Drone 및 RPV에 관한 研究이며 美 空軍의 SAC와 TAC가 후원하여 개발.

④ Compass Dwell 계획: 高高度를 飛行하며 레이더電波 및 無線電波를 탐지하는 SPY機의 研究.

⑤ Compass Dawn 계획: 現在의 Drone을

利用하여 레이더電波를 포착하며 레이더基地를 探知하는 研究開發計劃

⑥ Compass Strike 계획: Drone 및 RPV에 Active Radar Jamming 장치를 적재하여 電子戰을 遂行하기 위해 착수한 계획.

⑦ Compass Cope 계획: 高高度, 高速장거리용 RPV體제의 研究

⑧ Coronet Organ 계획: Drone 및 RPV에 ECM 장비를 적재하는 계획

⑨ Combat Angel의 계획: Drone 및 RPV를 利用하여 Chaff를 撒布하는 研究

⑩ HAVE Lemon 계획: RPV를 사용하여 폭탄을 投下하는 研究

⑪ HAVE Lime 계획: RPV를 사용하여 對空防禦를 制壓하는 研究

⑫ SPRA 계획: 美 海軍이 後援하는 長距離偵察用 RPV 研究

⑬ TAREWS 계획: 戰術偵察 및 지원을 수행하는 低高度 中高度 飛行 RPV 體制에 관한 研究

이처럼 각가지 RPV 開發계획 하에 갖춘 Control and Data Retrieval System은 적의 작열한 Jamming 속에서도 RPV를 20臺까지 管制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었다. 이같은 美國 AFSC에서 착수한 RPV開發의 主要 領域은 敵防空網 制壓用 RPV, 空對空 RPV, 偵察用이나 空對地 RPV, Data Link 및 通信, 電子戰 遂行을 위한 것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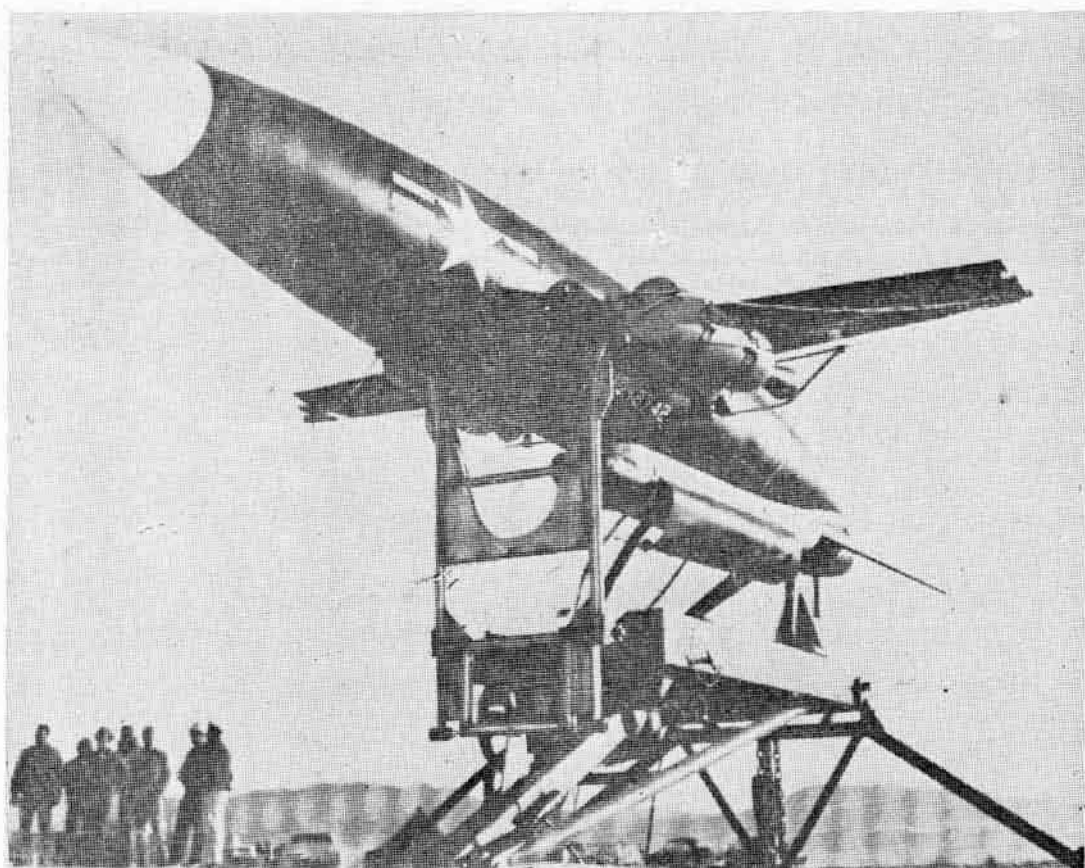
共產圈 RPV를 除外한 총 무인기의 種類는 약 250餘種에 달한다. 이 중에서 美國에서 開發生産한 무인항공기가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各 製作會社別로 살펴보면 Beechcraft社의 Cardinal(MQM-61A/39A)과 Bonanza(QU-22 A/22B)가 있다. 前者인 MQM-61A/39A는 美陸軍이 Hawk 要員 訓練用으로 使用하는 것으로 최대속도 303KTS정도다. 그리고 Bonanza는 월남전에서 Pave Eagle 감시용으로 활용된 바 있다.

Boeing社에서는 YQM-94A를 1970년 9월設計에 착수하여 1973년 7월에 비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用途는 통신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高空에서 長時間체공(체대체공시간 30時間, 高度 50,000~70,000 ft)하는 우수한 RPV로

주로 東西獨 國境에서 Radar 정보수집을 하고 北極에서 소련의 北極 미사일기지의 誘導彈 發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LS장치를 利用 在來式 활주코에 全天候 着陸이 可能하다.

美空軍의 Compass Dwell Program下에 개발된 Martin Marietta社의 RPV도 역시 장시간 체공하면서 YQM-94A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Der Mar社의 Whirlymite(DH-2)는 UH-1의 胴體와 同一하게 되어 있다. 또한 美國 海兵隊가 해상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Fairchild社의 Bikini라는 RPV도 있다.



다음은 Northrop社의 Target Drone 用인 MQM-33, 36, 57A은 美 陸軍에서 대공포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되며, 4次 中東戰에서 SAM 기반용으로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MQM-74A (CHUKAR)는 地上의 對空要員에게 그 外見이 超高速 Jet機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改造可能하다. 그러나 본래의 用途는 對空火器 訓練用 및 武器體制 評價用 Target Drone이다. 翼幅 1.69 m, 全長 3.58 m, 全高 0.7 m이며 最大 發射중량은 192 kg, 최대속도 400 KTS, 순항속도 210 KTS이며 순항속도에서 표준고도일 때 333 km의 항속거리를 갖는다. 사진은 MQM-74(CHUKAR)

이번에는 Teledyne Ryan社에서 제작하고 있는 무기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Teledyne Ryan社는 비교적 많은 RPV를 開發했다.

○ BQM-34A/MQM-34D (Firebee) : 항속거리 630 NM, 무게 2,500 lbs로 항법장치를

갖춘 아음속 Jet機이며 C-130에서 發射하여 Parachute로 回收됨.

○ BQM-34E/F (Firebee 2) : 항속거리 900 N/M, 무게 2,442 lbs, 초음속(M=1.8)

○ Firebee Series 147 : 항속거리 15,000 NM, 무게 3,400 lbs, 속도 780 km/h, 순항 고도 6만 ft, 24 inch 카메라를 탑재, 현재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으며 월맹 및 中共本土 偵察에 使用함.

○ AQM-91A (Firefly) : 항속거리 500 N/M로 KA-80 카메라, IR Scanning Mapper, ELINT 器材탑재.

○ AQM-34H : 순수한 ECM 任務를 수행하며 날개에 Jammer와 Chaff Dispensor가 있음.

○ BQM-34C : 실시간(Real Time)으로 영상정보를 지상에 송신해 주는 정찰일부.

○ BQM-34A : Shrike, Maverick, Hobos 등의 미사일을 탑재하여 대지공격임무를 수행.

다음 그림은 Firebee 의현대비행 모습.





## 나. 소 련

소련의 傳統的인 航空機 設計概念은 간단한 飛行體 形態를 취해 왔었다. 그런데 Foxbat나 Backfire機같은 最近 航空機는 너무 정교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때문에 비용이 싼 RPV 開發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소련이 RPV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련은 1950년대 중반부터 空對空 및 地對空 미사일 體系의 訓練용으로 亞音速無人標的機(Target Drone)을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초기엔 La-17이라는 RPV를 TU-4 폭격기에 탑재하여 空中에서 發進시킨 다음 標的機(Target Drone)를 無線操縱하여 訓練한 후 낙하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썼다. 改良型 La-17M은 地上發射臺에서 발사하여 空對空 및 地對空사격 훈련용으로 利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타 소련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빈약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소련이 순항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의 제작경험이나 기술수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무인항공기(RPV) 개발수준에 접근하는 데는 큰 制限事項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英 國

英國의 製作會社 Short社는 Short-Skyspy라는 평칭을 가진 偵察 및 감시용 VTOL 원격조종행미체를 開發하였는데 規格이 매우 작고 出力이 그다지 크게 필요치 않아 作戰上 많은 有利한 點들이 있다. 이 무인기는 最大離陸重量은 265 lbs이고 實用上昇限度는 20,000 ft

정도다.

## 라. 日 本

日本의 Fuji(富士)社는 방위청과의 계약하에 美國 Teledyne Ryan社의 Firebee I을 製作하여 Tartar 미사일 및 대공포 사격 訓練用 RPV를 제작하여 1972年末에 海上 自衛隊에 인도되었다.

## 마. 이탈리아

Northrop社의 MQM-74A CHUKER 無人機를 偵察용으로 改造한 이탈리아의 Meteor社는 GUFONE 無人機를 開發하여 이탈리아 陸軍에서 山岳地帶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GUFO 수색정찰체계의 航空部門을 담당하고 있다. 車輛에 설치된 無人機統制所는 한 번에 한 대의 GUFONE 무인항공기를 統制가능한데 GUFO 偵察部隊는 2臺의 發射臺裝置車輛과 24臺의 無人航空機를 保有하여 標的을 24時間동안 계속해서 偵察監視할 수가 있는 것이다.

1번 무인항공기(GUFONE)이 발사되면 第2의 發射臺는 準備中에 있다가 第1番機가 任務를 마치고 돌아오거나 격추될 경우 즉시 第2番機를 발사할 수 있도록 準備態勢를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탈리아의 Meteor社는 ANDROMEDA 體系, 즉 제트엔진인 MIRACH 100형, 300형, 600형과 왕복동엔진의 MIRACH 10형과 70형을 보유하고 있는 體系다. 이들은 무인항공기의 다양한 임무 수행능력, 즉 目標物의 탐지나 획득, 방어진지에의 침투 및 제공권 확립, 電子戰, 그리고 공격용 등의 任務를 遂行할

수가 있다.

現在 이 MIRACH系列의 무인기들은 이탈리아 海軍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70형과 100型), 또 外國에도 販賣되고 있다 (10型, 70型, 100型 및 600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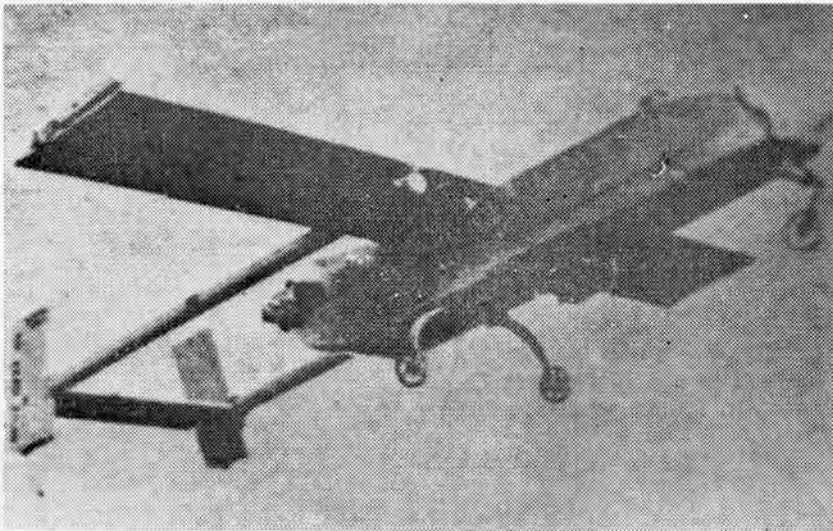
#### 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두 가지 種의 피스톤엔진 RPV를

開發했는데, 하나는 Tadiran MASTIFF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항공사의 SCOUT다.

MASTIFF는 戰術行動半徑 70 km, 적재량 15 kg, 최대속도 80 KTS, 이륙중량 75 kg이고 기장 6.98 m, 기폭 4.2 m이다. 탑재장비는 TV카메라를 장착하여 실시간 비데오 중계장치가 되어 있다.

SCOUT는 Twin-Boom의 꼬리를 달고 뒷부



SCOUT RPV

분에 推進 프로펠러를 갖고 있으며 그 性能은 MASTIFF와 유사하다.

이륙중량은 118 kg으로 여기에는 14 kg의 적재화물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다. 순항속도 80 KTS, 기장 3.68 m, 기폭 3.6 m이다. 트럭에 장치된 발사대에서 발사된 SCOUT는 자동조종통제장치에 의해서 巡航하는데 高度 또는 方向을 바꿀 때만 Command Link가 사용된다.

胴體 밑에 달린 TV카메라는 15:1의 Zoom Lens를 갖고 있어서 360°방향에 촬영가능하며 무선으로 전장정찰을 위한 실시간 비디오 중계를 한다. 이 SCOUT는 현재 이스라엘軍에 作戰配置中에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장 戰術적으로 잘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국의 Teledyne Ryan社의 Firebee를 이스라엘이 모방생산한 RPV이다. 용도는 ECM 및 Decoy용으로 開發했기 때문에 Decoy용으로 쓰기 위한 장치로써 레이더에 실제 비행기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Radar Cross Section을 높이는 Radar Reflector Lens와 AN/DRQ-4라는 Miss Distance 指示機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電子戰 遂行을 위한 AN/DLQ-3이라는 ECM 장비와 주파수변조기(C, P, S, X BAND), 적외선 Flare(MK-37), 카메라 POD 등을 갖추고 있다.

#### 사. 西 獨

Dornier社의 Do32K 무인기는 回轉翼無人機로 回轉翼 直徑 26 ft 3 in, 全高 4 ft 11 in, 胴體直徑 3 ft 11 in, 重量 620 lbs, 實用上昇限度 300 m로 체공시간은 24시간 계속할 수 있으며 偵察通信 및 ECM 任務를 수행할 수 있다.

#### 아. 프랑스

엑소세트 미사일을 제작한 프랑스의 Aero-spatiale社는 야간촬영까지 가능한 RPV를 추력에서 RATO 장치에 의해 발사한다. 1회出擊에 촬영가능한 지역은 77平方마일(200 km<sup>2</sup>)이다. 저공에서의 作戰半徑은 160 km, 速度는 Mach 0.65 정도다.

### V.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各種 RPV는 현재 작전배치되어 운용되어 있는 數보다도 개발단계에 있거나 所要가 없어 개발 중지된 RPV가 훨씬 많다. 이것은 아직도 RPV가 안고 있는 制限點들 때문이며 전자분야의 최근 발달로 머지않은 장래에 技術的 幼年期를 지나 成熟期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戰場 戰術의 章을 열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

×

×

# 航空機에 의한 장갑차량 攻擊

## 양 광 석 譯

最近 나토 및 바르샤바 兩個條約軍은 주로 裝甲 및 機械化部隊를 이용하여 地上作戰의 목표 달성을 겨냥한다. 이런 형태의 전투에서는 步兵과 自走砲, 對空機銃을 보유한 탱크 및 工兵用 戰鬥탱크와 같은 裝甲戰鬥支援車輛들에 의해 武器를 補給하여 運用하는 것은 지 된하는 戰車가 中樞이다.

따라서 軍은 作戰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敵을 막는에는 敵의 裝甲 및 機械化部隊를 無力化함에 최우선을 둔다. 換言하면 現代戰場 시나리오에서 近接空中支援 및 戰場沮止任務에 戰術航空力を 이용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裝甲車輛들과 交戰함이 근본적임을 뜻한다.

發展된 地上支援航空機에 의해 지원되는 戰術 및 技術의인 특징을 가진 部隊는 現存의 가장 효과적인 對戰車武器가 된다.

### 融通性 및 反應

紛爭이 勃發하기에 앞서 警戒限界가 꾸준히 뒷 절음질 질때는 初期에 한참동안 戰術攻擊 航空機를 對戰車武器의 役割을 하게끔 했다.

1973年 Yom Kippur戰爭의 初期段階에서 주 고 받기式의 交戰이 극단적으로 계속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空軍은 敵의 防空에 커다란 損

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敵의 급속히 발전한 裝甲部隊와 地上의 小規模 防護軍에 대항하여 골간高原 깊숙이 事情없이 공격비행을 하였고 進擊은 중단하였다.

防禦司令部側에서 戰術空軍編隊를 방어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며, 中立의 敵陣突破任務과 되지기反擊 및 逆攻勢까지 하게 하는 것은 作戰의 융통성과 反應速度이다.

### 火 力

發展한 地上支援航空機는 표적을 精密 및 有效하게 타지하며 全天候에서 부분적으로 운 용되는 空對地用 對戰車武器를 넓은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다.

### 第 3 次元(立體)의 利用

戰車の 戰鬥作戰은 2次元에 제한됨에 反하여 戰術攻擊航空機는 3次元의 능력을 이용하여 어떤 방향에서나 直接 動作에 의해 전투地 域 깊숙한 곳에서 敵과 交戰할 수 있는 능력 을 갖는다.

모든 戰車는 砲塔과 主몸체의 前方弧形, 전 투에서 對탱크武器에 노출되는 부품들이 강력 한 裝甲保護를 하고 있음을 各별히 기억해야

한다. 戰車의 기타 모든 部分인 몸체, 砲塔지붕 및 뒷부분과 下部는 약한 보호부분이다.

따라서 車體는 어떤 狀況에서나 부서지기 쉬우며 航空力을 고려하면 戰車의 上部露出部는 主關心事로 나타난다.

한편, 戰車는 수개의 特殊固有性으로 航空機 攻擊目標의 優先順位目錄에서 上位임이 확실하다. 現代戰場의 機械化 및 裝甲部隊의 일반작전 능력에서 分離한 사항들은 다음의 항목이 포함한다.

○ Leopard 2級과 같이 발전한 戰車의 시스템 戰價는 注文時 300만弗 이상이다. 그리하여 費用 對 效果의 이유 때문에 航空戰이 최우선이다.

○ 東部の 최근 有隔複合成分 및 特殊鋼鐵 製裝甲에 대한 도입에 미추어 西部의 地上用 對戰車 概念은 成形裝藥彈을 광범한 用途로 効力を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NATO 內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前方交戰에서 사용되는 現世代 輕量의 有線誘導 對戰車미사일 및 成形裝藥銃榴彈에 대한 戰鬪效果의 再評價는 이 연구 중의 몇 가지 결론에 따라 수행되었다.

○ 其他 種類의 間接對裝甲防禦는 결론에서 설명한다. 戰車와 비록 많은 支援部隊가 機動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通信에 크게 의존한다. 이 通信은 험난하고 山林이 울창하며 建物이 밀집한 區域으로 된 유럽의 광활한 地域에서도 특별하게 正確性을 간직한다.

美國의 GBU-17/B이나 프랑스의 Gurandal과 같은 特殊武器를 이용한 空中攻擊으로 高速道路와 교량 및 터널의 파괴는 裝甲 및 機械化部隊, 특히 敵의 占領地域에 신속히 침입

하는 作戰概念을 갖는 攻擊部隊와 관련될 배전투효과를 크게 위태롭게 한다.

### 運用戰術

戰車들과 교전을 위하여 空中攻擊部隊를 활용하려면 地上軍의 對戰車配置와 항시 밀접한 협조를 가져야 한다. 近接 航空支援任務 중에서 戰車들과 교전할 때 특유의 標的破壞에는 주로 裝甲貫通 및 擴散彈이 필요로 한다.

防禦者의 側面에서는 이 戰術로 인하여 對戰車防禦配置를 규정된 防禦區域內에 높은 밀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공격자에 관한 限 直接射擊에 의하여 자체의 突擊先頭를 지원하고 사기를 昂揚한다.

戰場沮止作戰에서 방어자의 對戰車配置計劃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賦課되는 限界內에서 충분히 얻는다. 沮止任務에서는 戰場에 증원 부대에 대하여 攻·防兩側部隊는 상대방의 軍需補給系統 및 通信의 차단을 시도한다.

이 試圖는 敵部隊가 整列되어 좁은 通路近處에 집결해 있을 때 공격하면 달성된다. 이런 作戰을 위하여 擴散武器撒布型의 능동 및 수동식 子彈, 遲延爆彈과 精密誘導 遠隔武器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長期間의 성과로서는 對戰車武器는 運動에 너지彈과 改良成形裝藥彈을 결합시키는 기초 위에서 새 世代로 옮길 것으로 기대된다. 단 기간의 방편으로서는 對戰車防禦能力은 戰術 航空力의 이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끌어 올려 지고 있다.

그러나 바르샤바條約軍도 동일한 문제에 直面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 西方國의 능력과 동일한 水準만큼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음을 짐언한다.

○ 火力의 最適利用과 機甲部隊의 기동을 위하여 탱크機動이 地形에 유리하게 최대 범위로 운용되어야 한다. 기동은 탱크의 探知, 捕捉, 追跡, 確認 및 交戰을 3次元武器體系에 의해 차례로 추진시킨다.

또한 機動에 유리한 地形의 구역은 攻擊航空機가 機甲部隊移動을 보호하는 防空護衛任務를 가진 車輛을 방해하는 면에서 飛行經路를 선택하게 한다. 게다가 攻擊飛行經路는 精密誘導遠隔武器의 요구에 맞춰야 할지 모른다.

○ 敵과 대치하는 戰車 및 機械化部隊를 위하여 고도로 精巧하고 효율적인 軍需體系가 요구된다. 戰時 戰車中隊는 1日 燃料 약 1,000(U.S. 3,200가仑)와 彈藥 6톤이 소요된다.

條約國의 大規模軍隊일지라도 이들 모든 중요한 보급은 非武裝車輛들에 의하여 後方地域에서 수송해야 한다. 現代의 戰車들은 고도로 예민한 武器體系이고 戰車들은 전쟁에 쫓기어 고장 및 파손되기 쉬우며 이들 破損은 물론이고 停止 및 기타 損傷은 수리되어야 한다.

戰術航空機作戰에 의하여 補給廠과 支援施設, 수송부대와 修理所를 無力化시키는 것은 戰術機甲 및 機械化部隊에 대한 航空力活用の 간접방법이며 費用 對 效果面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大部分의 경우 支援 및 修理施設이 展開區域後方に 정상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전부 航空作戰 때문이다. 그러므로 後方支援施設들은

일반적으로 裝甲 또는 防空手段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는 비교적 低廉하고 또한 單純自由落下兵器로 交替받을 수 있다.

### 運用體系

高低混合型的 武器로 대표되며 현대에 적절한 것으로 고려되는 약간의 近接支援航空機에 대하여 간략히 종합한 說明은 다음과 같다. 戰時에 이 武器體系들은 固定翼 航空機이며 對戰車戰의 攻擊主力 장비를 탑재 운반한다.

### Fairchild A-10

A-10 航空機가 운반하는 主要 對戰車武器는 General Electric社製 GAU-8/A 7個銃列의 30 mm Gatling 機關銃이며, 1,350發의 彈倉이 있다. 게다가 A-10 航空機는 AGM-65 Maverick 空對地誘導彈을 운반하며 필요한 경우엔 레이저 誘導彈과 Rockeye II 射出裝置를 추가할 수도 있다.

航空機保護용으로 ECM 裝備는 레이더 警報受信機, 16個의 체프와 赤外線照明彈 射出器를 가지며, 그리고 AN/ALQ-119 제머포드는 필요하면 포함된다.

A-10 航空機設計時 生存性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特別關心에 포함할 內容은:

○ 銃彈을 포함하여 2,975 Lb(1,350 kg)의 武器가운데 約 50%가 操縱士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충분한 구조와 操縱系統

○ 偽裝을 위한 페인팅

○ 赤外線에 약한 反應을 주는 特徵의 Ge-

neral Electric社製 TF 34 터보팬엔진.

○ 自動密閉, 燃料탱크의 爆燃방지

최초 2臺의 A-10 航空機로 구성되는 1個編隊가 正常作戰時에 先頭機 위를 비행하면서 Maverick 誘導彈을 투하한다. A-10 航空機가 典型的인 對裝甲出擊時는 6個의 Maverick 誘導彈을 발사하고 30 mm機銃은 連射시키면서 8~12차례 통과 비행한다.

美國 네바다州의 Nellis 空軍基地에서 있었던 運用試驗에서는 4臺의 A-10航空機가 ZSU-23/4 Shilka 防空車輛의 보호 하에 이동하는 模擬 소련 탱크大隊과 싸우는 것을 보였으며 6분이내에 4臺의 Shilka와 戰車 31臺中 22臺를 격파하였다.

유럽戰區에서는 A-10航空機는 美 陸軍의 對戰車헬리콥터 部隊과 밀접한 협조에서 樹木頂上의 높이에 高度로 비행한다.

A-10航空機는 慣性航法裝置를 장착하게 되었으며 LANTIRN Pod裝着에 대비하고 있다. LANTIRN Pod 1組는 이미 生産中에 있으며 野戰에서 이 장치들을 引受하게 된다.

### RAM-J

蘇聯聯邦은 西方에서 RAM-J로 알려진 A-10航空機와 많이 닮은 近接支援航空機를 개발하였다. 또한 蘇聯의 RAM-J는 30 mm Gatling型 機關銃을 장비하고 動力機關은 2個의 터보팬 엔진을 裝着하며 엔진은 날개의 上面에 있는 파일론에 장착된다.

RAM-J에 관한 美國의 情報報告에 의하면 이제 막 運用할 예정인 RAM-J는 機體外部裝着位置 10個 곳에 10,000 Lb(4,500 kg)까지

兵器를 운반할 수 있으며, 이 兵器에는 改良精密誘導 空對地미사일, 레이저誘導爆彈 및 擴散彈이 포함된다. 航空機의 離陸重量은 약 36,000 Lb(16,500 kg)로 추정된다.

### FAR-83

스위스의 Flugzeugwerke, Altenrhein은 對戰車作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近接支援航空機의 豫備設計作業이 시작되었다는 최근 商業新聞發表에 의해 놀랐다.

아직은 設計段階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事業은 FAR-83이라 하며, Rollers-Royce社製 터빈엔진을 動力機關으로 한다는 취지에 대한 것 외에는 기타 仔細한 내용은 최근에 發表되지 않았다.

스위스에서 設計한 航空機는 과거에 生産으로 전혀 行해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事業의 結晶이 된인이 아니다.

### Jaguar

英國空軍의 Jaguar 航空機는 對戰車作戰을 위하여 2개의 30mm Aden 機銃, 成形裝藥彈을 운반하는 68 mm 無誘導 SNEB 로켓트와 Hunting社製 BL 755擴散爆彈을 장착한다.

近接航空支援任務에서 敵탱크는 地上에 기지를 둔 레이저照射器를 통해 조명되며 Jaguar 航空機의 조종사는 航空機機首에 장착된 레이저 標的 探索器/距離測定器로 표적을 포착한다. 이 裝置는 航空機出擊時 운반하는 모든 兵器에 대하여 첫 飛行通過에서 훌륭한 命中可能性을 보증한다.

英國空軍은 Jaguar 航空機의 胴體內部 부차

지점에 現在 2개의 BL 755 대신 4개를 장착하는 새로운 ML 二重 航空貯藏運搬器에 대한 試驗計劃을 최근에 포함시켰다.

프랑스空軍의 Jaguar 航空機도 실제적으로 英國空軍에서 운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積載荷重을 운반할 수 있다. Aden 대신에 DEFA 機銃이 장착되었으며 Armée de l'air社가 개발한 擴散武器와 Marta社와 Thomson-Branat社가 개발한 Beluga 射出器를 장착하고 있다.

### Alpha Jet

獨逸空軍에서 운용되는 Alpha Jet 輕近接支援航空機는 對戰車戰任務를 수행하며 이 임무를 위하여 항공기는 胴體中央部貯藏部에 150發의 彈倉을 가진 27 mm Mauser 機銃포드와 主翼의 4개 곳에 4,400 Lb(2,000 kg)의 兵器를 합친 것을 운반한다.

이 兵器에는 BL 755 擴散爆彈과 70 mm 無誘導로켓 發射臺가 포함되며, 다음에 추가로 준비 중인 武器는 晝夜間用 AGM-65D型 Maverick彈이 有望한 것으로 고려된다.

### Tornado

Tornado 航空機를 제작한 3개 國家는 BL 755擴散武器를 在庫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태리와 英國은 그 武器壽命期間의 초기에는 BL 755와 함께 Tornado 航空機를 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英國空軍이 사용하는 BL 755는 80年 후기 중에 「改良 空對地 對戰車武器」로 교체 된다. 新型 擴散武器는 Air Staff Target (AST) 1227에 應하여 VJ 291의 名稱下에 Hunting Engi-

neering社에 의해 개발 중이다.

獨逸空軍은 Tornado 航空機用 對裝甲武器開發에 自國方針을 따르고 있으며, 多用途武器 (Mehrzweckwaffe) MW-1로 알려진 擴散武器 射出裝置는 MBB社에서 개발한다.

이 重武器射出裝置는 4개의 副容器로 구성되며 총 224개의 發射管을 휴대하며 이 管은 直接作用의 成形裝藥彈 또는 時限性機雷로 負荷될지 모른다.

彈藥은 低高度飛行經路로부터 옆으로 發射된다. 非公式情報에 의하면 獨逸의 Luftwaffe는 Tornado 航空機를 위해 MW-1 射出裝置를 1,000個 구입하려고 계획 중이다.

### F-16

General Dynamics社製 F-16 空中戰用 戰鬥機는 數個國의 空軍이 운용하고 있거나 또는 운용할 것을 계획 중이며, 또한 F-16 航空機는 對戰車戰에도 사용한다. 對戰車戰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벨지움 (AGM-65 Maverick), 네덜란드 (AGM-65에 추가하여 레이다誘導爆彈) 및 美國 (AGM-65와 WAAM)이 포함된다.

### Sukhoi Su-17

Su-17 (Fitter D) 攻擊 및 沮止戰鬥機는 主翼의 4개 곳과 胴體에 4個裝着地點에 11,000 Lb(5,000 kg)까지의 武器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浸透하는데 충분한 航續距離를 위하여 軍用積載荷重은 보통 4,400내지 6,600 Lb (2,000~3,000 kg) 사이에서 制限되지만 對裝甲戰을 위하여 이 航空機는 57 mm, 160 mm



및 240 mm 無透導로케트와 擴散武器를 포함시킨다.

이 航空機는 分當 900發이 발사되는 30 mm 機銃인 NR 30을 갖추고 있으며, 彈體의 重量은 410 gr (0.9 Lb) 이며 銃口에서 속도는 780 m/s이다.

### 標의 捕捉 및 武器統制體系

對裝甲任務를 갖는 地上支援航空機는 敵防空部隊가 취하는 威脅態勢, 그리고 일반적인 敵戰車性能의 이유 때문에 敵의 前方과 配置地域을 全天候에서 독자적으로 침투할 수 있어야 하며, 地上誘導를 받지 않고는 低空飛行으로 最初通過飛行時 適正量의 彈藥을 가진 敵탱크를 탐지, 識別, 추적 및 파괴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現在 개발 중인 改良型 또는 世界 많은 國家에서 사용도입 과정에 있는 標의 捕捉 및 武器統制體系의 능력에 있어 특히 性能向上이 요구된다. 이 體系는 다음 요약에서 설명할 感知器와 關聯裝備에 포함되며 이들 여러 가지 裝備는 체계의 複雜程度에 따라 單獨 또는 결합하여 사용한다.

### 前方監視 赤外線 感知器

前方監視 赤外線感知器 (FLIR)는 晝夜間에 航路前方의 地形 또는 표적을 조종사에게 텔레비와 같은 映像으로 보여주며, 또한 나쁜 可視狀態下에서 可視範圍를 넓혀 준다.

改良 FLIR는 자동적으로 표적을 探知 및 추적하며 赤外線誘導 空對地誘導 또는 레이저 照射器의 探索器에 Lock-on해 준다. 표적에

Lock-on할 때 受動으로 하거나 또는 航空機레이더를 통해서 수행할지도 모른다. Pornier社는 空對地任務를 위하여 FLIR 및 레이더 感知器를 가진 夜視能力과 武器統制體系가 결합된 것을 제안했다.

단약 레이더의 距離情報를 결합하면 近거리에서 熱映像感知器의 高分解能은 地形 또는 標의 先頭에 높은 對照映像을 제공한다. 感知器가 잡은 것은 廣角 Head-up 展示器와 Multi-Mode Head-up 計器展示器에 나타난다.

現時點에서 FLIR 感知器로 裝備중이거나 장착한 地上支援航空機는 A-10과 F-16航空機 (LANTIRN), A-7E 航空機 (FLIR Pod 사용 중), F-4E, RF-4C 및 F-111航空機 (AN/AVQ-26 Pave Tack 사용도입 過程中), A-6E 航空機 (TRAM 사용 중), Saab AJ 37 (L.M. Ericsson FLIR 사용도입 過程中)이 있다.

### 低光度테레비 (LLLTV) 카메라

低光度테레비카메라 (Lowlight-Level TV Camera)는 어두운 地上標의을 볼 수 있게 하며 이런 型의 裝備는 단약 氣象狀態가 暗黑과 薄明의 어떤 상태 하에서도 운용된다. 다수의 레이저 標의 照射器와 復座型 A-10 航空機의 夜間/不利한 氣象일 때는 LLLTV 장비를 휴대한다.

### Synthetic-Apperture 레이더

空對地誘導彈의 레이더影像分野는 주로 도플러 光速을 뚜렷하게 하는 技術結果와 Synthetic Beam Synthetic-Apperture 레이더를 移動標의 指示器 (MTI)에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進展

이 이루어졌다. McDonnell Douglas社의 Synthetic Beam Aperture는 空對地戰術武器를 공격용으로 適應性을 평가하는 試驗計劃은 진행 중이며 前方監視感知器가 10 ft (3 m) 以下の 分解能을 나타내기를 기대한다.

追方計劃에서는 AN/AVQ-26 Pave Tack과 AGM-65 Maverick이 全天候能力을 갖는 低高度攻擊體系가 되도록 새로운 感知器를 결합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側方監視用 航空機搭載레이다(SLAR)는 Synthetic Aperture 및 MTI를 보유하였으며 美 육군/공군 合同開發計劃과 美海軍 A-6E/레이다 誘導武器體系 計劃에서 공격저지(Pave Mover) 武器體系에 대한 연구가 최근 진행 중이고 兩個 경우에서 試製試驗이 진행 중이다.

### 레이저標的 探索器

地上 또는 航空機搭載用 레이저標的 照射器(Designator)를 운용하는 다수의 地上支援航空機는 레이저標的 探索器를 장착했으며 이런 型의 感知器는 航空機의 前方地形을 자동적으로 走査하고 航空攻擊飛行 經路, 레이저照射器의 성능 특성과 氣象에 의존하여 晝夜間에 20 km (11 N.M) 거리까지 레이저에 의해 표적을 포착한다. 이 感知器들은 50 ft까지의 低飛行高度에서도 충분히 사용된다.

Martin-Marietta社가 수행한 Pave Panny試驗에서 조종사가 肉眼으로 충분히 보기 以前에 50 ft의 飛行高度에서 標的捕捉能力을 시범하였다.

레이저探索器의 出力은 操縱計器板에 나타나며, 그리고 또한 航空機의 航法 및 武器體

系에도 전달된다. 몇 개의 레이저 探索器들은 무기체계에 標的正確度를 추가하기 위하여 레이저 距離測定器와 결합된다.

레이저探索器를 장비한 地上支援航空機는 다음과 같다. Harrier, Jaguar(Ferranti社가 개발한 레이저 Ranger와 標的指示用의 LRM-TS), Tornado(國際資本聯合으로 구성된 Ferranti, Electro 및 Selenia社에 의해 개발된 레이저距離測定器/標的指示用 受信器), 현재 美空軍에서 사용 중인 A-10, F-16 및 A-7(AN/AAS-35(V) Pave Penny), F/A-18(LST/SCAM), A-4M 및 AV-8B/C(AN/ASB-19(V) 角比率爆擊體系), A-6E(TRAM), MiG-27 및 Su-17 등이다.

### 레이저 照射器

레이저誘導 空對地武器를 사용함에는 레이저 標的 照射器에 의해 敵戰車는 表識(또는 照明)되어야 한다. 이 照射器는 10,000 m 以上을 넘지 못하는 遠隔距離와 2,000내지 13,000 ft사이 변화되는 高度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며 레이저 照射器는 攻擊航空機 또는 特殊標的 指示用航空機에 의해 운반된다.

近來 사용 중인 모든 레이저武器統制裝備는 複座型 航空機에 구비되며 精密/安定化한 高分解能의 테레비, LLLTV, 또는 前方監視赤外線(FILIR) 感知器로 표적을 포착하도록 구성되어 설계되었다.

現在 生産에 착수하려고 하는 單座航空機用體系는 프랑스의 Thomson-CSF社와 Martin Marietta社와 合作으로 개발했으며 그 體系는 ATLAS II로 알려졌고, 프랑스空軍은 Jaguar

航空機, 30臺에 최소로 장비하기로 확정했다.

美空軍은 ATLAS II를 구매하려고 연구 중이고 유럽의 F-16 航空機運用者들은 이 裝備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美國의 많은 製作會社들은 유사한 裝備開發을 위하여 연구를 시작했다.

### 成形裝藥彈

大部分의 空對地武器는 成形裝藥彈頭로 장비되고 있으며 실용적인 方法으로서 衝擊에너지에 관계없이 成形裝藥彈은 彈直徑의 4내지 5배의 크기만큼 관통한다.

Chobham型 裝甲에 대한데 더욱 좋은 효과를 내고 貫通後 效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製作會社들이 成形裝藥彈概念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참여했으며 이 개선은 第1段에는 武器에 퍼지고 第2段에서는 완전히 관통할 수 있게끔 裝藥을 앞뒤 一列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其他 研究는 平平한 圓錐體의 成形裝藥彈發射體에 관한 것이다.

### 運動에너지彈

近來 銃탄을 가지고 사용되는 運動에너지彈의 對裝甲性能은 Sub-Calibre Penetrator, 衝擊角度 및 衝擊에너지 特性에 의존한다. 高密度의 貫通子는 텅스텐, 텅스텐合金 또는 消耗된 우라늄으로 제작된다. 運動에너지彈을 誘導武器에 적용시키려면 미사일을 極超音速의 終末速度로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體系에 대한 研究作業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彈形式裝藥

美國과 西獨의 會社들은 다음 世代 擴散武器에 장비할 裝藥充填彈開發에 열중하고 있다. 大量으로 充填된 砲射體가 폭발함에 따라서 폭발하는 납작한 圓錐體의 作動下에 貫通子를 形成하며 이것은 最初速度가 1,500내지 3,000 m/s인 彈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彈은 15 m(50 ft) 떨어진 거리에서 폭발되면 이미 알려진 어떤 형체의 裝甲도 충분히 관통한다.

### 航空機搭載機銃

第2次世界大戰, 東南아시아戰爭과 中東戰爭 동안에 지루했던 시험에 의하여 對戰車作戰에서 航空機搭載機銃의 有用性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例를 들면 1967年 및 1973년에 일어난 아랍 對 이스라엘戰爭結果를 분석하면 30 mm彈藥으로 蘇聯製 T-52 및 T-62 戰車의 後尾와 頂上을 800 m 以內 거리에서 공격하여 관통시켰다.

General Electric社製 GAU-8/A 30 mm機銃이 포함된 射擊試驗동안에는 이스라엘은 1973年戰爭에서 戰鬪準備가된 T-52 戰車 22臺 전부를 GAU-8/A 30 mm 機銃으로 攻擊했으며 美空軍은 꽤 시킨 M-48 戰車 數臺를 상이한 距離, 下降角度 및 方向에서 공격을 수행하였다.

標的이 1秒내지 2秒사이 변화되는 순간에 폭발되어 불이 났는데 8臺의 戰車는 완전히 파괴되고 다른 7臺는 野戰整備 不可能으로 관정될 만큼 損傷을 입었으며, 6臺의 戰車는 損傷되었지만 正常可用裝備로 野戰에서 軍人들

이 수리할 수 있다. 1臺만이 공격표적에서 빠졌다.

爆破의 80%는 CEP가 우연히 5 miles 또는 그 以內에 들어갔으며 시험에서 사용된 彈藥은 API와 HEI가 5對 1의 比率이었으며 攻擊飛行은 A-10 航空機로 수행하였다. 現代의 다른 30 mm 航空機搭載機銃은 DEFA 및 ADEN社가 공급한 Oerlikon이다.

Oerlikon-Buhrle社가 개발한 KCA 連發機銃의 API彈은 1個의 무게가 360그램이고 分當 1,360發의 比率로 발사되며 航空機速度를 485 KTS, 90度の 衝擊角度를 취하고 1,000 m 距離에서 이 彈은 40 mm의 裝甲을 貫통할 능력에 있다.

#### 機銃效果의 制限

많은 形態의 戰鬥機가 현재 사용하는 多量의 20 mm 및 23 mm 機銃은 APC와 기타 裝甲物에 대한 作戰에서 좋은 효과를 낸다.

그러나 이 機銃들은 直徑의 効力限界 制限 때문에 戰車에 對항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數個 國家의 軍隊는 20mm 武器만을 장착한 航空機의 戰鬥效果를 개선하기 위하여 30 mm Pod의 典型的인 例로서는 Oerlikon-Hughes社 Model인 34 KCA Pod와 General Electric社製 30 mm GEPOD가 있다. 美 空軍은 최근 60臺의 GEPOD를 初度 注文生産을 했으며 다음 注文을 위하여 長期先行時間의 부품조달을 인가하고 52臺의 GEPOD 組立體에 대한 최종적인 要求事項을 進술하여 주었다.

實際로 低廉하고 多用途의 武器가 되는 完

전한 機關砲는 空對地 및 空對空 兩個作戰을 위하여 追加便宜를 제공하지만 그 砲의 효과는 항상 彈의 口徑과 形式에 의존한다.

또 다른 面에서는 航空機는 많이 노출되는 攻擊軌道飛行을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地上의 短距離用 對空武器에 좋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不利한 점이 있으나, 英國의 Chobham과 같은 새로운 型의 複合裝甲의 일반적인 도입에 따라 機銃彈效果를 증진시키는 多少의 개발노력은 製作會社의 분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담은 射程增加와 發射彈導를 高르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彈과 推進劑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한다.

#### 無誘導로케트

매우 저렴한 無誘導로케트(68 mm SNEB를 例로 들면 개당 약 250弗)는 오늘날 全世界의 空對地 對戰車武器이다. 無誘導로케트는 일반적으로 약 1,600 m 距離에서 一齊射로 발사되며 로케트 全體數量이 많아 비교적 높은 分散度를 가진다.

그러나 無誘導로케트가 요구되는 作戰時는 어둠 속에서도 동일하게 攻擊形態가 露出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側面에서 발전된 武器와 싸울 將次交戰에서는 無誘導로케트는 遠거리 誘導武器로 교체될 것처럼 보인다.

1967年 中東戰에서 이스라엘 公式發表에 의하면 T-55탱크 1臺를 결정적으로 大打擊을 주는데 68 mm로케트는 平均 6個 내지 8個가 필요하였으며 對戰車任務에서는 無誘導로케트는 成形裝藥彈의 彈頭만을 裝着한다.

이런 形態에서의 彈은 공격형태, 武器종류 및 直徑에 따라서 300 mm~600 mm의 裝甲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현재 사용 중인 武器의 口徑은 50부터 240 mm까지에 범위인데 70~80 mm 로케트가 주로 두드러지게 많다.

1個씩 裝填하는 無誘導로케트의 抵抗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늘날에는 超音速의 速度가 가능하도록 空氣力學的인 형상을 가지며 輕量의 發射臺에 대부분 집어넣으며, 發射臺는 정상적으로 알루미늄 또는 金屬과 強化플라스틱으로 구성한다. 無誘導로케트의 主要製作會社는 Thomson-Brandt, Bofors, Oerlikon-Bun-rlle, 이스라엘 軍工廠이며, 美國과 蘇聯은 國營會社이다. 無誘導로케트는 CEP 개선과 彈頭의 裝甲貫通力增大를 위한 개발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며, 無誘導로케트에 저렴한 探索器를 장착키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프랑스와 美國의 製作會社들은 이 事業에 몰두하고 있다.

Vought社는 특별히 관심있는 分野쪽으로 개발작업을 傾注하고 있으며 會社의 연구는 誘導 및 無誘導의 極超音速미사일은 연소체 버리는 Combuster Casing이 彈頭 Penetrater로 役割하는 것이 포함된다.

Vought社 報道에 의하면 이런 미사일의 運動에너지는 100 mm(4 in)까지의 裝甲을 충분히 관통하고 3,000 m까지의 거리에 있는 車輛을 殲滅하게끔 수 많은 破片들이 안쪽으로 투하된다.

極超速度(誘導)의 로케트 시스템으로 알려진 미사일은 燃焼가 1,200내지 1,500 m/s(2,300~2,900 KTS) 速度로 진행되며 反面에 1個에

대한 價格이 겨우 數千弗이다. F-4 팬텀航空機와 같은 戰鬥機는 이 로케트의 貯藏 Pod에 200個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擴散武器

擴散武器効果는 활용하는 子彈의 命中可能性에 대한 統計的 數値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能力 및 受勳의 다른 型의 子彈을 크게 分散시킴으로써 이들 地域掩護武器는 많이 변화하는 標的 交戰에 적합하다. 이 시기에 擴散武器는 西部世界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 VJ 291

Hunting Engineering社가 개발하고 있는 空對地 改良型 對裝甲武器는 低高度攻擊形態로 戰車를 無力化시키기 위하여 1980年 중반이후에 기대하는 것으로 事業名을 VJ 291로 命名했다. 이 武器는 英國의 Air Staff Target 1227과 일치하며 높은 亞音速航空機에 의해 100 ft까지 낮은 高度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된다.

VJ 291 擴散彈射出器는 일체 완비된 飛行統制體系를 구비하고, 尖頭 및 尾部의 調整面(Control Surface)은 航空機에서 離脫時 펼쳐지며 그 후에 VJ 291은 航空機 機首方向을 벗어나 4,000내지 6,000 m 사이의 거리로 推進되는 사거리에서 표적에 투하할 수 있다.

現在 可用情報에 의하면 VJ 291 小型彈은 命中時 直接作用하는 改良型 成形裝藥彈 혹은 표적에 命中하지 못할 때 受動的으로 작동하는 地雷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을지 모른다. 子彈은 몇 個 種類의 간단한 標的 探

索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目標上空까지 航空機가 武器運搬飛行이 소  
요되지 않는 武器는 현재 英國空軍에서 사용  
하는 Harrier, Jaguar, Tornado 및 ECA (AS-  
T-403) 航空機에 장착한다.

### Rockeye

Rockeye II 擴散爆彈은 美空軍, 美海軍,  
美海兵隊 및 이스라엘에서 사용하고 있다.  
主契約者인 Honeywell社는 成形裝藥子爆彈 총  
4,200만個를 가지고 Rockeye II 173,000個 이  
상을 최근에 생산하였으며, 이 武器는 越南  
및 中東의 兩戰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  
었다.

1973年 Yom Kippur 戰爭에서는 Rockeye II  
가 蘇聯製 T-54/55 및 T-62 탱크에 對抗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美國關  
係當局에 의하면 典型的인 空中偵察方法으로  
표적에 대한 子爆彈效果를 평가함에 어려움  
이 있음을 발견했다. A-10 近接支援航空機는  
Rockeye II 射出器를 20個까지 운반할 수  
있다.

### 誘導爆彈

TV 및 레이저誘導爆彈은 越南戰 뿐만 아니라  
Yom Kippur 戰에서 裝甲部隊에 對抗하는데  
成功手段으로 훌륭하게 사용되었다. 예를 들  
면 美空軍은 레이저誘導의 2,000 Lb 爆彈으  
로 越盟의 T-54 탱크를 對抗하는데 사용하였  
으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 탱크들은 修理가 불  
가능하게 파손되었다. Yom Kippur 戰爭時에  
이스라엘 空軍도 유사한 경험을 했었다.

그리고 HOBOS (Homing Bomb System) 의  
EOGB-1, GBU-15(V) 滑空爆彈系列, 레이저  
誘導爆彈의 Paveway Range와 Thomson-CSF  
및 MATRA社가 공동개발한 BGL 武器가 이  
武器에 속한다.

誘導爆彈은 機銃 혹은 無誘導로켓트와 비교  
하면 高度, 速度 및 誘導裝置에 의거 遠隔位  
置로부터 공격이 가능하지만 低高度攻擊에서  
誘導爆彈의 관통사거리는 오히려 제한된다.  
다만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에서 低高度 레이  
저誘導爆彈 (LLGB) 및 十字型의 날개를 갖  
인 GBU-15는 뚜렷하게 개선되었으며, 十字型  
날개의 GBU-15는 高度 200 ft (約 60m)에서  
투하할 때 侵透射距離는 10,000 m까지 이  
른다.

또한 誘導爆彈은 Two-Way Data Link를 통  
해 調整될지도 모른다. 미래에 어떤 戰場狀況  
下에서는 개선된 自動指向方法 (赤外線映像,  
二重色赤外線 및 밀리미터波 레이더誘導裝置)  
뿐만 아니라 高揚裝置 및 低價의 로켓트推進  
體系的 다른 概念이 誘導爆彈으로 이용된다.

오늘날 誘導爆彈을 사용하는 國家는 美國,  
英國,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蘇  
聯, 터키, 그리스 및 네덜란드이다.

### AGM-65 Maverick

戰, 平時를 막론하고 최근 발사한 모든  
Maverick의 命中正確度の 綜合記錄은 92%이  
상이 된다고 공언한다.

Yom Kippur 戰爭中에 이스라엘 空軍은  
AGM-65 Maverick 58個로 52臺의 탱크를 파  
괴하였으며 파괴된 것은 全量 섬멸된 것으로

分類되었다.

Maverick은 成形裝藥彈頭를 장치하였고 美空軍 및 이집트軍, 스웨덴, 그리스, 터키,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및 모로코에 지금까지 販賣되었으며 西獨, 네덜란드, 이테리, 벨지움, 놀웨이, 덴마크 및 스위스를 포함한 其他 여러 國家들이 購買를 고려 중이다.

Maverick은 實際 10,000 m의 射距離에서 CEP가 1.2 m(4 ft)보다 더 좋은 기록을 가진다. 低高度飛行에서 運用試驗할 때 200 ft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기록이 있다. 다음의 Maverick은 현재 運用하는 것 또는 改良開發段階에 있는 것이다.

○ AGM-65A : TV誘導의 기본형이며 晴명한 日氣에서 運用

○ AGM-65B(映像擴大) : TV誘導型이며 AGM-65A를 개선하여 遠隔能力을 보유하고 小標의에 대한 捕捉能力向上

○ AGM-65D : 이 Maverick型은 晝夜間 및 制限된 全天候運用을 위하여 熱映像感知器를 장착하고 있다. 美空軍의 AGM-65D에 최소所要는 31,000發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型은 GBU-15의 赤外線映像裝置와 射距離가 연장된 Walleye와 같은 熱映像感知器를 보유하고 있다. Hughes社가 개발한 赤外線映像感知器는 일반의 탐색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LAN-TIRN 또는 AN/AVQ-26 Pavé Tave Tack

과 같이 공개된 電子光學裝備는 이 목적을 위하여 正常的으로 채택되었다. AGM-65D의 實際侵透射距離는 A型의 2倍가 된다고 주장한다.

○ AGM-65E : 이 미사일은 AGM-65C의 承繼型이며 美海兵隊에서 사용하고 있다. 135 kg의 HE/Prefrag 彈頭와 遲延信管을 갖는 이 미사일은 최근 美空軍이 플로리다州 Eglin 空軍基地에서 시험하였다. Maverick은 A-4M Skyhawk 航空機에서 投下시키며 움직이지 않는 APC를 9,000 m 距離에서 命中시킨 기록이 있다.

### Napalm

近來에 數個 國家에서 Napalm 爆彈의 많은 시험에서 이런 形態의 武器는 탱크 및 기타 裝甲車輛에 對항하는데 適切한 效果를 保證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 理由 때문에 근래의 開發努力은 새로운 世代의 燒夷爆彈을 목표로 한다. 이 爆彈들은 Napalm보다 오래 燃燒하는 반면, 3倍의 高溫度(3,500°C)를 내는 Triethyl-Aluminum (TEA) Poly-Isobutylene에 기초를 두고 있다.

裝甲車輛에 對항할 새로운 概念의 效果를 고려할 때 絶對적인 結果를 얻지 못하고 있다.

×

×

×



## 일에 忠實하자

우리는 자기 직업에 대하여 세 가지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첫째는 자기 직업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자기의 가족과 친구와 조국에 대하여 애정을 갖듯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자기 직업에 대하여 矜持를 가져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자기 일에 아무 긍지도 자랑도 못 갖는다면 어딘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치욕에 속한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쏟고 진력 등 다한 때 비로소 일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느낄 수 있다. 나는 내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말씀이다.

끝으로 우리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성실해야 한다.

두터운 충성심과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 성의를 다해야 한다. 자기 일에 대한 성실성은 모든 성실성에 앞서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권위자가 되고 귀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職業倫理의 기본 명제의 하나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늘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자기 직업에 대하여 애정도 긍지도 갖지 않고 무생심, 무책임의 태도로 임한다는 것처럼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없다.

나는 나의 직업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직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천직 사상과 소명감을 갖고 자기 직업에 전력투구하는 사람처럼 믿음직스럽고 보람있고 행복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천직적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애국의 길이다.



---

---

## 人和는 최선의 武器

전쟁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낳는다. 프랑스의 애국소녀 잔·다아크가 13세에 오르레안을 포위 공격하는 영국군을 무찔러 포위망을 뚫고 더욱 전진하여 파테에서 적의 대군을 격파하여 사르르 7세의 대관식을 란스에서 올리게 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의 최후 보루를 지켰던 민방위의 용맹도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라의 청·장년들은 모두 전방에 출진하여 거의 섬멸상태에 들어갔고 연합군을 국토 안에서 맞이한 부대는 16세 이하 또는 45세 이상의 전투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연합군은 이들과 맞서 의외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의 군사심리전 전문가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 조사단은 조사에 나서기 전에 나치스의 정치교육이 이들 주민의 끈질긴 항전에 기여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나치스의 정치 슬로건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었고 심지어 나치스에 대하여 정치적 반감을 가진자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그 절절한 전투의식은 다른 어떤 자기의 향토를 외적으로부터 보위하려는 일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조사단은 알게 되었다.

이데올로기로 정신무장된 공산군이라면 정신력으로 당해내기 어렵다는 옳지 못한 편견이 우리의 주변에는 산재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결합하여 창조적 힘을 발휘할 때 그 인간관계는 단순히 정신적, 사상적 결합 관계만도 아니요 또는 감독하고 감독받는 상하관계나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만도 아니다.

참된 인간관계는 서로 살갓이 닿는 공동생활의 다면적 접촉과 교류 속에서 형성된다. 공동생활을 통한 상호이해와 단합보다 강대한 전력은 없다.

## 폴란드의 現實 (2)

— 거기에 光明이 보였다 —

이 글은 뉴욕매거진의 로렌스 웨슬러 記者가 81年 9月에서 10月에 걸쳐 폴란드 內에서 몸소 체험한 生活手記이다.

이것은 수일 동안에 代議員들이 보여준, 움직이고 있다는 마지막 표시였다. 大會는 이내 進行節次에 대한 논쟁, 議會에서와 같은 計略, 그리고 祝辭를 하는 일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나의 친구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텔레비전 방송 취재단을 大會場에 못들어오게 한 것은 自由勞組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조치였어요. 지금까지의 大會進行狀況을 취재했다면 정말 딱할 정도로 따분했을 테니까요. 大會場에 못들어간 TV취재팀은 밤마다 大會場 밖의 「안타까운」장소에서 취재를 해야 했으니까 그런 따분한 장면은 안 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표정들만은 멋 있었지요!』).

大會에 참가한 代議員들은 몇 시간 동안이고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서 침통한 기분에 젖어 들고 있었다. 한 번은 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온 代議員이 나를 만나자, 『야, 이 民主主義라는 것은 그것을 爭取하기 위해 목숨을 던질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일단 그것을 얻고 나니까 지루해서 죽겠구만』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또 한 번은 얀 리틴스키라는 사람에게 會議進行이 너무 느려서 모두들 실망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음

### 로렌스 웨슬러

니다. 모두들 화를 내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비드코스즈代表團 지도자의 한 사람인 얀 콜레브스키는 이 大會에서 가장 性急한 사람의 하나로 알려져 있었지만, 예상외로 이해심이 많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1千萬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念頭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고민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요.』

연설과 勸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代議員들은 차츰 이 大會의 議題에 대한 자기들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 3大 議題란, 自由勞助 안에서의 民主的 節次的 문제, 自由勞組가 政府와 共產黨을 상대로 하여 職場別 直營權 要求를 어디까지 밀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약간 막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로서 代議員들이 폴란드의 叛亂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서 수백년 묵은 로멘틱하고, 실패할 것이 뻔한 虛勢의 전통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自由勞組는 對內的인 民主的 절차에 관한 문제에서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그들의 合法性에 대한 주장은 그것이 共產黨이 구현하

고 있는 專斷的이고 독재적인 방식에 대해 民主的인 방식을 표방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自由勞組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가장 主된 가능성은 바로 그들의 團結—1千萬 組合員의 근본적인 단결에 있다. 自由勞組가 民主的이고 또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組合員이 千萬名이나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千萬名이(아니면, 그다니스크에 모인 그들의 代表 890餘名이) 정말 民主的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만약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異見으로 해서 완고한 派黨이 생기도록 대비려둔다면, 그때는 自由勞組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반대로 말해서 1千萬名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1千萬의 代辯人은 일일이 그들의 증인을 받지 못하고서 그들을 대신하여 말하기 시작할 위험이 항상 있다. 正統性, 權威, 授權—이것들은 自由勞組의 취약한 업적의 극히 중요하면서도 「덧 없는」 요소들이다. 大會가 소집되기 전에도 KOR의 행동파인 아담 미즈니크는 Niezależnosce誌에 발표한 自由勞組 結成記念 論文中에서 自由勞組의 역실적인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놀라움을 나타냈다. 즉,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民主主義에 대한 지의 병적인 고집이 혼합된 운동, 놀라운 지혜와 보기 드문 純眞性이 혼합된 운동』이라고 표현했다.

비록 그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일은 없었지만 自由勞組 全國大會의 처음 며칠 동안은 레크 바웬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美國과 西歐의 人民主義者 및 急進主義者 大會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그것은 지도층에게 먼저 창피를 주고 나서 그들을 改選하는 방식이다.

바웬사는 그가 變形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폴란드 共產體制와 연령이 비슷하다. 그는 戰後 폴란드體制의 所産임에 틀림없다. 1943년 바르샤바와 그다니스크의 중간쯤에 있는 農村인 리프노 근처에서 태어난 바웬사는 시골 木手인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태어난지 2년만에 그의 아버지는 나치 수용소의 고생 때문에 죽었다. 레크의 어머니는 이윽고 前남편의 동생과 결혼하여 수년 후 레크를 남겨두고 美國으로 떠났다. 한편 레크는 工業學校를 다녔으며 폴란드軍에 복무하고 나서 다른 수십만명의 폴란드 농촌 청년들이 그리했듯이 새로 확장하는 工業地域에서의 일자리를 찾아 農村을 떠났다. 바웬사는 그다니스크 造船所의 電工이 되었다.(그다니스크 출신의 안드르제이 그비아르다, 바르샤바 地區의 책임자 즈미그뉴 부야크를 포함하여 自由勞組 지도자의 많은 사람들이 電工이 아니면 暖房기술자로 출발하였다—이런 일자리는 그들이 工場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수준의 노동자들과 對話를 나누고, 또 그들의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것처럼, 『그 工場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1970년 바웬사는 겨우 27세였으나 12월의 사건에서 적극 활동하여, 罷業委員會의 委員으로 선출되었으며, 1971년 1월 폴란드 共產黨首 에드워드 기에레크와의 面談에 罷業者들을 대표하여 나갔다.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활동도 1970年代初에는 억제되었었다(이것은 어느 정도는 때때감 때문이며, 또 어느 정도는 기에레크의 領導下에 제반 사정이 실제로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1970年代 中반에 이르러서 그는 다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1976년 4월에 熱火같은 연설을 하고 나서 그는

造船所의 일지리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4년 동안 뜨네기 일꾼으로 전전해야 했고, 빈번히 48시간 拘留를 당하기도 했다(그가 최근에 체포당한 것은 1980년 7월 31일이었는데, 그때 그는 출생한지 며칠 밖에 되지 않은 애기를 데리고 나왔다가 아파트 밖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애기와 유모車는 人道에 버려진채 체포되어간 것이다.). 1976년과 1980년 사이에 바웬사는 KOR委員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규모가 작은 「발틱 自由勞動組合」의 조직에 참여했다— 이것이 母胎가 되어서 오는 날의 自由勞組(Solidarity)가 생겨난 것이다. 1980년 8월 그가 그다니스크의 造船所의 담을 넘어 들어가 罷業을 지휘하면서 처음 몇 시간 동안에 벌인 눈부신 활약은 이미 폴란드에서는 하나의 傳説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일에 대한 설명은 神話가 되다시피 했다. 바웬사는 協商에서는 침착하면서도 확고부동하고, 대중 연설에서는 정열적이면서 靈感을 불어일으키는 등 처음부터 카리스마적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군중의 무드를 놀라울만큼 잘 포착하고,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무드에 너무 멀리 앞서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확실하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무뚝뚝하고 冷笑의인 스타일이 폴란드인과 西方의 記者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던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의 카리스마는 여전하다. 그가 會議場에 들어서면 代議員들은 술렁거리는 것같이 보인다. 모든 사람이 무엇보다도 그의 존재를— 그가 어디에 있으며, 그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 레크 바웬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아니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폴란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들은 바웬사의 결합을 늘어 놓는다. 좋은 학벌이 없고 때로 지만하며, 또 教會內 온건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으며, 그의 폴란드 말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노조운동을 위해서는 그의 영도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이같은 순수성, 적법성, 권위 의식은 오늘날 폴란드 정치의 주요한 요소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같은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또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같은 의식을 서로 확인할 수도 있다. 순수성의 이러한 循環 및 再循環이 일련의 映像들— 수천의 폴란드인 가정 및 공장의 벽에 걸려 있는 사진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는 나라의 원로로서, 사랑받는 집안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여러 해외 外國 支配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폴란드 정신의 權化로서 소중히 아끼는 비진스키(Wyszynski) 추기경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어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사진이 있다. 그것은 비진스키가 허리를 굽혀 한 배 그의 밑에서 크라크의 대주교로 있다가 갑자기 敎皇이 된 요한 바오로 2세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權威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油畫로 된 이 그림이 체스토초와(Zestochowa)에 있는 國立祠堂 벽장에 준비하게 늘어진 王과 聖者들의 영정에 끼어 있다.). 흔히 이 그림 다음으로 보게 되는 또 다른 그림은 요한 바오로 2세가 敎皇廳에서 바웬사를 接見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그림에서 권위가 분명히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흐르고 있다.

『이곳 폴란드에는 새로운 三位一體가 생겨났습니다. 요한 바오로가 우리의 聖父이며, 바웬사가 우리의 聖子이며, 1970년의 殉教者들이 우리의 聖神이죠』라고 그다니스크의 한 택시 운전기사가 진담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그 외에도 다른 映像들도 있다.

예를 들면, 農村自由勞組라는 農民組合의 등록을 성취케 한 協商過程을 수록한 『81년의 농민』이라는 새로운 기록영화는,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바웬사가 그다니스크에 있는 自由勞助運動 本部로부터 一團의 대표들을 이끌고 도착하는 광경을 보여준다. 그는 거의 아무 말없이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긴듯 파이프 담배만 빨아댄다…… 그러나 일은 풀려가기 시작한다. 고위 정부관리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도착하면서 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이어 갑자기 合意에 도달한다. 승리의 축하식에서는 바웬사가 농촌자유노조의 젊은 지도자, 잔 쿨라이의 손을 잡고 높이 쳐든다. 쿨라이는 기골이 장대하고 우람한 체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웬사는 맥없이 그의 옆에 배어달려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래도 권위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는 뚜렷하다. 그뿐 아니라, 바즈다의 『鐵人』이라는 영화에는 또 다른 좀 더 재미있는 현상이 나온다.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에서 1970년의 殉教者 비르쿠트의 영화 편찬자 일을 맡아 보았던 야그니에스즈카가 뒤에 가서 1980년 파업의 지도자 비르쿠트의 아들 톨크지크와 결혼한다. 때는 아마 1978년경인 것 같고 장면은 그다니스크의 교회이다. 이 영화의 架空의 현실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새로운 폴란드 여인과 폴란드 청년의 결혼이다. 이 결혼에는 造船所와 당시만 해도 地下團體였던 造船所의 反體制運動에서 온 두 사람이 증

인으로 나온다.

한 사람은 起重機를 운전하는 여성 영웅 안나 발렌티 노위크즈로, 그녀의 파면이 한 때 1980년 파업 단행의 일부 원인이 된 바 있는 문제의 여성이며, 또 하나는 바웬사였다. 이들은 꽃을 들려주거나 가벼운 장난을 치며 함께 논다. 그것은 아주 묘한 장면이다…… 누가 누구에게 순수성을 넘겨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관중들은 이런 장면을 좋아하며, 이런 장면은 그들에게 눈물까지 자아내게 한다.

『바웬사는 反民主者는 아니지만, 非民主主義者입니다』라고 이느날 오후 KOR의 행동대원인 잔 리틴스가 내게 말해 주었다. 바웬사와 다른 自由勞組 지도자들이 작년 한해 동안 활동해야 했던 상황은, 民主主義 과정의 일부 미묘한 절점은 무언가 사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위기가 발생하면 이 위기는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처리하고 난 뒤에는 결정 도달방법에 관해서 분개해 하는 경우가 많다. 양보가 너무 컸다든가 또는 타협이 너무 경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같은 분개심을 나타낸다. 따라서 흔히들, 보다 과격하고 모험적인 分派들이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결정 도달방법을 트집잡아 이의를 표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勞組員들의 데다수가 어떤 특정한 타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믿을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들이 협의를 받은 바는 없으므로, 양보를 民主過程의 실패로 물기는 매우 손쉬운 일이다. 討議는 질질 시간을 끈다. 自由勞組 공보실에 근무하는 知性人, 레스제크 스자루가가 바람을 쐬려 밖으로 나와서 勞組가 당분간 民主過程의 일부분을 유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한

다. 『우리들에 對한 政府의 공격은 고도로 中央集權的이고 일사불란하다.

우리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도층이 많으리라. 유권자도 동일 사상을 갖

며, 해결해 줄 의사가 없다면 자기 자신이 독재자가 되든 말든,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계투표를 요구하며 말을

했었다. 계투표를 갖는다면, 안락산과, 용문